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 이나시오 영성의 기본 어휘들 -

빌리 램베르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Aus Liebe zur Wirklichkeit
Grundworte ignatianischer Spiritualität

Matthias-Grünewald-Verlag, Mainz
Seoul: [Institute for Ignatian Spirituality]
Big bell Press 1998

차 례

서 언

서 론: 이나시오식으로 읽기 • 10

총관(總觀) • 15

길(여정)/ 왜 안되는가?!/ 현실성/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기

준비와 출발 • 29

갈망/ 관대함/ 영신수련/ 훈련/ 기도/ 마음의 준비

기초와 목적 • 51

하느님/ 감사(I)/ 감사(II)/ 경외심/

영광(영예)/ 질서/ 불편심

해방과 화해 • 71

죄/ 무질서한 애착(사욕편정)/ 양심성찰(I)/

양심성찰(II)/ 방향 전환/ 나 자신

추종과 파견 • 91

예수/ 내면으로부터의 인식/ 전투/ 가난/
순명/ 하느님의 뜻/ 선택/ 영의 식별(I)/
영의 식별(II)/ 더욱더/ 봉사/ 열정/ 영혼들을 돕기/ 마리아

십자가와 부활 • 141

죽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랑/
주님 안에서/ 죽음/ 눈물/ 사랑/ 헌신의 기도/
하느님과의 친교

성령 안에서의 삶 • 171

영/ 주님 안의 벼들/ 의사소통/ 공동식별/
사랑의 내적 법칙/ 교회와 함께 느끼기/ 목적-수단/
우리의 행동양식/ 경험/ 총명/ 건전한 판단/ 사정에 따라/
척도/ 보편성/ 일과 수고/ 행동/ 순수한 의도/ 도구/
활동 중의 관상

그리스도의 영혼 • 230

서 언

책의 서언은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다. 이렇게 서언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작업은 저자에게 계획하지 않았던 것과 쓰는 도중에 생겨난 것을 저자가 원한다면 추가로 의도한 것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준다. 이 책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고 도중에 계획없이 자라난 것은 무엇인가?

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 우연과 필연성이 혼합된 것이었다.

우연이었던 것은 내가 이탈리아어 사전에서 맨 앞 두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100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단어들은 말해지는 전체 어휘의 50%를 형성하고 있다.

필연성은 내가 예수회원으로서 그리고 영성지도자로서 로마에 있는 독일과 헝가리 신학원에서 사도직으로 이냐시오 영성을 신학생들에게 전달했어야만 하는 데 기인한다. 우연과 필연은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이냐시오식의 단어인가를 바라보는 아이디어로 합쳐졌다. 이것이 '이냐시오(식)의 기본 어휘'의 시발점이었다.

독일의 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의 영적 지도신부로서의 내 사도직 안에서 나는 이런 기본 어휘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확증을 받

왔다. 왜냐하면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신수련의 영성을 대화로 이끌어내기는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말이 적은 사람이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 빈번히 곤란을 겪는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1991년에 이나시오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고자 우리와 성인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적인 거리와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 영적 거리까지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다. 이나시오 영성을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의 주된 의도였다. 그것을 위해 비교적 짧은 단락이 필요하였다. 짧은 단락들 안에서 한 번은 시선이 더욱더 이나시오 성인에게 던져지고 그리고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적으로 실행되고 그리고는 다시 더 이나시오 성인을 엿보는 일이 다소간에 우연으로 생겨났다.

처음에는 우연히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나시오 기념해에 집필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어떤 의미의 필연성으로 책을 끝마쳤다. 엘리사벳 모이저 부인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래서 그녀에게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나에게 이나시오 성인에 대한 예수회의 해석을 가르쳐준 수도 공동체와 예수회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 생활공동체(CLC, 이나시오 영성을 따르는 평신도 단체—역주)와 몇몇 교구 신부님들께서 당신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나시오의 카리스마를 풍요로이 새롭게 발견한 은사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나는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나시오 성인께 대한 나의 감사는? 이는 내 이름의 수호 성인의 경우와 약간 같다. 어렸을 때에 나는 벽에 걸려있는 내 이름의 수호 성인의 그림을 항상 뒤집어놓았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것을 다시 앞으로 돌려놓으셨다. 약간 어두우면서 꼼꼼하게 잘 그

려진 목탄화는 나에게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내 이름의 수호 성인이 다름아닌 잘못된 두려움의 극복자라는 것에 놀라면서 알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나시오 성인도 두려움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현실의 성인이다. 이 현실이 뜻하는 바는 모든 인간적인 삶과 세상의 현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현실적 존재'로서의 하느님께서 'ens realissimum',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임하시어' 인간이 되신 가장 실제적인 현실이시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나시오 성인은 현실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찾으셨다.

모든 현실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이나시오 성인과 그분의 믿음에 대한 나의 감사의 마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나고 있다. 그 동안에 나는 내 방에 이나시오 성인의 그림을 걸어놓았다. 정면의 얼굴이 있는 그림이다.

1991년 성령 강림절에, 빌리 램베르트, S.J.

서론: 이나시오식으로 읽기

구매자는 한 권의 책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책을 다루는 권리도 취득했다. 그는 책을 선사하거나, 읽지 않은 채 책꽂이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또는 주제별로나 차례대로 죽 읽어나갈 수도 있다. 나는 전술한 가능성들에 이나시오가 말하는 대로 독서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열매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첨가하고 싶다.

- 이나시오는 무엇보다도 기사 소설을 애호하였으므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읽는 독서를 알고 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읽을 수 있었고 백일몽(Wachträumen)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나시오의 기본 어휘는 기사 소설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흥미나 권태에 따라 읽고, 그것이 백일몽 안에 여파가 남도록 하는 것을 허락한다.
- 기사 소설들은 이나시오가 대부분 기갈이 든 채로 탐독하였고 그 때에 자신이 나중에 영신수련 책자에 말로 표현한 체험을 하였다. "많이 아는 것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사물을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킨다"(영신수련 2). 그러므로 어느 주일 산책에서와 같이 항상 어느 한 단락이나 다른 한 단락만을 읽는 것은 분명 해볼

만한 일이다. 한걸음씩 '단어의 길'(Wortweg)을 가고, 가끔 멈추고, 누군가에게 특히 중요하고 마음을 끄는 듯이 보이는 한 곳에 숙고하면서 체류한다.

- 이나시오는 집중적인, 독서에 관한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여러 쪽에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붉은 잉크로, 마리아의 말씀은 파란 잉크로 쓴다. 사람들은 손에 연필을 쥐고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의문이 생기는 곳에는 가장자리에다 물음표를, 깨달은 곳에는 느낌표를, 계속 생각하고 싶은 곳에는 횡선을 그을 수 있다.
 - 또한 한 단락에 관한 의견 교환과 대화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나시오는 스스로 자주 그리고 기꺼이 영적인 대화를 찾았다. 아마도 여기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우선 모두가 무엇이 자신에게 특별히 마음을 끌었는지를 얘기해도 되는, 이른바 경청하는 모임이다. 어느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진 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자극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기본 단어들은 명제-묵상(Schriftmeditation)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단락 안에는 정확한 위치 표시를 한 여러 개의 명제 용어들(Schriftworte)이 있다. 이는 인용된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그 구절이 들어있는 전체 영역도 읽고 묵상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 사람들은 독서 끝에 항상 '이나시오식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 무엇이 나를 특별히 감동시켰는가? 말로 표현된 것이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게 중요하게 된 것을 나는 어떻게 일상적인 삶 안에서 교착시킬 수 있는가?
- 이 책의 단락들은 영신수련 책자의 구성에 일치하는 장(章) 안

에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어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신수련의 길을 가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대략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람들이 몇 주일이나 몇 달 동안 매일 개인적인 기도와 그날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에, 합쳐서 넉넉하게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날 일어난 이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은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그룹 안에서 그리고 혹은 그들을 이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동반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 독서할 때에는 항상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것을 고르고, 이나시오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 이나시오가 알려주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독서 지침은 영신수련 책자 안에 있다.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진술을 단죄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준비를 더 하고 있어야 한다"(영신수련 22). 이것은 이나시오 자체를 이해하는 노력에도 적합하다. 그는 '까다로운 수호 성인'이다. 그의 성격과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의 성스러움이 그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지양(止揚)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가 스스로 그것을 너무 잘 알았을 뿐이다. 그외에 간단히 건너뛸 수 없는 500년이나 되는 역사의 도량이 있다.

20세기의 독자에게는 그외에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 많은 단어들, 독자에게는 자극하는 단어들, 금지된 단어들, 이나시오에게는 현저하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하느님', '복종', '교회의 신념', '질서', '금욕' 등등이다. 내적인 의구심은 빨리 차단하고 더 이상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

으려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나시오를 이른바 우리 시대의 구미에 거슬러서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면 물론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이나시오의 기본 어휘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에 비교하여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이나시오의 책들이 지대한 도움을 베푼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또한 텍스트들이 어떻게 텍스트 밖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그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 성서와 성인전기를 읽은 것이 그의 회심의 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후에 — 그가 썼듯이 — 기도의 체험으로 신앙의, 복음의 진리들이 내면에서부터 그에게로 가까이 와서, 그는 성서 없이도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나시오의 기본 어휘' 로써 독자가 자신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영광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없을 것이다.

총 관

길(여정)

이나시오 영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때, 이에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비록 이나시오 성인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길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그의 전생애와 믿음과 예감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운다.

1491년 로올라 성에서 태어난 바스크 사람 이니고 데 로올라(Inigo de Loyola)의 길은 높은 신분을 겨냥한 길 — 궁중에서의 출세 — 이었다. 1521년에 팜플로나 요새를 방어하다 다친 심한 무릎 부상으로 높은 신분을 향해 일관되게 계획된 길은 '낮은 신분으로의 전향'과 영적인 회심의 길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부상 때문에 그는 자살의 유혹에 흔들릴 만큼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다른 한편 하느님과의 경건하고도 신비스러운 결합에 이르는 고상함에도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이러한 인생 여정 가운데 스스로를 '순례자'로 이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 순례자(homo viator)라 하지만, 이나시오 성인이야말로 전형적인 순례자라 하겠다. 그는 순례를 자신의 고유한 영성생활의 기쁨으로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

무리의
여정

라 편지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순례자'로 서명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순례자로 공공연히 고백하며, 또한 이에 부합하여 그의 영적 자서전은 『순례자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영적 자서전에서 겉거나 짐승을 타거나 배를 타고 유럽을 통과하여 영국과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이끌어갔던 자신의 여정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오로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한 가지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내적 여정은 피정 지도서인 영신수련 안에 결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 영신수련을 '겉기와 달리기'에 비유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기도하는 이에게 동반자로서 영적 체험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길 — 영성(Wegspiritualit)은 항상 영적 체험과도 결합되어 있다. 영신수련의 기도 여정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모든 '영성적인 조망'을 통해 사람들과 동행한다. 에덴 동산으로, 사막과 어두운 협곡을 지나 타보르산 위로 끌고타산을 향하여 그리고 승천과 파전의 산으로.

기도하며 훈련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영접하고 계시는 길, 바로 그분 스스로가 길이신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어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느 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 이나시오 영성은 결정의 영성, 확고부동함(Entscheidenheit)의 영성, 자유의 영성이다. 무엇보다도 선택을 위한 훈련과 지침에서 이나시오적 선택의 도움들과 길잡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영의 식별'은 이러한 선택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즉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과 절망과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준다.

'영의 자유' — 불편심(Indifferenz)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느

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이러한 "투신하는 태연함"(engagierte Gelassenheit; 테이아르 드 샤르댕)과 "살아있는 것의 부유"(Schwebe des Lebendigen; 막스 프리쉬)는 하느님의 영이 그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모든 길을 향해 개방되어 있게 한다.

'스스로를 정돈하는 준비성'으로도 불리우는 이 내·외적 유동성은 이나시오 성인이 주로 사용하였던 표현들 가운데 '여하에 따라서'(je nachdem)에 상응한다. 이 표현으로써 그는 다양한 상황, 사람, 시간, 주변환경으로 언제나 새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나시오 정신 'magis' (보다 더)는 길 — 영성 언어에서는 '계속해서'(weiter)로 번역해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계속해서 가라 등. 이 '계속해서'는 이기적인 자아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을 이나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자가 자기의 사랑과 의지와 이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모든 영신 사정에 있어서는 더욱 진보할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189).

자신에게서 나옴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음이 된다. 이나시오 성인에게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일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삶의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길도 감수하였다. '영혼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에게는 어떤 길도 가파르거나 멀지 않았으며, 어떤 저항도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종'(Dienst-Bote)으로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동료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여정 중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는 합창기도(Chorgebet)가 자신의 공동체 일과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며 지나는 것은 우리의 소명에 속한다.”라고 수도규칙의 일부에서 밝히고 있다.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이나시오 성인과 그의 동료에 의해 특별한 ‘영성적 걸음걸이’ (spirituelle Gangart), 한 양식, 행동의 한 방법이 —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양식’ (noster modus procedendi) — 형성되었다.

이것 역시 이나시오의 길 — 영성의 특색을 드러내는 절이다. 즉 양식과 방법을 위한 직감력과 숙고를 거듭하는 행동방식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영적인 경영’ (geistliches Management)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이나시오 성인이 ‘경외와 존경’이라고 부른 기본 태도로부터 나온다. 그는 자신의 영적 일기에서 이것이 그를 하느님과 피조물들로 이끄는 길이라고 적고 있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중요한 일이란 ‘모든 것에서 하느님께 공경과 찬미를 드리는 일’이다. 경외심은 그가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한다. 이나시오 성인의 이 말은 모든 상황 — 고독, 직업, 기도, 우정, 일, 전례, 이웃, 그리고 비애와 기쁨 — 가운데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증명중’ (Christliche Laufpass)과도 같다.

이나시오 성인과 그의 동료들이 로마에서 얻은 첫번째 교회가 ‘Madonna della Strada’, 즉 ‘여정의 마리아’ 교회였다는 것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음미해 볼 만하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성모 마리아는 언제나 영적 인생길의 한 동반자였다. 이 길에서 ‘순례자’를 한번 본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매우 기쁨에 넘쳐흐르는 눈빛을 갖고 있는 작은 스페인 사람”으로 이나시오 성인을 묘사하였다.

왜 안되는가?!

예수회원과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한번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당신네들 예수회원은 어떤 이가 당신들에게 무엇에 관하여 질문하면 항상 바로 반문을 합니까?” — 이에 대한 예수회원의 대답은 이렇다. “왜 안됩니까?!” — 들음과 질문에 대한 강조는 철저하게 이나시오식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근원적 질문 요점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예수회 신부)의 경우 그것은 신학적 방법론을 위한 질문이 되기도 하였다. 만약 질문이 심오하고, 충분히 세밀하게 던져진다면 대답은 거의 질문 자체에 앞서되어 있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왜’와 ‘왜 안되는가’는 이나시오 성인의 생애에서 듣고 질문하는 일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과 영적 프로필에도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나시오 영성의 탁월한 전문가 후고 라너(예수회 신부)는 『인간과 신학자 이나시오』(프라이브르크, 1964)라는 그의 저서 서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Pour quoy non.” 왜 안되는가. 이 문장의 제명은 로올라 성의 경당 안에 있는 성모영보(예수탄생 예고) 그림 밑에 적혀 있다. “이 집의 막내아들인 이니고가 어린이다운 용기를 처음으로 보였을 때인 1497년에 이 그림은 로올라에 도착하였다. 그는 회심의 시기에 그가 언제나 단호히 ‘왜’나 ‘왜 안되는가’를 숙고할 때와 고매한 기사로서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해되는 요소로의 이유인 ‘왜’란 있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 그림 앞에서 기도를 하였다.”

이 문장의 명제는 '고매한 기사' 이나시오 성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왜?"와 "왜 안되는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모든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왜 벌써 자야만 합니까?" "왜 같이 가면 안되니까?" 등등. 아마도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그것은 항상 그래 왔어!"에 반대하여 "왜 다르게는 안되니까?"라는 모든 젊은이들의 배후 질의도 함께 지니고 있을 것이다.

젊은 이나시오로부터 기사답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도전적인 음색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위반사항 때문에 그가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모든 무기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검투사, 명인으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쫓았을 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팜플로나 요새를 방어하자고 홀로 주장하였을 때, 위대한 업적과 모험을 꿈꾸었을 때 — 이것은 다름아닌 도전을 기꺼이 즐기는 기사다운 질문 — "왜 안되는가?"이다.

"왜 안되는가?"를 결정적으로 해명하고 다듬어 깊이를 더하는 일은, 이나시오 성인이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적으로 이해할 때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영신수련의 핵심적인 고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님을 눈앞에 모시고 그와 서로 이야기할 것이다. 즉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서 현재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되셨는지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물을 것이다"(영신수련 53).

이나시오 성인에게 이 사건이야말로 그가 자주 그 앞에서 기도하였던 로올라성 경당에 걸려있는 그림이 담고 있는 예수탄생 예고 장면에서 마리아가 체험하였을 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라는 그의 질문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 즉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 3,16)를 포함하고 있다.

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가능성을 믿는 그 곳에서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하느님 영의 작용을 통해 자라날 수 있다. 사라, 너는 왜 네 나이에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면 안되느냐? 모세, 너는 왜 더듬거리는 네 말로, 내 능력과 네 형의 도움으로 파라오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되느냐? 네 스스로 '너무 어리다'고 느끼는 예레미야, 너는 왜 나의 예언자이면 안되느냐? 마리아, 왜 너한테서 하느님, 성령의 비호에 힘입어 하느님의 사랑이 태어나면 안되는가? 베드로, 너는 왜 네 발을 씻도록 놔두면 안되느냐? 항상 "왜 안되는가?" 이 하느님 사랑의 질문은 인간의 모든 항변들과 핑계들을 무력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마르 10, 27).

이것은 한 인간이 처한 한계상황에도 적용되지만 또한 일상적인 한계에도 적용된다. 나는 화해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가? 왜 안되는가?! 나는 한번 더 이 어려운 과제에 접근하여야 하는가? 왜 안되는가?! 나는 사건을 또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왜 안되는가?!...

이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사랑이 왜 사람이 되었는지를 묻는다.

그는 자신의 삶의 중앙에서 거룩한 대답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그가 준 대답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의 신학의 핵심과 교회를 형성하는 그의 행동의 원천을 파악한다”(후고 라너).

현실성

보통 사람이라면 현실주의(Realismus)나 현실감각(Wirklichkeitssinn)을 곧바로 경건성이나 영성과 연결시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나시오에게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하여야 한다. 비록 이나시오가 순례 초기에 ‘소년적’이며 우스꽝스럽게 반영된 대업에 대하여 비현실적으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는 성인들 가운데 현실주의자(Realist)로 불리어질 수 있다. 이나시오는 말수가 적으며, ‘행동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의 언어가 현실에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경험, 일, 현실성, 목적과 수단, “모든 것 안에서의 하느님”, 이러한 표현은 그에게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특히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리킨다(칼 라너).

이나시오가 카르도넬(Cardoner) 강가에서 얻었던 조명체험에 대하여 들려준 이야기는 얼마나 이 체험이 그의 전생애의 기초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이 체험을 통해서 신앙과 세상의 현실에 얼마나 잘 인도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가 거기(카르도넬 강가)에 앉아있을 때, 오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환시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그는 영적인 삶과 신앙의 진리,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에 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롭게 보일 만큼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가 그 당시 깨달았던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었음에도, 낱말이 설명할 수 없는, 다만 그 명료함을 오성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었다. 그는 설사 예수 두 해가 넘는 자신의 전생애에서 받았던 하느님의 도우심과 일찍이 이해하였던 모든 것을 합쳐 하나로 모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가 단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받은 것보다는 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조명받아 머무를 만큼 그렇게 인상깊은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된 듯하였고, 그가 전에 소유하던 것과는 다른 오성을 가진 듯하였다”(자서전 30).

이나시오는 이야기할 때 이 체험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즉 믿음과 ‘인간적인 지식’의 실재에 관한 종합적 관점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의식에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나시오 성인에게 드러난 신적이며, 인간적인 현실은 그가 이 현실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도록 초대한다. 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작용을 미침에 있어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효과’(Wirksamkeit)는 현실과의 만남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효과없이’ 되돌아오는 일 없이 성취된다는 하느님 말씀처럼(이사 55,11 참조), 그렇게 이나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협력하고자 한다.

이나시오는 현실이란 어휘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에 가까이

있다. 현실성(Wirklichkeit), 일(Werk), 작용(Wirken), 직물(Gewirk), 소용돌이(Wirbel) — 그렇다, 몸을 비트는 벌레(Wurum)처럼, 마틴 부버가 창조의 첫 실재, 혼돈<Tohuwabohu>을 번역한 것처럼 — ‘방황과 혼란’(Irrsal und Wirrsal) 등의 어휘들은 똑같은 어근과 구상적인 표상에서 유래한다. 이나시오는 이 현실의 직물을 함께 짜서 만들 줄 알았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실재를 선사하신다고 이나시오는 자신의 한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어’ 존재와 생명을, …영혼의 힘을, 육신의 힘과 외적인 재화를, …그분의 은총의 선물을, …마침내는 전 우주와 그 안에서 물질과 영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고 이나시오는 다정다감한 영적 말씀을 들려준다. 이나시오 영성은 비록 현실이 거칠고 반감을 불러 일으킬지라도 현실에 의해서 포용되고, 현실을 감싸도록 초대한다. 작가 A. 밀러(Arthur Miller)는 그의 한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아이였음을 꿈꾸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몽고계였고, 나는 달아났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항상 다시 내 무릎 위로 기어왔다. 그 아이는 내 옷을 잡아당겼다. 만약 내가 이 아이에게 입맞출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잠을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훑은 얼굴 위로 숙였다. 섬뜩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 입맞추었다.”

성인들은 현실에 입맞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분명 그의 유언장에 그가 회심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느 나환자

에게 입맞추었다고 쓰고 있다. 그가 예전에는 거부감만을 느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내면의 달콤함을 감지했다고 한다. 이나시오 역시 구역질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언제나 감싸 안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그를 감싸 안도록 하였다. 그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기

어느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랍비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내게 말해다오!”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이나시오가 일조하였다면 “하느님을 모든 것 안에서 찾고 발견하라.”고 하신 말씀에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이나시오의 표현들은 많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야말로 다른 모든 표현들이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기본 원리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찾음과 발견을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신비스럽게 충분히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나시오는 한 회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연학 중인 회원은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말할 때나, 걸을 때나, 보고 맛보고 듣고 생각할 때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분명 하느님의 존엄은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와 본질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숙고하는’ 이러한 방법은 마치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만이 공감할 수 있는 더

욱더 추상적인 방법의 정신적 요소에로 고양되고자 하는 것처럼, 더욱 용이합니다. 이 탁월한 훈련은 단지 짧은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대한 은총의 방문을 수반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이나시오 서한 206).

이 말씀을 좀더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것이 의미할 수 있는 바를 짐작해 보려 노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이 말씀이 혹시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이 말씀을 단 순하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이나시오는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그의 젊은 회원들이 이러한 경험에 ‘매료되도록’ 노력하였다. “여러분은 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생애를 받쳐줄 이 영적 체험의 순간이 선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모든 이슬 방울에서 하늘의 태양과 하느님의 햇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모든 대화에서, 어둠과 빛에서, 인생의 기쁨과 곤경에서, 격렬한 논쟁과 합의에서, 저항 속에서, 그리고 순풍 때에, 질문과 대답 안에서, 하느님 가까이에서 그리고 하느님 멀리에서,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가? 신이 죽은 것으로 설명되는 한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스스로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고, 또 대신하여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의 ‘하느님 콤플렉스’에 시달리기 시작한 인간들을 위한 말씀으로, 마치 전사(戰士)와도 같이 하느님을 부정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과 하느님 표상에 대한 기억을 잠재우지 못했던 열광적인 무신론자들을 한번도 겪지 않은 세대를 위한 말씀인가? 인간이 좌절하도록 내몰리는 시

대에 하느님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 칼 라너가 말하듯이 — ‘창의성이 풍부한 동물’로 퇴보할 수 있는 인간 때문에 하느님을 다시 새롭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아담,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새롭게 제기된다. 나치 정권하의 집단학살 수용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문답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기되었다. “만약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에?”

모든 것 안에서의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서의 모든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느낌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신을 꺼리는 정신적인 여러 경향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문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걱정과 수난이 그렇게 명명되고 있는 ‘하느님 수난’이다. 설사 온 세상이 ‘종교는 더 이상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혹은 ‘더 이상 필요할 수 없다’고 이미 믿고 있을지라도”(J.B.Mertz).

떠남,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탈출(Exodus)을 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신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방종(Exzess)에만 이르러, 몰이지경(Ekstase)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자아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나시오는 이러한 하느님의 너(Du Gottes)를 향하여 자신의 초극함을 ‘더없는 행복’으로 체험했다.

“만약 누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전개되고, 언제나 느껴진다면,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선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계시는 만큼 이것을 향유한다면, 또 그분이 현존하는 무한성을 통하여(누군가) 그에게 현존이 선사되고, 보존된다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더한 행복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사람 안에서, 바로 그들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더욱더 진실되게 가까이 가게 해주는 도구로서,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도구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이나시오 서한 58).

준비와 출발

갈 망

“갈망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넬리 삭스(Nelly Sachs)가 한 이 말의 진의는 누구나가 쉽게 입증할 수가 있다. (아마도 철부지 어린 학생이나 불평하는 아이, 그리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곤욕스러운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원의, 바람, 욕구, 갈망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갈망은 더욱이 이나시오에게는 그가 시작할 때 ‘갈망을 위한 갈망’으로 만족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다. 만약 누군가가 그분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갈망을 갈망하는 것만으로 넉넉하다.

이나시오는 기도할 때마다 정확히 두 번의 청원 기도를 통해서 갈망의 열정을 고무시킨다. 처음에 하는 항상 같은 문구의 청원 기도는 이른바 ‘일반적인 준비기도’이다. “나의 모든 의향과 행동과 노력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만 마련되도록 주님이신 하느님께 은총을 구한다”(영신수련 46).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내 생애의 모든 갈망을 집약하고, 매일 새

로 말하고 싶은 기본적인 청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봄은 상당히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즐겨하는 갈망의 청원 기도가 자신의 전생애와 기도를 떠받치고, 특징지우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두번째 청원 기도에서 이나시오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각별하게, 이른바 '특별한 원의' (Sonderwunsch)로써 간청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한다. — 더 깊은 자아 인식,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화해 준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통찰 등.

기도는 우선 각자의 마음 안에 일고 있는 움직임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몸소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로마 8,2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 가운데에 현존하신다.

아우구스티노는 언젠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는 기도'로 표현한 적이 있다.

“믿음, 희망, 사랑은 갈망의 끊임없는 기도이다.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갈망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는 말로써 기도를 바친다.”

아우구스티노는 간절하면서도 훌륭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느님의 갈망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여 이 갈망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갈망은 예수님 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분과 이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왔는지 모릅시다”(루가 22,15). 바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갈망하는 경우로

서 성찬식의 원천이 된다. 더욱이 그분이 아픈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 나는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라고 묻는 경우도 이러한 것이다. 예수님의 갈망, 하느님의 갈망은 인간이다. 인간은 다시금 자신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발현하시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보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목말라하지 않는 당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누가 하느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리고 맥주와 과일주, 텔레비전과 자동차 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가 하느님을 갈망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 오로지 한 가지 해결책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동료 당나귀 곁에 물통에 담긴 물을 매우 즐겁고도 유쾌하게 풍족히 마시는 목마른 당나귀 한 마리를 데려와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꾸밈도 없어야 한다. 단순히 그 당나귀가 갈증을,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갈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동료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갈증이 동료 당나귀로 하여금 물통에 고개를 숙이고, 신선한 물을 꿀꺽꿀꺽 마시도록 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이웃에게는 신앙심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강연보다 더 좋은 강론이기도 하다”(자크 뢰, Jacques Loew).

하느님을 애타게 갈망한 이나시오 성인의 강론이 그러하였다.

관대함

“주님, 창조 안에는 엄청난 낭비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들은 씨앗이 잃어버린 그런 양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샘들은 넘치도록 물을 솟아냅니다. 태양은 빛을 범람하며 발산합니다. 당신의 관용으로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너그러움으로 제가 인색하게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관대하고 좋으시듯이 얼마나 당신의 손을 열어젖히고 계시는지 제가 깨달을 때에 저 또한 임금님의 아드님처럼, 하느님의 아드님처럼 이재(理財)를 따짐없이 제 편에서 주기 위함입니다.”

브라질의 카마라 주교의 이 기도문은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5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영신수련을 하는 이는 자신의 창조주에 대하여 너그러운 정신과 솔직함을 지니고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다”(영신수련 5).

영신수련의 주석가들은 항상 관대한 마음을 영신수련이나 영적 훈련을 위한 근본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좁은 소견과 편협한 마음은 영신수련과 인생길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전제들이다. 사람들의 만남을 관찰하노라면 이것은 더욱 쉽게 입증된다. 전제가 많고, ‘만약’이나 ‘그러나’가 대화 가운데 자주 등장할수록, 상대방마다 안전장치를 염두에 두면 둘수록, 그리고 손해볼 것을 걱정하면 할

수록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성숙되기란 더욱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상대방들은 이런 전제를 없애는 작업을 천천히 해야만 한다. 정치에서 이것은 ‘신뢰 형성 수립’(vertrauensbildenden Maßnahmen)의 시간이다.

삶에서 ‘더욱더’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관대함은 어떤 것인가? 영신수련의 원래 텍스트에도 돌아가는 것이 이에 대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냐시오는 ‘con grande ánimo’ 즉 고대한 정신과 넓은 마음으로 영신수련에 들어가라고 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대함을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 상태”(extensio animi ad magna)라고 정의한다.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위대한 것에 대한 지각을 갖는 것이다. 커다란 희망, 위대한 갈망과 환상과 꿈들, 그리고 거대하게 계획된 전망들을 갖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라고 소화 데레사는 말했다. 대 데레사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메리 워드(Mary Ward, 동정성모회의 창설자 — 역주)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에도 만족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작은 것, 인간적인 것, 유한한 것, 현재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음은 이미 거의 절박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대단하며, 누군가의 숨을 막히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훌륭한 성인들의 경우에 이것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위대한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첸더베리의 안셀무스) 하느님 계시를 자그마한 이슬방울 안에서, 자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보십시오. 다름아닌 “풍요롭고 가득히 쌓아 넘치도록 주시는”(루가 6,38) 위대한 신 하느님을 관상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그 자체로 넓고 위대하게 되도록 열어제친다. 웅장한 산맥, 광활한 풍경이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호흡을 크게 하고, 가슴을 넓게 만드는 것처럼

럼, 인간이 모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시며,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보다 '무한정으로 훨씬 더 많이' 주시는(에페 3,20 참조)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그만큼 폭이 넓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편협한 마음과 하느님의 관대함을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묘사하신다. 종이 천문학적 숫자인 고액의 빚을 탕감받는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터무니없는 소액 때문에 동료 종을 박해한다(마태 18, 23-35 참조).

영신수련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명상(Ruf-Christi-Betrachtung)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전히' 투신하는 그분과 함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직하도록'(영신수련 93) 초대를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나시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고 어지신 임금님'의 '당부어린 부르심'(영신수련 94)에 대해 오로지 한 가지 대답만 있다. 이 대답은 '기사' 이나시오에게 바쳐진 한 기도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여,

저에게 참다운 관대함을 가르쳐주소서.

님께서 그것을 얻으신 것처럼 나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쳐주소서.

셈없이 주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휴식을 찾지 않고 일하도록 가르쳐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 외에

그 어떠한 보상도 기대함없이 자신을 투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소서.”

영신수련

‘이나시오’, ‘영신수련’이란 말은 함께 불러야만 하는 두 개의 단어이다. 물론 이나시오가 영신수련, 즉 영적 훈련의 ‘창시자’였다는 것은 아니다. 영적 훈련은 종교와 신앙인의 역사 속에 항상 있어왔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을 통해 영적 훈련이 새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갖게 해주었다. 영신수련의 효과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활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말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표현의 과장 여부를 떠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을 자신과 교회의 가장 값진 선물로 여겼으며, 가장 중요한 사도직 도구로써 영신수련을 자신의 수도 공동체에게 전수하였다. 그는 1548년 영신수련이 교회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드렸다. 당시 선발된 영신수련 지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인쇄되었던 500부는 그후 1,400판 이상 출판된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수이다. 그 중 일부는 여러 차례 재판 발행되었다.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이나시오는 이것을 영신수련 첫번째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영신수련이라 함은 양심을 살피는 방법이나 묵상, 관찰, 염경, 묵도 등의 방식, 그리고 다음에 말할 다른 영성적 행동들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나, 걷기, 뛰기 따위의 모든 것을 체육 또는 신체의 단련이라 함과 같이, 영성면에 있어서도 모든 사욕편정을 깨끗이 없애고 구령(救靈)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

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 한다”(영신수련 1).

영신수련은 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갈망, 즉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때 이나시오는 한 인간의 삶 자체가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하소연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된다면 그의 삶은 궁극적인 의미로 '성공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무슨 일이 영신수련 중에 행하여지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누군가가 30일간(혹은 단 일주일 간이나 며칠간) 침묵하면서 하루종일 기도하고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영신수련 지도자와의 대화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 여정을 위한 지도를 받는 것이다.

성서적인 면에서 표현하자면, 누군가가 기도와 관상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초대를 받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4주간'은 복음의 길과 상응한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약속에 관점을 둔다. 영신수련의 제1주간은 복음적 회심에로의 부르심(Umkehrruf)에 상응한다. 제2주간에서는 마음의 부르심에로 초대한다. 제3주간에서 영신수련자는 십자가의 길을 밟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제4주간에서는 부활하신 그분과의 만남에로 초대를 받는다. 영신수련 중에 성서적인 기본 주제를 숙고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실존적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밟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영신수련의 '4주간'은 날짜 표시가 아니고,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영신수련 중에 일어난 사건은 다섯 가지 결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호의'에 '예'라고 대답하는 초대이기도 하다.

창조적인 사랑에 대한 긍정,

구원적 사랑에 대한 긍정,

부르심과 파견의 사랑에 대한 긍정,

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랑의 삶에 대한 긍정,

승리를 거두고, 부활하고, 완성하는 사랑에 대한 긍정.

(디도 3,4 참조)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긍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삶 속에서 자유로워짐을 깨달은 사람이며, 자신이 약하고 가난해도 종음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이 불리움받고, 자신의 삶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암흑 속에서도 의미를,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부활로써 증명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영성적 모형들을 영신수련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어느 경우에 진정한 이나시오 영신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영신수련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즉 영신수련의 가장 심오한 목적이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인도해 갈 때.
- 영신수련이 훈련을 지향하는, 즉 주제에 대하여 숙고할 뿐만 아니라 내적 체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 영신수련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즉 영신수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로마 5,5) 하느님의 육화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삶과 소명과 파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시도록 할 때.

- 영신수련이 과정을 밟고 있는, 즉 개개인의 그때 그때의 고유한 실존의 길을 고려할 때.
 - 영신수련이 전체적인 즉 통합적 인간으로서 육체와 영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온 힘'과 삶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신수련을 하고자 마음먹을 때.
- 이런 영성이 손색없는 '이나시오' 영신수련이다.

단순히 읽기만 한다면 영신수련 책은 지루하고 도식적인 인상을 준다. 영신수련은 때에 따라서 요리책에 적절히 비유되어 왔다. 사람들은 조리법으로 배부르게 되지 않고 요리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신수련을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신수련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이나시오 자신이 '영신수련의 음식'을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평가했는지는 그가 자신의 옛 고해신부에게 쓴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나시오는 이 편지에서 옛 고해신부에게 영신수련을 하도록 간곡히 초대한다. 왜냐하면 피정자들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데에 이것은 내가 현세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영신수련을 하는 것인가.

한 젊은이가 질문을 하러 어느 랍비에게 왔다.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하였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도록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그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나의 모든 기도와 선행, 그리고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젊은이가 물었다.

랍비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그런 행동들은 날이 밝아올 때 당신이 깨어나도록 당신을 도와줍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마리아가 하느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신수련을 그 것으로 허락하시오. * 당신이 원하, 그러면 내게 이같이 하시게

훈 련

이나시오 자서전을 보면 첫장부터 '훈련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는 '군사 병기 훈련에서 즐거움' (자서전 1)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병기는 훈련하기에 분명 가장 비정서적인 도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운동처럼 군사 병기 운동 역시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만 무엇을 성취한다. 훈련은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것은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며, 언어를 배우고, 칼과 포크를 가지고 먹는 것으로부터 상대방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 훈련은 설사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삶의 한 부분이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병기 훈련 때문이 아니라 영적 훈련인 영신수련 때문에 교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훈련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우선 훈련은 직무 기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나시오에게 오로지 훈련을 위한 훈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훈련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삶 안에서 점점 더 활

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열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영신수련 1 참조). 이렇게 훈련은 의미없는 단순한 반복도 헛수고가 아닌, 방향을 갖고 있다.

둘째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인간은 성장하는 도상에 있으며,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 그 안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있겠으나 또한 만족스러운 것도 있다. 우리는 완전할 필요도 없으며, 시작과 동시에 종착점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일생 내내 성장하는 사람이며, 성장하는 사람으로 머문다. 어른으로 있음이 궁극적 상태는 아니다. “만약 너희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마태 18,3).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준비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배우는 자로 머물면서 쉽게 언제나 새로운 삶의 과정들과 가능성들을 훈련하라는 요청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하였던 어느 산책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산책을 하다 좀 떨어진 데서 나는 소음을 듣고 그쪽을 쳐다보았다. 세 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우리는 처음 울음소리에 서둘러서 곧바로 어린이가 쓰러졌던 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어린이는 이미 자기의 세발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는 다시금 발버둥치면서 떠나 50미터 정도 떨어져 어깨너머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었다. “저는 아직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인상적인 말이다. 몸쓸 자전거, 혹은 길 위에 놓인 돌에게 닳을 돌리지 않는 정확한 통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어린이답게 단순히 표현된 이 이야기는 격언으로서

보다 철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연습하는 것은 희망의 행위이다!’ 연습하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다. 훈련하는 사람은, 인간은 시간적 존재로서 시간을 갖고,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훈련하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들이 드러난다. 인간이 순례자(homo viator)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인간은 훈련하는 자(homo exercens)로도 특징지워질 수 있다. ‘결핍존재’(Mängelwesen)인 인간은 ‘훈련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훈련은 기술적이며 부수적인 수행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에도 관련이 된다. 이나시오에게 있어서 훈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에릭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보듯이 훈련은 본질적인 과정들에 이를 수 있고, 또 이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책의 기본 주제는 사랑하는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를 사랑하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가 자주 실패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첫째로 중요시하는 것은 삶이 하나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역시 하나의 기술이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면 어떤 다른 기술, 예를 들어 음악, 회화, 가구업, 의술 혹은 공학 기술을 배우기를 원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됨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숙련된 기술이 되려면 끊임없는 주의, 인내, 단련이 필요하며 궁핍한 자기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즉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에 관한 책들은 영감, 통찰, 지식을 줄 수 있지만 다음이 중요하다. “이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훈련뿐이다”(O.E. 볼라우).

물론 훈련이 단순한 기술로서 ‘사랑의 기교’, 의사소통 기술로 변질되어 마침내 비인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호

의', '영감'(Inspiration)과 '발산'(Transpiration)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이 통합된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어 '훈련하다'(üben)라는 단어의 어원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연습하다'라는 'üben'은 'uoben'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본래 '돌보다(pflegen), 경작하다(bebauen), 존경하다(verehren)'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농부의 행동에서 그 개인의 행동과 자연의 선물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관계가 직접적으로 포착된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레질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고 난 뒤에는 그는 다만 씨의 성장력과 바람, 해 그리고 비에 의지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항상 하느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면 사람이 잠을 자거나 깨어있거나 씨는 자라난다"(마르 4,26-29 참조). 이런 관점은 이냐시오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하느님한테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께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노력하여야 한다." 이냐시오가 의도한 훈련이란 하느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신비스럽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훈련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고 굳게 확신한다. 이 지속적인 연습은 언어상으로 — "훈련으로서의 일상생활"(칼 프리드 듀르크하임 백작) — "직무를 수행한다"는 언어 표현으로 명확해진다. 여하간 언어상의 관점에서 훈련은 '훈련 목적'으로 가는 유일하고도 반복적인 고정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무엇을 실행하고 행동하고 일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단지 체조를 하는 사람만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도 근육을 단련시킨다.

이냐시오는 매일 하도록 권장한 양심성찰 시간에 이 훈련을 확인하고 있다. 양심성찰 때 이냐시오는 질문을 던진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바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이냐시오는 자신의 경청함과,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신의 느낌의 세계를 감지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들을 하느님의 영으로 정리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때 그는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음"(로마 5,5)을 스스로가 자각하도록 한다. 그럴 때에 그는 모든 것에서, 모든 행위에서 그리고 모든 훈련에서 그분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기 도

이냐시오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immerwährenden Gebet)로 점철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기도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과 더불어 하느님에 의해 매료되어 있음이요,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라." '순례자의 보고'에서 그는 "하느님과 통교하는 용이함이... 지금 내 전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매순간 언제나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자서전 99).

이냐시오적 기도의 특징은 긴 기도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적으로 하느님과 접촉을 시도하는 데에 있다. 기도가 하느님과 통교하는 최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루 24시간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매순간의 기도는 당연히 너무 짧은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냐시오는 언젠가 쓴 적이 있다.

한 동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나시오는 높은 수준에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영이 예수회의 아들들에게서도 발견되기를 바랐다. 즉 그들이 모든 작업과 모든 사랑의 훈련 때에도 우리가 사랑과 봉사하고픈 열정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고자 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나시오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경외심은 특별한 방법으로서 ‘하느님 현존 안에서의 자신의 변화’의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늙은 이나시오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오 주님, 제게 겸손과 당신을 향한 경외심과 완전한 사랑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화살기도(Stoßgebete)나 때로는 탄식기도(Stoßseufzer)를 통하여 이나시오는 하느님과의 항구한 결합을 항상 드러냈다.

기도 생활을 위한 값진 지침들은 특히 영신수련 책자 안에 담겨 있다.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몰두하고 침묵하는 분위기이다. 침묵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것을 열심히 찾기 위하여 단 한 가지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영신수련 20).

이나시오는 잠들기 직전에 그 다음날 기도 시간에 관계된 성서구절이나 그 비슷한 것을 내적으로 준비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 준비기도에 속한다. 이렇게 이나시오는 성서구절이 담고 있는 그 사건을 촉진시킨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음은 깨어있습니다”(아가 5,2).

약간 이리저리 걷는 것, 시선을 멀리하거나 위로 향하는 것 등은 기도 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나시오는 조언을 한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거나 불필요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치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의 두 가지 체험들이 잘 설명해 준다. “기도 전에 창문을 열고 잠시 자유롭게 밖을 바라본 후에 나의 기도는 달라졌다.”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나시오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항상 일정한 준비기도(gleichbleibendes Vorberitungsgebet)를 바치라고 권한다. 그의 제안은 — 이나시오의 고유한 기도에 대한 — 이렇다. “나의 모든 의향, 행동, 노력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그에게 봉사함을 위해서만 마련되도록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은총을 구한다”(영신수련 46).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나시오 삶의 근원적인 갈망을 대변하는 짧은 기도 형식이다.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갈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근본이 되는 이러한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자신을 개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준비기도에 ‘특별 청원’(besondere Bitte)이 이어진다. “내가 열망하고 고대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간청하여 얻는 것이다. 청원은 묵상 제목과 맞아야 한다”(영신수련 48). 이 청원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내면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과 대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는 질문을 하신다.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라 일컬은 믿음이 그곳에 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이미 그곳에 주어져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청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

니다”(마르 11,24).

자각(Besinnung), 숙고(Erwägung), 묵상(Betrachtung)이 이나시오에게 있어서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정신과 영혼과 육신으로 기도하면서 존재하고, 믿음의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나아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삶의 구원 역사와 비구원 역사, 즉 삶의 복음을 주제적으로 다루는 삶에 대한 묵상(Lebensbetrachtungen) 중에 있을 수 있다. 하느님, 그리스도와와의 이 만남은 성서 묵상(Schriftmeditation) 중에서도 선사받을 수 있다. 성서 묵상에서 이나시오는 장면을 내적으로 상상하고 동시에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 활동하면서 그 장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중요시한다.

기도 끝에 자주 이나시오는 이른바 담화(Zwiegespräch)를 하는 버릇이 있다. 담화에서 사람들은 주님 그리고 성모님과 내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담화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혹은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영신 수련 54).

마무리로 이나시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 인도된 길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항상 기도 시간 전체를 되돌아보게 한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드러날 수 있으며, 중단없는 기도 여정을 밟을 수 있다.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 즉 같은 성서 구절을 두 세 번씩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음의 ‘바위’에 구멍을 내듯 그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저녁 묵상 방법으로 이나시오는 감각의 사용(Anwendung der Sinne)을 권한다.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믿음의 실제들과 ‘감

각적인’ 접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나시오의 표현대로 당신의 본질과 능력과 현존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보고, 느끼는 데서 현존하실 수 있다.

이나시오의 기도 방법에는 호흡기도(Atemgebet)도 있다. 이것은 ‘천천히’ 기도하면서 호흡의 리듬과 기도문의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신체의 기도(Gebet des Leibes), 즉 자세와 몸짓은 인간적인 것이며 통합적인 것이다. 이나시오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등등. 이것은 이나시오가 자신의 기도 방법에서 개개인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나시오는 기도를 직무로 받아들인다. 기도는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감지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기의 고유한 삶이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되도록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때에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이 따른다. 이나시오가 ‘금욕’ 즉 이기적인 자아(Egoismus-Ich)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독특하다. 자아로부터 자유로운(ichfreier) 사람은 — 자아를 잃어버린(ichloser) 사람과는 다르다 — 불과 15분 동안에도 자아에 갇힌(ichfixierter) 사람이 두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풍요롭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느님의 뜻에 자유롭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기도 중에 사명을 받는다.

매일의 양심성찰 즉 ‘사랑이 결들인 관심의 기도’(Gebet der liebenden Aufmerksamkeit)로써 성령의 움직임에 대한 마음가짐이 항상 새롭게 생긴다. 여기에서 기도드리는 사람은 믿음, 희망, 사랑의 근본적이며 매력적인 능력에 감동된다.

모든 기도는 이나시오에게 준비, 즉 ‘정리정돈’(Disponierung)일

뿐이다. 기도는 강제적으로나 마술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도는 진심어린 갈망에서 생겨난 자유로운 초대 의 몸짓이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언제 기도의 구체적인 몸짓에 응답을 하시지는, 항상 그리고 이미 인간의 청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그분께 달려있다.

영신수련에서 기도로 피정자들과 동행하는 지도자는 커다란 경외심, 중용, 자제력으로 이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피정자들을 이끄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은 없다고 이냐시오는 말한다. 하느님의 영은 직접 사람들 안에서 기도를 하시며, 그들에게 순수하고도 진실한 각자의 기도 여정을 밝혀주신다. 이 경우 여러 면에서 '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이냐시오의 영적 일기에서 암시적으로 발견되듯 이러한 단순함과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신비주의적인 기도에서 드러난다. 이냐시오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삶, 그 움직임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더듬거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가. 누가 그의 눈물의 복음을 이해하는가. 누가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에페 3,20) 더 많은 것을 선사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로마 8,26)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하느님의 영을 이해하는가?

마음의 준비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교황들은 신학자들과 어려움이 있곤 했다. 그러한 교황 중에 한 분인 바오로 5세는 마침내 서로 논쟁을 하던 도미니코회와 예수회의 신학자들에게 말하고 쓰는 것을 금지

시켜야만 했었다. 인간의 자유와 하느님의 전능하신 역사(役事)하심이 어떻게 상호 병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논쟁을 하던 사상가들은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경험적 의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다. '경쟁'(Konkurrenz, 라틴어인 concurrere에서 유래한다)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함께 달리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 자유행동 범위의 의미에서 오로지 승자와 패자가 있는 싸움만이 문제된다 — 나의 자유이거나 혹은 너의 자유.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의 문학 형태들 가운데서 한 형태는 이 모형을 신(神)에게 적용시킨다. "자유롭고 전능한 하느님이 있거나 내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고, 나는 자유롭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이와는 반대되는 경험도 있다. 인간의 자유는 다른 사람, 정말로 자유로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확장된다. 이른바 은총 논쟁에서 '예수회 학파'(Jesuitenpartei)의 후기 계승자인 칼 라너(Karl Rahner)는 이를 화해의 형식으로 이끈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더욱더 자유롭다. 인간이 그의 자유로운 존재를 더 창조적으로 살릴수록 인간은 모든 자유를 창조하신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그분이 더 많이 역사하시도록 한다.

그러면 이냐시오는 이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는 영신수련에서 '정리정돈하다'(sich disponieren), 즉 준비하다(sich vorbereiten, bereit machen)라는 단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는 동시에 은총신학의 발단이며, 기도와 모든 영적 훈련을 위한 영성적인 기본 태도이다. 이것은 준비하다는 단어가 뜻하는 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의 준비와 선사된 총만 사이

의 긴장감 안에 자유로이 함께 작용하는 신비가 숨어있다. 몇몇 예들이 이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나는 초대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집안을 깨끗이 할 수 있으며, 음식을 차리고 마당의 등을 켤 수 있다. 이제 초대에 응해오는 일은 초대받은 사람의 일이다. 나는 대화를 준비할 수 있고, 대화에 동조할 수 있으며, 또한 마주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의 성공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성취되거나 미리 계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케오는 말하자면 '영적 훈련'으로써 나무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고, '오셔야만 하는 것'은 다시금 매우 개방된 별개의 사건이다.

준비하다, 정리정돈하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몸짓의 도움으로 갈망과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스스로 만남을 준비하는 자는 자신이 조작, 지배, 강요, 유혹을 포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단지 초대할 뿐이며, 자신의 갈망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무질서한 경향들을 멀리 한 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정리(disposición)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도록 영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채비(disponer)를 갖추는 모든 방법을 영적 훈련이라 한다" (영신수련 1).

모든 준비도 하느님 영의 능력 안에서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재능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전은사(Vor-Gabe)에서 왔다는 신비의 일부이다. 하느님께서 손수 인간이 그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인간을 준비시킨다(영신수련 15 참조).

정리정돈은 영적 훈련
의 일부이다

기초와 목적

하느님

나는 신학생 시절, 한번은 매우 절박하여 얼마만큼이나 내 안에서 단순한 믿음을 희망하고 있음을 느꼈었는지 기억이 난다. 이 믿음은 매우 단순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나는 병석에서도 호흡에 맞추어 그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교의학 시험은 혹시 천 마디 말만으로도 통과될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죽음은 단숨에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매우 분명하게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리고, 후에 이러한 소망이 성 이냐시오의 임종 이야기와 일치되었을 때 나는 몹시 감동하였다. 이냐시오 성인이 임종하던 마지막 날 밤, 그의 간호를 맡았던 톰마소 수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냐시오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직였고, 때때로 몇 마디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밤이 되자 그는 더욱 조용해졌고, 끊임없이 "오, 하느님!"만을 반복하였다.

이것이였다. 이것이 동료들이 이냐시오에게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다. 혹시 그가 그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기쁨, 경악과 경탄, 그리고 헌신과 환호가

이 “오”라는 한마디에 숨겨져 있으며, 표현될 수 있는가! “오, 하느님!” 하느님은 커다란 “오”였으며, 이나시오의 인생에서 큰 숨이었다.

구약성서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마치 이나시오와 특별히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부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누구였는가?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영신수련에 적혀있는 것처럼 “창조주로서 당신께 봉헌하는 영혼에게 손수 자신을 나누어주시며, 그를 당신 ^①의 사랑과 찬미에로 불타오르도록 하시는”(영신수련 15) 하느님 이시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그가 언젠가 기도하고 감사드리면서 탄식한 자비의 하느님이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얼마나 한없이 좋으신지! 당신은 저같이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까지도 받아 주십니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자살의 유혹에 빠질 만큼 절망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이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이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사랑과 겸손과 인내”(자서전 14)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을 하셨던”(자서전 27) 하느님이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언제나 더욱더 크신 하느님”(Deus semper maior)이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평상시에 그토록 근엄한 이나시오를 꽃 세 송이나 비둘기 세 마리를 바라보고도 황홀경에 빠지게 할 수 있

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시다.

-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당신을 일과 기도, 미사와 정치 중에, ‘모든 것 안에서 찾고 발견’케 하는 하느님이시다.

아마도 이나시오는 자신의 인생밭에서 한없이 값진 이 진주를 그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바라보고 느끼려는 생각에 끊임없이 울었을 것이다. 우는 것이 심해 그의 시력을 염려한 의사가 그의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지시했을 정도였다.

1556년 7월 31일 밤, 죽음은 더 이상 이나시오가 붙잡거나 벗어 버릴 필요가 있었던 생각이 아니었다. 그 무렵 죽음의 사자(der Bruder Tod)는 아주 가까이 있었고, 겸손하고 놀라운 하느님의 사람인 로올라의 이나시오를 그의 생명의 하느님 안으로 이끌어 영면(永眠)케 하였다. “오, 하느님!”

감 사(I)

“배은(背恩)은 세상의 상습(常習)”이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친절한 몸짓이 등한시되고, ‘감사하다’는 말이 선물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다년간의 봉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나시오에게 배은은 ‘세상의 상습’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시몬 로드리게스에게 쓴 1542년 3월 18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로우심 앞에서 생각을 가다듬는다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배은은 우리의 창조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은망덕은 선사받은 자비와 은총과 선물에 대한 부인(否認)이며, 모든 죄악의 원인이자, 시작이며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나시오는 어떻게 배은을 모든 악의 원천으로 보게 되었는가? 이는 삶이 마음속 깊은 사랑이라는 신비적 체험에 바탕을 둔 신앙 체험에 근거한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음이다. 이나시오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랑은 서로 나누는 데 있으니, 즉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주거나 나누는 것이며, 그 보답으로서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사람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영신수련 231).

하느님 그분의 삶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끊임없는 자기 증여요, 자기 수취인 삼위일체적 사랑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은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배은은 사랑과 선사의 용솟음에 대한 봉쇄이다.

인간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세 종류의 '감사함을 없애는 요인'(Dankbarkeitstörer)이 있다.

① 첫번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교만이다. 이 교만은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하고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덕택으로 돌릴 때 오로지 '나' 만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② 두번째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명성이다. 전

강, 성공한 사업, 직무, 청명한 날씨 등이 선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모든 것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만 선사될 수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청구하는 잘못된 권리에 대한 생각이다. ③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한나 그린의 소설 『나는 당신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다』에서 심리적으로 심한 병을 앓고 있는 한 부인이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망상의 세계를 묘사한다. 그녀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있었다라면 고립된 지옥으로 묘사된 영혼의 감옥 세계는 마치도 '열려라, 참깨!'라는 신비스러운 말처럼 일순간에 부수어져 열리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것은 연대성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온전히 우리와 우리의 세계, 그리고 우리 재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적으로 모든 것이 낯설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노 구아르디니가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장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사람들의 삶 안에서 드물지 않게 위협받고 있고, 또한 산산이 부수어져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거부당하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 스스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감동받게 될 때 그들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려 하거나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나시오가 감사를 모든 선(善)의 원천으로 통찰한 연유를 이해할 것이다.

감 사(II)

나는 어머니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식사 시간에 우리에게 “자, 맛이 어떤지 말해보지 않으렴!” 하고 요구하셨던 일이 기억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께 분명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맛이 없다면 분명히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곧 어머니께서는 이 사과 비슷한 주의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셨다. 그러나 나는 후에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사’ 하면서 지나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사가 이해하기 쉬운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어린이들에게 하는, 올바르게도 가끔은 교육적으로도 납득이 가는 권유 속에서 드러난다. “예쁜 인형을 주신 고모께 지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설사 이 가엾은 아이가 선물로 받은 인형이 이미 받은 인형과 똑같은 세번째의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나시오는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데에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라고 권고한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영신수련 43).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어린 관심으로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는 일을 갈수록 더 많이 배우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베네딕도회 수사인 다비드 슈타인들라스트는 그의 저서 『마음의 주의』(Die Achtsamkeit des Herzens)에서 자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낮과 밤은 우리에게 매순간 셈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선사한다. 우리는 오로지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감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획적인 훈련으로서의 절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년 전부터 나는 수첩에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 한 가지씩 적고 있다. 매일 감사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혹시 누가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자주 그럴 만한 몇 가지의 이유가 생각난다. 이런 준비를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늙어야만 되는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 가득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인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감사 이유를 발견한다. 우연히 눈에 띄인 달력의 격언, 햇살에 영롱한 이슬 방울, 차가운 손에 들린 따스한 커피 한잔, 텔레비전의 고장으로 갖게 된 대화, 이룩해 놓은 사업 성과, 귀가 도중 공원 의자에 앉아서 혹은 교회에서 몇 분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크고 작은 일, 일상과 그리고 놀랄 만한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감사는 매우 심오한 관계를 선사한다. 이것은 성서의 열 명의 나환자 치유 사화에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루가 17,12-19). 병을 고친 사람 중 단지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사람 —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 은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선사받는다.

가장 심원한 곳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나시오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서 명백해진다(영신수련 230-237 참조).

조).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은혜로우심과 창조의 배푸심,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인생 여정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이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푸심이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안배하심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고자 하신”(영신수련 234) 표현임을 생각하라고 권고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으로, 너에게 열려있는 사람(der Du-offene Mensch)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만남을 위한 수단, 상징, 표현, 성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진정 감사 그 자체는 마치 미사경문의 감사송처럼 그가 감사하는 바로 그 선물이 된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찬미가 필요없사오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함은 당신 은총의 한 선물입니다.”

이냐시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사부께서 지니셨던 많은 덕 가운데 남달리 특출했던 덕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시다.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경외심

만약 사람들이 편지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지극히 존경하올”이라는 인사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현대 사람들은 분명 경외로운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인사말은 단지 모든 수취인에게 사용되는 일종의 친절을 표방한 미사여구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경외심은 하느님과 인간을 대하는 기본 자세이다. 경외심은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인간적 삶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위한 ‘원

리와 기초’이다. “사람은 우리 님, 천주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영신수련 23).

경외심의 자세는 이냐시오의 ‘영적 일기’에 60회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여러 편지에서도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혹은 “더 큰 봉사와 더 큰 경외심으로”라는 표현들이 발견된다. 이런 점에서 이냐시오 연구자인 후고 라너가 ‘경외심의 신비주의’(Ehrfurchts-Mystik)를 다른 신비주의자의 ‘혼인예적 신비주의’(Brautmystik,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혼인에 비유한 신비 — 역주)와 구별하려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이냐시오는 “그 때문에 하느님 존엄에의 봉사가 한결같이 훌륭하다면 환상이나 눈물보다는 경외심과 겸손함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였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였다.

경외심은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하느님 체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반응이다. 모세가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사막의 단순한 모래땅을 거룩한 땅으로 체험하여 신발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감춘 것처럼, 이냐시오 역시 하느님 현존의 가장 심원한 부분까지 접하고서 깊이 감동을 받았다. 이냐시오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더 알맞은 대로 눕거나 무릎을 꿇으라고 권하였다면 그것은 물론 육체가 자연적으로 그에 상응한 표현을 찾는다는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인간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작품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느님 “전율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신비”(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 루돌프 오토), 모든 현실 안에 내재한 매혹적이면서도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신비 앞에 인간이 어떻게 달리 처신할 수 있겠는가?

자연철학자이며 우주 애호가인 예수회 신부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숭고한 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경건의 형태와는 친해질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를 동료나 친구로서 숭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에게 반감을 일으킨다.”

모두가 단지 친구로서 어깨를 툭툭 치는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런 관계 속에서 단순하고 겸손한 동료애가 표현될 수도 있겠다. 현세적이며 세속화된 세상에서 ‘동포 애적 그리스도교 정신’ (Christentum der Mitmenschlichkeit)의 훌륭한 대변자인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는 존경과 경외심이라는 감동적인 말로써 인간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진정한 거리감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각자가 투쟁할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 가치의 무질서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일체의 인간적인 현격(懸隔)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뻔뻔스러움은 ... 천민들의 특징이다. 한동안 인간 평등을 증언하는 일이 그리스도교의 과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인간 상호의 현격과 그 특성을 존중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아니 말해야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주는 거리감을 갖고 서로가 대하면 대할수록 사실 그들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도 맞는 말이다.

우리 시대가 인간과 인간적 삶을 경시하는 경향이 매우 짙은 그만큼 인간의 품위와 인권 존중을 위한 투쟁도 매우 활발하다. 유럽에서 커다란 변혁이 있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의 대폭발이기도 하다. 자유, 일치 그리고 인권 존중에 대한 갈망,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연에 대한 점증적인 주위도 모든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에 환원될 수가 있다. 존경과 경외심으로.

개신교 신학자이며 람바레네의 ‘원시림 의사’ 알버트 슈바이처는 각기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를, 나아가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를 언젠가 ‘생명에의 외경’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공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는 희망적이면서도 다른 한편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인간 내면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경시는 존경과 경외심에 아주 반대되는 것이다. 참으로 편협하고 초라하며, 야비하고 비겁하며, 허약하고 불성실하며, 이기적인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고귀하고 선하며 아름답다는 말은 때때로 참으로 공허하게 울려온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자아 인식과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자각하였다. 아마도 그는 이런 경시에의 유혹을 깊이 통찰하고, 그 때문에 ‘사랑이 담긴 경외심’이라는 은총의 선물에 대해 그렇게 감사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랑이 담긴 경외심은 그에게 선물이며, 은총이었다. 그는 “사랑도 경외심도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영적일기 209)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선사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은 이나시오에게 인간에 대한 경외심도 가져다주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루종일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 또한 그것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조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영적일기 209). 이것은 사실이었다. 이나시오의 마음은 자주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경외의 기쁨으로 가득차서 거의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의 삶의 신비가 항상 하느님의 신비 안에 깃들여 있음을 보았다. 이나시오가 경외심의 은총을 “내 영혼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지금까



지의 그 어느 은총의 선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영적일기 203) 이를 그의 영적 일기에서 언급함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

“나는 자랑할 만한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게 보였으며, 나는 그 길로 영원히 나아가야만 한다고 여겼다”(영적일기 205).

영광(영예)

스페인의 궁신(宮臣)이며 장교인 이나시오 로올라는 영예에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신의 영예만을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영예에 대한 터무니없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다고 자서전의 서두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하느님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는 인간의 판단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졌고 — 그가 영신수련 책자에 적은 대로 —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비방과 중상’을 감수할 준비가 점점 더 잘 되었다. 그의 삶의 좌우명과 수도 공동체의 영적 표어가 다음 문장에 적절하게 요약되어 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Omnia ad maiorem Dei gloriam).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다음의 것보다 더 ‘이나시오적’인 성가(聖歌)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영광을 위하여 나의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일할 때나 쉴 때나!

내가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더하기 위함일세”(독일 성가 615).

노랫말 ‘영광’은 성가를 보면 매우 큰소리로 울려 퍼지는 가락과는 반대로 오히려 무엇인가 조심스러운 음조로 되어 있다. ‘영광’은 일반적인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경애하을 신사숙녀’라는 미사여구의 인사말처럼 생각될 수 있다. ‘영광’은 자만심으로 부푼 가슴에 주렁주렁 훈장을 단 신분 높은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할 수 있다. 결국 ‘영광’ (Ehre)의 개념에는 ‘공명심’ (Ehrgeiz), ‘명예욕’ (Ehrsucht) 그리고 높고 낮음으로 평가절하된 구별이 함께 자리할 수 있다.

‘목수의 아들’ 나자렛 예수 역시 자신을 즐겨 드러내 놓거나, 만찬에 초대받아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진정 ‘영예’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내 자신의 경우 ‘영광을 드린다’라는 뜻이 누구를 훌륭하게 보고, 이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때 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훌륭함과 공공연성을 아는 사람만이 존경할 수 있다.

“That's great!”나 혹은 간단하게 “great”는 미국의 일상 용어에 언제나 나오는 말이다. “훌륭해, 그것 참 훌륭하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것을 훌륭한 것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것이다. 누군가가 보잘것없는 것에서 훌륭함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훌륭한 일이다. 어린아이나 꽃 한 송이가 보여주는 기적, 그리고 가장 작은 세포도 온 세상만큼이나 위대한 것이다! 훌륭함을 알고, 이에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인간의 마음이 위대하지 않은가! ‘영광을 드린다’는 뜻은 소중함과 가치와

훌륭함을 아는 것이며, 이것을 '공공연하게 만들고' 공표한다는 것이다. 존경은 오로지 타인, 공동체, 그리고 인간과 삶의 '개방적 특성'에 대한 감각이 서려있는 곳에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부분적으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 조소와 풍자만을 더할 뿐인 그 공개성 때문에 로마 백인대장이 십자가 밑에서 한 이 말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갈수록 더 개인주의화되는 시대에서 '존경'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명예훼손', '증상모략', '비방', '불인정', '경시'가 뜻하는 바는 누구나 알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인정, 칭찬, 존경, 그리고 인간의 품위를 보존함에 힘입어 살고 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존경을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넓어진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가치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질투심으로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그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커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광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데에 기인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리옹의 이레네오 주교(† 202년)는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라고 권유하신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마태 5,16).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되게 살도록, 또 그렇게 하느님께 위대함을 돌리고, 그분을 흠송하도록 권유함이다.

질서

'질서'(Ordnung)는 정서적인 것과 매우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이다.

즉, 이 개념은 인간의 감정 안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킨다. 대다수의 정당들은 그들의 강령 노선을 '법과 질서'에 두고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바로 이때 어떤 이들은 '오싹한 전율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엄격한 규율로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주는' 일은 부모들에게는 종종 싸움을 방불케 한다. 그들이 다 자란 아이들이라면 아마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격언으로 부모들께 저항할 것이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찾기를 너무 게을리 한다."

사람들이 질서의 가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나시오에게 있어서 '질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영신수련 첫째 일러두기에서 벌써 이나시오는 "무질서한 경향(사욕편정)"으로부터의 자유와 "자기 생활의 질서"에 관하여 얘기한다(영신수련 1 참조). 영신수련의 목적은 "사람이 아무런 사욕편정에도 좌우됨이 없이 자기를 이기고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함"(영신수련 21)이다.

질서에 관한 이중적 의미와 성공적인 질서의 의미를 가르치는 금언이 있다. "질서는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금언은 질서 그 자체는 생명도 아니고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드러난다.

-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2고린 3,6).

- 해골도, 시체도 정리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결정적인 생명이 빠져 있다.

질서 21min
focus

- 관계 안에,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이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의범절들이 여기서 엄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찰찰함, 바로 죽음이 숨어있을 수 있다.
- 또한 죽음의 질서가 있을 수 있다. 전쟁의 학살 도구, 민족과 인종적 학살이 '주목을 받으며' 자행될 수 있다. 법률은 반생명적이고 반자유적일 수 있으며, 합법의 이름 아래 인간성을 억압할 수 있다.

역으로도 적용된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질서,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현미경으로 수정이나 단세포를 관찰해 보면 이런 면들이 매우 인상 깊게 드러난다. 생물학자는 모두가 생명체가 그것으로써 스스로 생존 구조를 만들어내는 '논리' 즉 목적지향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는다. 나비 날개의 무늬, 인간의 육체 형태, 사회적 공동생활의 질서, 우주와 원자의 자연 법칙들은 편견없는 순박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신비에 대해 경탄을 자아내도록 한다.

상호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질서는 일치나 조화, 평화로서 인식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평화는 질서에서 솟아나오는 안식이다. 세상이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이 알아채는 그런 값진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악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의 하나는 무질서이다. 바오로는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1고린 14,33). 우리는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생명체의 순환과 질서가 위

협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무질서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무질서'가 '악'으로 이해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언어적으로 이것은 '악'이 악마(Diabolos)로, 즉 글자의 뜻대로라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로 표현되는 가운데 드러난다.

악의 세력은 질서라는 마법의 외투를 입고 자신을 숨긴 채 활동을 할 수 있다. 완벽주의나 세심증이 끔찍스러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나시오는 이 파괴적인 영혼의 힘 때문에 자살의 충동에 빠지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나시오가 영신수련으로써 사람들이 "구령을 위하여 자기 생활을 질서잡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도록"(영신수련 1) 그분에 의해서 모든 '무질서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던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나시오가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가지 결정적인 강조점이 드러난다. 질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서는 목적 자체가 아닌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한 공간일 뿐이다.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에 대한 응답의 한 방법이다. 질서는 삶의 언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는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신"(시편 104,24) 하느님, 즉 생명의 벗(Freund des Lebens)에 대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응답이다.

불편심

Never say never

특히 정치에서는 '절대로 아니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할을 한다. 이것은 '탄력성있는 영성'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이나시오의 몸에 밴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나시오는 최소한 한 번은 '절코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만한 글 가운데에서 하였다.

“모든 것 안에서 영적 자유를 보존토록 하십시오. 조금도 인간적 고려로 결단하지 말고 내적으로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여 전혀 반대되는 일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적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의 자유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영적 편지 335).

이나시오가 불편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것은 항상 이 ‘영적 자유’, ‘정반대되는 것을 취하는 자유’, ‘영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편심’이나 ‘불편심주의’는 일반적인 관용어로 오히려 ‘무관심’을 뜻한다. 이에 반하여 이나시오는 불편심을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는 열정의 무력한 상실이나 가치에 대한 무감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불편심은 오로지 ‘모든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마태 8,19) — 타보르에도 골고타에도. 혹은 혼배성사 때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에게 성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만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녀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모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최고 목적으로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23).

불편심의 가르침을 ‘영성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착되며,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사랑으로 친구를 도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건강이나, 혹은 심한 경우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이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 즉 건강과 병, 부와 가난, 삶과 죽음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막스 프리쉬(Max Frisch)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불편심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 사랑의 경이로움은 이렇다. 사랑은 살아있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유동성 안에 우리를 머무르게 해준다. 사랑은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도록 준비시켜 준다.”

불편심은 ‘살아있는 존재의 유동성’이다. 그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 불편심은 자유로운 모든 내면의 균형이다. 이 균형은 춤을 추는 한 쌍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분명하지 않은 암시에 동의하여 자유로우면서도 놀이에 따라 서로가 자세와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돕는 균형이라 하겠다.

테이아르 드 샤르댕에 의해서 ‘태연한 투신’ 내지는 ‘투신하는 태연함’으로 번역된 불편심 역시 자유로움에서 오는 태도의 어떤 본질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태연함(Gelassenheit)이라는 말은 이나시오가 불편심을 ‘일상의 신비’로 여겼던 점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것은 요한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의 진술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에게 있어서 태연함은 인간이 ‘근원에 가있음’ 즉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심원

불편심: 영성의 상대성 이론

에 다가가서 있다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냐시오는 이 태연함 안에서 살았다. 이런 관점에서만이 이냐시오가 말하였던 바가 명확해진다. 그는 그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회가 해체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15분 동안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내적으로 다시 아주 고요해지고 태연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상의 신비'는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영과 마음의 자유로부터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것이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냐시오는 복음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권하지 않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언제나 일상의 기도 안에서, 만남에서, 영신수련에서 자기 삶의 현실이 진실되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 그분의 역사(役事)를 신뢰하는 일은 중요하다. 해방의 과정적 도상에서 근원적 진리의 하나는 인간이 자유스럽지 못한 노예이며, 그래서 그 해방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간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의 자유에 대한 마음의 안목은 이때 중요한 요소이다. 해방자 그리스도는 스스로 포로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예가 되셨습니다"(필립 2,7 참조). 그분과 결합되어 있는 자는 그분과 함께 자유롭게 되며, 또한 마치 이냐시오처럼 다시 얻은 자신의 자유를 그분께 봉헌할 수 있다. "받으소서, 오 주님, 나의 모든 자유를..."

이냐시오의 사랑으로 현실에 대한

해방과 화해

이냐시오의 사랑으로 현실에 대한

죄

"내게 필요한 것은 안락함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을 원하며 시재(詩才)와 실감나는 위험과 자유와 덕행을 원한다. 나는 죄를 원한다!" 알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어느 소설에서 '자연 보호지역'에서 우연히 빠져나와 '아름다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야인'(Wilde)이 이렇게 절규한다. 그곳에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빛나간 행동'이 존재하나 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진정한 사랑도 없다. 마약이 난무한 현장에 수년간 있었던 한 젊은 부인이 언젠가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이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긍정과 사랑을 찾았으나, 이것들은 그녀의 삶과 고통과 행동에 상응하는 그런 깜짝 놀람보다 더 깊은 곳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람을 경탄시킨다면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사람들에게 경악감을 준다.

죄란 무엇인가? 덴마크의 종교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에 대해 핵심을 찌르는 진술을 한다. "죄란 하느님 앞에서 절망하여 자기 자신하기를 원하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절망에 대한 이런 이중적 관점은 인간과 하느님

의 가장 내밀한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존재와 삶과 자유와 사랑의 능력을 선사하는 생명의 하느님이 아니고, 경쟁자로, 위협하는 분으로, 원수로 나타난다.

사랑받고 있지 못하며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 인간은 자기 인정과 자기 선전의 절망적 시도를 하게 된다. 매우 경미한 비판에도 소스라치는 두려움, 파멸을 가져오는 실적 위주의 강박관념, 완벽주의, 지배욕, 권력욕과 재물욕, 이 모든 것 뒤에는 심한 열등감이 숨어있다. 사랑의 자아는 그러한 '자아 부풀리기'가 필요없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1고린 13, 4).

이나시오는 자신의 삶 안에서 절망과 죄를 깨달았으며, 인간을 감싸주시는 불가해(不可解)의 하느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수십년이 지난 후 후양 파스쿠알(Juan Pascual)은 시성 심리 심사에서 이나시오가 매일 밤 드리곤 했던 화살기도를 — 더 적당하게는 '찬미기도'를 — 기억해 낸다. "나의 하느님, 당신은 한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저처럼 나쁘고 타락한 사람까지도 받으주십니다."

이나시오는 생애의 어두운 곳으로, 그의 영혼과 정신의 그늘을 지나서 진리로 깊숙이 인도되었다. 어두운 밀바닥에서, 칠흑의 한밤중에 이나시오는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 새로운 나날을 시작한다.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인간이 자신의 가장 끔찍한 어두움을 지닌 채 하느님 앞에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해방적 인식, 이른바 '지옥 묵상'은 —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묵상이 의식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 — 최악의 상태, 끔찍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느님께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권유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안에

서, 그분의 '지옥으로 내려가심'(Höllenabstieg)으로, 즉 '맨 밑'에서부터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요한 3,16).

이나시오는 더 이상 절망하여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또한 무엇이 죄인지도 안다. 그는 사랑의 부재인 죄가 마음 속 깊은 곳에 두려움 만큼 자리잡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의 말처럼 "비록 그러한 죄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나시오는 젊은 청년을 낳은 고장의 돼지 우리에서 그의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고뇌에 가득 찬 중압감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절실히 깨닫는다(루가 15,11-32 참조).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을 자극하고 화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사랑이다. "나의 하느님, 당신은 한없이 좋으십니다!"

무질서한 애착(사육편정)

'애착심을 지닌 꼬마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는 엄마, 아빠, 형, 누나 혹은 어느 손님 뒤에 계속 붙어 따라다니거나 이들에게 파고드는 사랑스럽고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어떤 관계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호의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슬처럼' 누군가에게 매달려있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잠초가 무성한 곳을 산책한 후에 옷에 달라붙어 있는 가시난 깍지를 떼어내는 성가신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계 체험은 이나시오가 '사육편정'으로 의도

하였던 바 안에 나타나는데, 그는 영신수련의 첫번째 일러두기(영신수련 1)와 영신수련의 목적을 설명(영신수련 21)하는 가운데서도 언급하고 있다. 영신수련은 “모든 사욕편정을 깨끗이 없애고 구령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영신수련 1)이어야 한다.

사욕편정, 즉 무질서한 욕정은 중독 증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마약 중독, 알콜 중독, 수다떠는 버릇, 성적 편집, 광적인 독서, 자아현시증(自我顯示症), 텔레비전 중독, 광적인 교제, 자아도취적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물질, 습관, 사람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유롭지 못한 방법으로 매달려있는 여러 모습들이다.

한 개인이 중독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회 전체도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안네 윌슨 쉐프(Anne Wilson Schaef)는 그의 저서 『병적 욕망의 시대.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In Zeitalter der Sucht. Wege aus der Abhängigkeit, Hamburg, 1989)에서 오늘날 인간들이 병적 욕망의 구조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한다. ‘소비주의’는 이를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말이기도 하다.

병적 욕망의 현상들 심부에는 우상 숭배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마틴 루터의 말을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이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의존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오로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의 하느님은 뱃속입니다”(3, 19). 병적 욕망이나 고착화나 절대화는 모두가 올바른 가치질서를 혼동시킴으로써 인간을 파괴시킨다. 어떻게 사욕편정에서 벗어나 질서가 잡히는가? 어떻게 해방이 이루어지는가?

우선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을 내리누르는 고통의 중압감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통용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 32).

두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사로잡힌 상황에서 혼자서는 벗어나올 수 없음을 진심으로 겸손되어 시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한 인간이 완전히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구속의 전형적인 틀 속에서도 병적 욕망이나 부자유를 전혀 체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바오로는 고풍스럽게 표현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는 감사합니다!”(로마 7, 15. 19. 24-25).

이 말씀은 비구원성과 원죄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이 ‘역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체험이다. 인간은 구령 속에 빠질, 즉 언제나 ‘오래된 습관’에 다시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바오로는 그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해방과 새로운 삶을 선사받았다. ‘자유’는 바오로가 자신의 구원 체험을 묘사하기 위하여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들 중의 하나이다.

아마도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적당한 그룹은 없을 것 같다. 60년대

에 종교풍의 상층으로 유명해진 예수회원 에메 뒤발(Aimé Duval)은 지옥과도 같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다. '가수이자 예수회원이며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그의 저서 『왜 밤이 그토록 길었는가?』(바오로 딸, 『달과 놀던 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됨 — 역주)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고백하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를 효과있게 선포하고 싶은 욕구와 일의 결실을 볼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현실사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이 긴장감을 술로 풀려고 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으로부터 그는 도움을 받았다.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의 고백은 이렇다.

“더해가는 나이에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루시앵(Lucien)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독재자가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고문 욕리요, 전쟁 도발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말하는 한 시대를 꿈꾼다. 인간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허풍쟁이요, 교만하고 돈밖에 모르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꿈꾼다. 더 많은 꿈들을? 그렇다. 충분히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은 무력해지고 경직된다.”

이것이 바로 이나시오가 영신수련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무감각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오고, 자신의 삶이 무질서한 애착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유동적 경향과 헌신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양심성찰(I)

“저녁에 나는 열어놓은 창가에 담배를 물고 앉아 그날 일어난 사건들을 담배 연기 위로 올려보낸다. 이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이다.” 어느 예수회원의 이 말의 의도는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영적 훈련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명백하게 해준다. 즉, 그것은 바로 양심성찰이다. 양심성찰에서는 “돌보시는 하느님”(창세 16,13) 앞에 하루의 삶과 체험을 지닌 채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139장의 다음 구절은 양심성찰을 함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의식할 수 있게 한다. “주여, 당신께서는 저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저를 매양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에서 친절하십니다”(시편 139,3. 9).

양심성찰의 다른 이름들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 ‘검사’(Examen)라는 이름은 시험(Prüfung)의 영적인 과정이 문제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전형적인 짧은 양식이 바오로한테서 발견된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1테살 5,21).

이것은 자신의 고유한 삶 안에서 진짜를 가짜로부터 구별해 내는 데도 적용된다. ‘평가’ 혹은 ‘하루의 평가’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확신의 표현이다. “모든 날은 가치가 있다!” 그중의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은 보고 즉시 느낀다. 많은 지하자원이 하루 중에 채굴할 때에서야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파헤쳐질 때에서야 드러난다. ‘책임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대화 안에서 이끌어간다. 무엇보다도 특히 인간이 아담과

하와처럼 관목 뒤에 몸을 숨기거나 카인처럼 눈을 감아버리면, 하느님께서 대화하자고 인간을 초대하신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카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결들여진 관심의 기도”(Gebet der liebenden Aufmerksamkeit)로서의 양심성찰은 그 특성이 다음과 같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삶의 현실을 향하고 싶으며 이 삶의 현실을 ‘하느님의 크신 관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껴안아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결들여진 관심을 갖고 삶을, 인간을 만나고 싶다.

구약성서의 시편 기도를 배경으로 한 양심성찰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유한 삶을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지혜로워지든’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시편 90,12).

신약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경고하면서 양심성찰을 권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1베드 5,8), “시대의 징표”(루가 12,56)를 알아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영을 식별하십시오”(1고린 12,10; 1요한 4,1-6 참조).

양심성찰의 본래 의미는 주의력이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행보는 이나시오 성인에 따르면 현존, 감사, 식별, 화해, 예견 등이다. 이들 각자의 행보가 그 나름대로 항상 중요하나 시야를 멀리 두고 보면 모든 행보들을 필요로 한다.

- 현존에로의 훈련: 우선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집중하고, 자신의 현존을 느끼며, 고요히 그리고 편안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의 바다가 고요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그 위에 단지 일그러진 채 비취질 뿐이다. 이러한 첫번째 행보에서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몇 번 깊게 심호흡을 하고, 가장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도록 놔두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하느님 앞에 현존한다는 의식이 고요함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 감사하는 훈련: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나시오 성인은 말한다. 건강에, 낮에 있었던 만남에, 해와 바람에, 포석 틈에 핀 꽃에, 어느 한 깨달음에, 좋은 말에, 과분한 일자리에, 좋은 일을 거리에, 자신의 아이들에, 좋은 정치 소식에, 내 자신을 통해 일 어날 수 있었던 모든 선행 그리고 나의 삶에 감사하라.
- 식별하는 훈련: 의미있는 삶은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새로운 용서의 행보를 통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또한 식별을 통해야 가능하다. 식별한다는 것은 현실에 시선을 한 번 그리고 또 주는 것을 뜻한다.

처음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평가없이 슬픔, 기쁨, 분노, 성급함, 탄압, 열정 등 스스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나의 의식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바라볼 때는 사건과 느낌과 나 자신의 행동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방향으로, 즉 사랑의 방향으로, 혹은 악의 방향으로,

- 즉 애정이 없는 방향으로 식별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유한 삶 가운데 좋은 영의 작용과 파괴적인 경향에 대한 확실한 직감력이 발전하게 된다. 가끔은 체험이 매우 느린 속도로 자신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식별을 하는 데 충분하다. 이야기된 것을 천천히 듣고, 발생한 일을 보고, 내가 지각한 것을 느낀다. 거짓말, 비겁함, 공격적인 표현, 자유로운 말, 기쁨, 평화를 천천히 ‘음미하고’, ‘씹는’ 일을 통해서 평화가 견고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 평화인지, 자유가 정말로 해방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 은폐수단’인지, 어떤 것이 단기간 이로운 것

인지 아니면 장기간 이로운 것인지가 뒷맛으로 드러난다.

- 화해하는 훈련: 내 삶 안에는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주 있다. 싸움, 악담, 태만, 거칠음, 주의력의 산만, 오해, 찔림, 함, 무책임 등 이 모든 것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화해를 필요로 한다. 하느님과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 내 자신과의 화해.

✧ 화해하지 않은 것을 단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이 향하는 한결음일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32). 화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자비하시며, 온전히 정의이신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나게 되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루가 23,34.46).

- 예견하는 훈련: 감사하고, 식별하고, 화해하는 훈련은 예견을 위한, 즉 미래로 가는 길을 위한 보조이며 전제이다. 내게 선사된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는 더 큰 충만감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인식한 것이 계속되는 내 길을 위한 빛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새롭게 신뢰함으로의 도약을 감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로지 그렇게 해야 삶과 미래가 가능하다. 오늘의 길이 내일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 나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활동시키시고, 당기시는 것을 느끼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힘과 지시를 청하는가?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합니다"(2고린 5,14). 이 말로써 그는 '이면에 깔린 사랑'(die Liebe im Rücken)인 그리스도께서 깊은 신뢰를 갖고 앞을 향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나시오 성인의 이 영신적인 기초 훈련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은 이 훈련이 영적인 삶, 즉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며, 화해하고 식별하며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느님과 결합된 삶을 요약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양심성찰(II)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양심성찰은 매일 하는 일종의 짧은 영신 수련이었다. 존재에 대한 감사, 화해를 이루는 것, 예수님의 추종자로 내일을 향해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영신수련의 기본 리듬이며 또한 '사랑이 결들여진 주의를(관심을) 갖고 하는 기도'의 기초 단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응성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는 이 기도 시간이 이나시오 성인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있다. 이 규칙적인 영적 훈련으로 이나시오 성인은 '영적 사회 설비'(geistliche Infrastruktur)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재해로 길이 망가지면 사회 설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 즉, 구호물자가 완전히 갖추어졌으나 그것을 수송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삶 안에도 있다. 사람들이 좋은 생각과 확실한 계획 등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서 얼마나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사람들은 자주 확인해야 한다. 매일 하는 '짧은 영신수련'의 습관은 원의, 계획 등등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전한 공간, 즉 '도로'를 만들어낸다. 매일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 이것이 길을 가는 데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시간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가? 양심성찰을 위한 이나시오식의 기본 형태를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방법과 선택(Spielformen)

존재에 대한 감사
화해를 이루는 것
예수님을 추종하며, 내일을 향해 부름을 받도록 준비

und Vorformen)가 있다.

- 우리는 짧고 절실한 기도, 안도의 숨, 탄식과 그날 하루에 대한 감사를 하느님께로 '승화'시키는 그날 그날의 고유한 시편을 본보기로 매일 기도드릴 수 있다.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그날 일어난 것을 '자유로이 연상' 할 수 있다.
- 본질적인 차원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삶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이 자주 도움이 된다.
-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 * - 그날의 중요한 한 장면을 슬라이드 그림처럼 집중적으로 관찰하든가 사진처럼 천천히 현상시키고 확대시키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 * - 육체의 소리를 알아듣는 궤도에 오른 사람은 육체의 소리를 자주 '성장 촉진제'로 체험한다. 두통, 불면, 가슴속의 분노 등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언어, 몸에 배었으나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말씨 등에 관한 작업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행운을 지닌 사람은 그날에 있었던 것에 대한 저녁의 짧은 대화를 통하여 사랑이 깃든 관심의 기도 자체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른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성령은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이로운 것은 그것을 감지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양심성찰을 위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나시

오 성인이 말하듯이, '매시간'을 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관심의 기도'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다. —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하느님과의 거리감이다 — 이 의식은 행함과 허용함의 모든 것에서 인간의 지배적인 분위기, 즉 예를 들어 기쁨이나 슬픔 등이 수반됨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수반하고 형성한다.
- '동반하는 관심의 기도'가 있다. 즉 애정어린 관심과 깨어있음의 영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영적인 자세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사물을 다룬다. 이 영적인 태도는 '천천히 함을 발견하는 것'과 자주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의 휴식이다.
- '사랑이 결들여진 예견의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 아마도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나 아니면 기상 직후에 — 몇분간 그날을 바라본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산악 여행을 할 때 안개 낀 지대, 전망이 좋은 곳, 높은 곳, 깊은 곳 등을 예견하듯이 한다. 기도하면서 예견하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경험상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소심한 걱정'이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다.
- 사람들은 '멈추어 있는 관심의 기도'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 기도가 뜻하는 바는 한 대화와 다른 대화 사이에 생기는 일의 흐름 가운데에,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 도중에, 또는 한 가지 일을 끝내고 곧바로 다시 전화 수화기를 잡기 직전에 갖는 작은 휴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짧은 멈춤은 열차 차량 사이의 완충기와 같은 그리고 척추 사이의 연골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것들은 탄력성 있는 완충 공간이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지를 느

끼게 해준다. '휴식없이' 살고 잠시 멈추는 휴식의 기술을 터득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실제로 가는 것 이상으로 비틀거리고 더 서두른다.

- 점심 때나 저녁의 고정된 시간에 갖는 관심은 당연히 자기가 걸어온 길과 또 자기 앞에 놓인 길에 대하여 의식적인 회고와 예견을 한다. 이것은 자기가 본 것을 한 번 더 성령에 비추어 보는 영적인 자세에서 가능하다. 프랑스 여인 시몬 베이유(Simone Weil, 1909-1943)는 온전히 이러한 관심의 자세로 살았다. 그녀의 말 몇 마디는 그녀가 '관심'에 얼마나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

“관심은 진리로 가는 문이다.”

“관심은 관용의 가장 뛰어나고 순수한 형태이다.”

“사람이 정말로 관심을 가질 때마다 악한 것이 하나씩 파괴된다.”

“관심을 통해서 일치, 만남, 사랑, 신비적인 체험을 위한 내면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관심의 절정은 하느님을 접하는 것이다.”

“관심은 결국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방향 전환

자동차 바퀴가 터지거나 미끄러운 길에서 자동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면, 알맞는 강도로 신중하게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이 방향 바꾸기가 인생의 '길'에도 있다. 이 의미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Agere Contra' (그와 반대로 행하기), 즉 의식적으로 반대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냐시오 성인 자신의 삶 안에서 이 방향 전환은 전에 궁신이었던 그가 자신의 외적인 것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전에 관례에 따라서 언제나 머리 손질에 더 신경을 썼었고 항상 멋진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빗질을 하거나 자르거나 밤이나 낮이나 머리를 덮는 일 없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대로 놔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발톱과 손톱도 자라게 놔두었다. 전에는 마찬가지로 발톱과 손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었다”(자서전 51).

이냐시오 성인이 오래된 생활습관을 버리고자 했을 때 성인은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습관 끊기'의 시간을 기대했다. 그는 인생 향로의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는 핸들을 돌려야, 즉 방향을 바꿔야 했다. 사람들은 그때에 '핸들을 지나치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로 시궁창에 들어박히는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이냐시오 성인은 고통스럽게 배워야 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차렸을 때에 그는 '평범한' 외양을 갖추었다. 성인의 방향 전환은 단지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역반응이 아니었고, 그에게 더욱 큰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자신의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편심(偏心)과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많이 마시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한테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차라리 말 한마디라도 적게

하고,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마시고, 일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부활절 전의 사순절은 뚜렷하게 회심 의지의 표현인 이 영적인 반동(反動)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회심 의지, 즉 의지가 일반적으로 과대평가되는 시기가 있었다. 나는 오래된 격언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산에 통로를 뚫으려면 조용히 마음을 대면하라. 사람들은 단지 원하고 원해야 한다. 사람이 원하면 그는 벌써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적인 운(韻)이 잘 맞고 때로는 격려일 수도 있으나 현실은 자주 ‘운(韻)이 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바오로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는다”(로마 7,15 참조).

이나시오 성인도 인간이 자신의 모든 편심과 ‘사욕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를 영신수련 책자에 있는 어떠한 독특한 교정이 보여준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미완본의 책자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 사욕편정을 갖지 않기 위한 영적 훈련”이란 텍스트를 “어떤 사욕편정에 의해서도 결정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자필로 고쳤다. 이것은 ‘천양지차’이다. 우리의 ‘인생마차’는 언제나 이탈과 기울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균형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복음의 영, 즉 하느님 자녀의 ‘자유’의 영이 지배한 사람은 자신의 생의 중심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강압적인 낯선 힘에 의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정복’, 즉 ‘극기’(克己)는 그것이 단지 자기 구원의 독단적인 시도인 한에서는 비참하게 파멸할 뿐이다. 여기에서 마귀를 자기 집에서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한 남자에 대한 성서의 비유가 적용된다.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담장 너머로

아주 깨끗한 집을 들여다보고는 일곱 명의 다른 마귀들을 데리고 왔고 그 남자는 상태가 전보다 악화되었다(마태 12,43-45 참조).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하는 곳에서는 극기의 힘을 선사하는 자유가 지배한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 즉, 갑작스런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연후에야 우리는 건강회복의 과정에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한다. 영적인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 즉 생명을 위협하는 경향에 저항할 수 있다. 이 저항은 단지 외적인 기력 집중이 아니라 부활절의 세례 서약에서 “끊어버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면적인 것이다. 이 성령으로 이나시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반성하고”라는 명확한 표현이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영신수련 230-237)에서만 네 번 나온다. 믿음의 실재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 이나시오 성인한테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소의 신익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반성할 것이다.”(영신수련 114,115,116)라고 예수 탄생 관상에서 세 번을 말한다. ‘이익’ 즉 ‘열매’가 중요한 문제이다.

첫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과 성장하는 관계이다. 덴마크의 종교철학자이며 실존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를 내렸다.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행동

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제 정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항상 다시 묻는다. 내가 기도하면서 본 것이나 반성하면서 생각한 것이 나 자신과, 즉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믿음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진리라는 사실이 내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작용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두번째 열매는 ‘일상에 대한 의식’ 안에 있는 내적 체험의 접지이다. 명상(Meditation)은 꿈과 비슷하게 더욱 깊은 의식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자신의 고유한 삶과의 결합에 대한 의식적인 질문을 통하여 낮게 그리고 높이 있는 의식의 층들이 서로 관통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의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추수 때에 열매를 따지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무의식을 의식하려 하거나 존재의 어두운 심연으로부터 환한 빛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인간적일 것이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땅에 떨어져서 상하기 전에 열매를 따는 것이 삶에 — 자신의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 봉사하는 것이다. 양심성찰의 매일매일의 영적 훈련은 이나시오 성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과 허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동기와 자신의 삶 안에서의 하느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을 하게 하는가 하는 포괄적인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아를 잃고 만다. 인간은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허풍쟁이 세상 수선공이다. 그는 이웃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인간이다. 그는 예언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2사무 12,7)라고 자신에게

말할 때까지 자기 신하의 불의에 대하여 한없이 분노한 다윗 왕과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지구를 위해 생태학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매번의 장보기에서 비닐 봉지를 받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위해 세번째 지침을 준다. 즉, 그것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느낌과 말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 상담이나 대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이란 말로 말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면 — “사람들은 해야 했다”, “사람들이 역시 본다”, “사람들이 말한다” — 이나시오 성인이 그러한 대화 규정을 지키는 첫번째 사람일 것이다. 이나시오의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는 자아 형성(Ich-werdung)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이며 ‘사람들’이란 말로 대화하는 것에 대항하는 이나시오적인 방법이다.

추종과 파견

예수

“Si cum Jesuitis non cum Jesu itis”, 즉 “너희들이 예수회원과 함께 가면,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라틴어 문장 만큼 이냐시오 성인을 비꼬는 말장난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 문장은 역시 “Jesum Habemus Socium”, 곧 “우리에게는 동반자 예수님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IHS 라는 예수회의 상징을 단지 되받아 친 것일 거다.

이냐시오 성인에게 예수는 누구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 페드로 아루페 신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단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거두어들인다면, 뼈대와 머리와 심장을 빼낸 몸처럼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의 모습은 어떤 관점에서는 복합적이거나, 또는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예수의 모습은 매우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아이로 나타나거나 전지전능한 자로 나타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거나 바리사이인들에게 엄격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견해에서, 즉 사랑의 견해에서 하나가 된다. ... 이 사랑은 모든 것에 생명을 넘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다, 특히 성찬의 전례 중에서”(Pedro Aruppe, 『나의 길과 나의 신앙』, 오스트 필던 1983, 48쪽).

이 말을 이냐시오 성인이 했을 수 있다.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전부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친구이다. 이는 성찬 예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다.

영신수련 책자에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가 나타난다. 즉, 영신수련에 들어있는 ‘원리와 기초’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서는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주제이다. 두번째 주간에서는 인간을 당신께 부르시어 당신 옆에 있게 하고 그들을 파견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간에게 친절한 임금”(영신수련 94)이 주제이다. 고통의 주간에서 예수님은 불쌍한 자이시며, 조롱당하는 자로 나타난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죽음에로의 연대의식을 갖고,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그의 사랑은 완성된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불린다. “어떻게 수난 때는 자기를 숨기던 천주성이 지금 부활에 있어서는, 그 진실하신 힘과 효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기하게 발현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는가를 생각할 것이다”(영신수련 223). 이러한 효능들 중의 하나는 위로, 즉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 “그리스도께

서 행하신 위로하는 임무를 다하셨으니, 이를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습관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이다”(영신수련 224).

그리스도는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주님이시며 친구이시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며 친구로 느꼈다. 모든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도 굴곡이 있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회심의 시기에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 성서의 장면에 익숙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 잉크’로 수백 쪽 적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자취에 가능한 한 생생하게 가까이 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꿈이 성인에게 생겨났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성지(Das Heilige Land)를 ‘다섯번째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곳으로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닌 섬지순례를 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과 성서의 복음이 새롭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냐시오 성인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성인에게 강한 내적인 접촉으로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성서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본 것만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신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성인은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추상적인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때에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죽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 주님을 이냐시오 성인이 뒤따랐고, 성인과 함께 성인의 동료들이 뒤따랐다. 예수님께 소속됨은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도 공동체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녀야 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수도 공동체를 예수회(Compagnia)라고 부르는 것이 안된다면, 예수의 모임(Kongregation)이나 예수의 수도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

나 예수라는 이름을 수도 공동체가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나시오 성인은 ‘회’(Kompanie)라는 단어로 결정내리지 않았으나, ‘예수’와 ‘예수에 가까이’는 성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수도 공동체를 항상 ‘가장 보잘것없는 수도회’라고 표기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훌륭하고 대단한 영적 집단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의 동반자로 보았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안의 황소와 당나귀 사이에서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이러한 예수회의 농담이 있다).

이나시오 성인의 동료 중 한 사람인 카니시우스(Petrus Canisius)가 언젠가 신약성서에서 50개가 넘는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을 보았다. 그는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었다. 100개가 넘는 이름, 상징, 호칭이 있다. 예수, 임금, 형제, 친구, 살아있는 물, 말씀, 다윗의 아들, 착한 목자, 목수의 아들, 하느님의 어린양, 살아있는 돌, 포도나무, 메시아, 알파와 오메가, 재판관, 믿음의 인술자, 죽음으로부터 처음으로 깨어난 자, 사람의 아들, 탐식가와 주정꾼, 랍비, 길, 진리, 생명, 주님 그리고 하느님... 이 이름의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다양한 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낸다. 각각의 이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자의 고유하고 또 설명되어야 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외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필립 2,9-11).

내면으로부터의 인식

약 340년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체험보다 삶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로마에 있는 나보나 광장에서 수년 전에 흔하지 않은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낯선 한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나의 과제와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자기 이해에 관해 다루는 나의 특성, 나의 직업, 나의 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은 하루종일 거기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해를 해주었다고 느끼고는 기뻐하며 위로를 받고 다시 가버립니다. 당신은 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사제로서의 나의 과제를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없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내 안에서 커다란 열정과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이나시오 성인은 항상 그러한 ‘가장 내면에 있는 인식’(intima cognitio)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온전한 영신수련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내면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정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관상한다. 주의를 기울여 ‘입으로 베어 조금씩’ 복음을 먹는다. ‘입으로 베어 조금씩’이라는 말로 이나시오 성인이 묵상에 사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영신수련 책자의 두 번째 일러두기에서 성인은 “영혼을 풍족케 하고 또 만족시키는 것은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내용을 깊이(내면으로부터) 깨닫고 맛보는 것이다.”(영신수련 2)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한 사람의 말을 단순히 ‘꿀꺽 넘겨 삼키지’ 않고, 받아서 씹고, 음미하고, 동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야 나는 그를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

를 깊게 하기 위하여 이나시오 성인은 반복하는 관상을 권한다. 반복은 깊이를 가져다준다.

성서의 장면을 '극과 같이' 관상하는 방법이 내면으로부터의 인식을 돕는다. 관상자는 마치 연극 배역에서처럼 성서상의 사건의 입장이 되어 본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베들레헴 마구간 안에 있는 탄생 장면에서와 같이 '작은 머슴'의 조역일 뿐이다(영신수련 114 참조).

이나시오 성인이 스스로 겪었고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한 '실험들'도 당연히 '내면으로부터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구걸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 그가 밤을 보낼 숙소를 찾으면, 그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아픈 사람을 돌보면 이 모든 것이 이나시오 성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재와 진리를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모든 환자, 모든 상사병을 앓고 있는 자, 모든 실직자는 이야기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한번 경험했다면, 해보았다면, 겪었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면의 직감을, 공감(Empathie)을 — 정신치료의 분야에서 부르는 대로 —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래야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요컨대 순수한 인간적인 관계가 가능 하다. 사람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로마 12,15 참조)고 바오로는 이것을 가리켜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중요한 헌장인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신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1항).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시는 것은 성경하는 자아인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나시오 성인한테 적용된다. 성인은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을 점점 더 인지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깊이있게 접근하는 통로를 발견하는 것을 스스로 찾았다. 성인이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분으로, 단 한 번의 대화로 충분한 적이 자주 있었다고 성인의 동료들이 증언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준 규칙을 스스로 지켰다. "나는 천천히 말하고, 경청할 때에는 배울 바를 찾으려, 그때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으로 고요히 머무른다."

모든 만남은 '내적인 인식'을 하는 훈련일 수 있다. 상대방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적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의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이 말로써 나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목소리의 억양으로써는 무엇을? 주저함으로써는 무엇을? 침묵으로는 무엇을? 그의 얼굴 표정과 자세와 몸짓 속에서는 무엇을? 흔히 이런 것이 단순한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인식'을 지녔었다. 그래서 예수회 원에게 예수 성심 신앙의 확산이 커다란 관심사였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 성심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드러난 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내면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함으로 사랑함, 기쁨, 그의 영혼의 평화와 슬픔을 사랑함으로)
→ 단순한 마음과 훨씬 많은 것 이야기

전투

한 우화에서 동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는다. 개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일이고, 나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놀이이나, 두더지는 투덜거린다. “삶? 그것은 어둠 속에서의 전투야.” 이 우화는 삶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보는 방법들이 삶 전체에 속한다. 삶은 놀이이며 전투이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삶 또한 수많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전투이다. 나는 아름다운 어느 장소에서 가졌던, 신학생을 위한 영신수련 과정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좋은 날씨의 온화한 가을날이었고 주위는 온통 고목과 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영적으로 고요에 빠져들기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보였다. 만약 이 장소가 ‘대서양의 사자’라는 작전명을 가진 나토(NATO) 추계 기동훈련의 중심부에 놓여있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 장소가 피정과 영신수련을 위한 주위환경이 될 수 없는가? 이나시오 성인에게 이 장소는 이미 영신수련과 피정을 위한 주위환경이다. 성인은 영적인 길을 가자면 영혼이 치열한 전투가 일고 있는 전쟁터와 비교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파괴적이고 거부하는 악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전투이다.

성서 전체는 전투에 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다. 전투적인 대결과 형제살인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느님과 싸운 것도, ‘가파른 길’에 관한 것도, 굳을 대로 굳어버린 마음을 위한 예수님의 싸움도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한 예수님의 내적 전투도 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루가 22,42).

이 싸움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명의 핵심이 문제되는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나타난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까지 흘린 일은 없습니다”(12,4). 지나치게 극적인 진술인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떤 노무자가 다쳐서 내 앞의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 그 노무자는 오직 온몸으로 금단현상에 대항하여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묶어놓아야 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육과 영의,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사람과 새사람의 전투를 상상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전투에서 물론 같은 무기로 싸우지는 않는다. ‘적’의 무기는 이기주의, 명예욕, 증오, 질투, 불신이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무기에 속하는 것은 평화, 진리, 자유이다(에페 6,11-18 참조).

악이 악으로 갚아지면 적이 승리를 한다. ‘악을 선으로써 정복한다’가 그리스도적인 격언이다(로마 12,21 참조). 악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파괴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확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찾으면 부정적인 것, 즉 삶을 파괴하는 것의 법칙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복음이 그것을 경고한다. 죄지는 세리를 경멸하는 바리사이파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루가 18,9-14 참조). 제자들은 잡초와 함께 밀도 쉽게 뽑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마태 13,29 참조). 특히 제자들은 다음의 사실을 보아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시오”(마태 5,45,48).

전투의 일상적인 형태는 긴장감을 참고 견디는 데에 있다. 광신, 동지와 적의 도식으로 하는 고착된 분류, 신앙과 불신앙의 뚜렷한

422
악의

구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명백함,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이고 결실이 있는 전투에서 달아나려는 시도 내지 또는 그 대신 단지 교전을 벌이려는 시도이다.

전투의 잘못된 다른 형태는 경직, 즉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지나치게 긴장된 시도이다. 고행의, 즉 엄격한 극기의 특정한 형태들은 전투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직이다. 이러한 형태들 안에서는 '선구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정령의 힘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사람들이 영적인 노력을 경직과 혼동할 수 있는 것같이 영적인 삶을 정적과 고요로 혼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 우리의 정치, 우리의 문화가 전투, 바쁜 활동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영신수련, 피정 등등을 단지 안도의 숨을 쉬는 시간으로 찾기가 쉽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기뻐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회원 에리히 프르지바라(Erich Przywara)는 자신의 저서 『영혼의 하늘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스도교와 내적인 삶은 일상세계의 지나친 스트레스에 대한 단순한 역반응인 물러섬이나 회복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폐제의 영성에서는 건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준다. '전투와 관상'은 폐제 영성에서 영적 암호로 불린다. 온화함과 단호함, 조용한 기다림과 전투적인 의지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싸우기를 원했던 이냐시오 성인은 상처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강한 임금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화하게 애원하며 부르는 사람으로 보았다. '원수'는 '불과 연기를 뽑는 큰 어좌'에 앉아있고(영신수련 140) '그 물과 사슬을 치는 것'을 고무한다(영신수련 142).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파견한다'(영신수련 145). 그리스도의 진영은 예루살렘 지역의 '한적한 장소에 아름답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영신수련 144). 여기에서 지리학, 즉 장소의 묘사가 심장박동 기록기, 즉 예수님 마음의 묘사로 된다. 이 주님을, 안젤루스 실레시우스(Angelus Silesius)는 1668년에 그의 노래 "나를 따르라"고 우리의 영웅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네..."에서 적고 있듯이 — 이냐시오 성인처럼 — 눈앞에서 직시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스런 주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니고 따르도록 하세.

그리고 걱정없이, 위로받으며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통 속에 서있도록 하세.

싸우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왕관도 쓰지 못한다네."

(독일 가톨릭 기도서 616번).

가난

책, 돈, 가난과 이웃 사랑은 성인들에게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느 가난한 부인과 그녀의 딸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성서를 팔았다. 학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창설한 도미니코 성인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교과서를 팔았다.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이 '가난한 상태에서 강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학업을 마친 뒤에 자신의 책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왜 이냐시오 성인은 '가난한 상태에서 강론하기를' 원하는가?

Tai zé
프란치스코 성인의
위대한
개념과 수도사
로제수사
교과서

최종적인 대답은 단순하다. 즉, 성인은 가난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처럼 가난하기를 원한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난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2고린 8,9). 그의 가난함으로써 부요하게 됨,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난을 사랑하도록 하는 기본 체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영광의 부유함을 ‘마치 전리품처럼’ 꼭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필립 2,6 참조), 인간 존재의 가난과 하나가 되셨다.

가난과 부가 하느님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이 가난함에서도 가난과 부유함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다시 선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영원한 선물이고 받아들임이며, 가난과 부의 일치이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이다.

인간은 가난함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삶과 하느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또한 하느님을 경험함이 가능하다. 즉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한다.’ “복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5,3).

가난은 이나시오 성인한테 하느님께 대한 가장 깊은 신뢰이다. 성인의 구결여행들은 성인에게 있어서 신뢰하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었다. 사람들은 요한의 첫째 편지에 있는 한 구절(4,20)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인간들 가

운데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역사와 인간을 항상 새롭게 신뢰하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나시오 성인은 가난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열중해 있는 부의 악순환이 가난 안에서 부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사하시고 당신의 생명과 사랑의 보물을 모두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부’(富)이다. 왜냐하면 ‘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하느님께 반항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 신세를 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 반항하여 모든 것을 단지 자신만을 위해 편취하여 소유하려고 하며 모든 재산의 공유를 저지하기 때문이다”(예수회 총장 페터-한스 콜렌바흐 신부).

이나시오 성인은 가난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성인은 가난 안에서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를 위한 처방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 교구는 이 정도의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적지 않은 주교좌에서 귀족이 뒤늦게 얻은 아들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와 반대로 복음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가운데에서 강론하고 거저 성사 주기를 원했다.

이나시오 성인은 가난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성인은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즉 육화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로 예수님은 가셨으며 그들과 유대를 가지셨고 일치하셨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사람들을 그들 고유의 서원을 통해서 그들의 사도직을 '보잘것없는 자들', 즉 단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을 서약시킨다. 그들의 자유시간에 그들은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이 임무에 관하여 예수회 총장인 콜벤바흐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또 정의에 대한 요구가 없이는 가난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께 사랑한답시고 회심하여 돌아갈 수는 없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당연시되는 사랑에 본질적으로 속한다.”

가난하게 사는 자, 그리고 가난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선물을 받는다. 외향적으로 굳세고, 힘있게 그리고 뛰어나게 자신을 필사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 안에서 숨어있는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가난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뜻한다. 이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과 자유를 체험한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주고 받는 능력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 중에서 부에 더욱더 민감하다. 페드로 아루페 예수회 신부는 빈민가의 어느 가건물 안에서 미사 후에 드러난 어느 남자의 그러한 감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미사) 끝에 어떤 큰 청년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의 난폭한 눈빛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당신한테 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초대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이 있던 신부가 말을 했다. ‘그와 함께 그냥 가십시오! 정말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반쯤 허물어진 오두막인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에게 뼈적거리는 의자 위에 앉게 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몰을 볼 수 있었다. 그 거구의 청년은 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몇 분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해가 사라졌다. 그때 남자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몰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페드로 아루페, 우리의 증언은 믿을 만해야 한다. 20세기 말의 교회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는 예수회원, 오스트필던 1981, 138-139쪽).

Secondary Virtues

순명

20년 전부터 '부차적인 미덕'에 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즉, 이 등급의 미덕에 관한 것이다. 질서의 의미와 순명이 이러한 부차적인 미덕으로 간주된다. 질서의 의미와 순명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 역사가 증명하듯이 — 전쟁을 하고 강제수용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명령은 명령이다', '질서는 있어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또한 죄없는 사람을 총살할 때도, 합법적인 집행통보 때에도.

순명에 그렇게 애매한 면이 있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순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순명하는 일에 수상쩍은' 자들로서 특별히 여겨지고 있는 '이나시오 성인의 아들들'인 예수회원과 순명은 어떠한 관계인가? 교황께 드리는 그들의 순명서원은 무엇인가? 다른 수도회가 가난과 학식 등을 통하여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이나시오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자명한 일이다. 순명에 있어서 성인과 성인의 동료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능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물론 이나시오의 순명에 대한 이해는 자주 사용되는 '시신과 같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섰고, 훨씬 더 풍요로우며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자신들의 톱기사에 관하여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교황의 정예군'에 관하여 써야 할지 아니면 '교황의 반역자'에 관하여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이나시오의 순명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 이나시오의 영성에 양극의 전류가 통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와 같이 명확해지기는 드문 일이다. 단지 이렇게 해서 흐름, 솟구쳐나옴 그리고 생명이 이루어진다.

무엇이 순명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결정적인 것인가? 우선 확실한 것은 순명이 없는 인간의 공동 삶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순명이 없이는 파트너를 이루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룹에서도, 커다란 사회 안에서도 공동의 삶은 불가능하다. 순명은 자기 자신에 끼치는 영향을 자유로이 허락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경청하며 또 결정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 결정 그리고 원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경제에 있어서 공동결정, 동업관계의 공동작업 등이 가능한 것이다. 서로 약속한 협정에 대한 책임감을 동업자들이 느끼지 못하면 어떤 계약도 불가능하다.

두번째로는 순명이 단지 특정한 조건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계명, 자신의 양심이나 수도회의 회헌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한 순명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나시오 성인의 순명정신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한다. 순명은 '극도로' 잘 준비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한다.

"순명은 장상의 미덕이다." 어딘지 모르게 역설적인 이 간절한 표현은, 순명을 요구하는 지시는 아주 면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이나시오 성인 자신이다. 성인은 항상 개개의 상황에 관하여, 그리고 성인의 동료들의 가능성과 능력에 관하여 정확히 조화를 했으며, 많은 조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또 자신의 결정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자유로운 명령이 자발적인 순명을 만나기 위해 성인은 자신이 스스로 편애와 편견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내면적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시도했다.

장상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관해' 이나시오 성인은 모든 예수회원들에게 보낸 교서를 통해 명령과 순명에 있어서 결합되어야 할 신중함에 관해 많은 것을 밝히고 있다. 간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야 하며, 자신의 원의를 명령하듯이 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그 문제에 관해 논할 수 있고 그 이전의 결정을 '가장 좋게는 침묵하며' 넘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한 번이나 두 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사람들은 한 달 후나 또는 더 늦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시

간과 함께 많은 것을 더 잘 알려주기 때문이고,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역시 청원자는 항상 장상의 성격과 그때그때의 상태에 따라야 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 해야 하고 장상에게 적합한 때에 가야 합니다...”(영적 편지 296).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가! 결정을 청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이 뜻하는 순명이다.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이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순명은 면밀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글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의가 문제이다.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언젠가 불순명 때문에 한 예수회원을 나무랐다. 왜냐하면 그 예수회원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이나시오 성인이 그에게 맡긴 일을 정확하게 실천했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나무람에 대해 설명한다. 즉 상황이 변했기에 원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것도 그는 보아야 했다는 것이다. 순명한다는 것에는 숙고하여 실행하는 의무가 있다.

이나시오 성인의 순종에 대한 이해에서 아마도 가장 깊이있고 결실이 있는 면은 성인의 보편성(Universalität)이다. 성인은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맹목적인 순종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거나, 크거나 작은 일에 관계없이, 상사나 동료 그리고 부하에게 거역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로써 당신이 그리스도를 찬미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 표현에서 ‘맹목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이나시오식의 순명은 ‘위로부터의 명령’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굴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뚜렷해졌을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순종에 대한 이해는 보편적이다. 즉, 그는 모든 이의 말을 ‘듣고, 경청한다.’ 이나시오식의 순명은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양심도, 교황의 말만도, 당연한 생각만도, 동등한 위치에 있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으로도 자신을 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나시오식의 순명은 가난함과 부유함 사이에서,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사이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그리고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감도는 긴장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순명은 전체와 관계하며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긴장감이 많이 감도는 이나시오 성인의 메모 위에 십자가 표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내 사랑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하느님의 뜻

한 편지의 끝은 많이 말하고 있는 것만큼 아무 의미가 없을 경우가 흔하다. ‘우정으로’, ‘배상’, ‘장사의 감사를 전하며’, ‘만사형통을 기원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포용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행운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나시오 성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한 편지의 맺음말은 하느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성삼위의 가장 성스러운 뜻을 항상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나는 끝없이 좋으시고 가장 성스러운 삼위의 하느님께 풍부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습니다.”

성인 전기 작가로 유명한 월터 닉(Walter Nigg)은 『수도승들의 신비』(Geheimnis der Mönche)란 자신의 책에서 이나시오 성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핵심 과제였다. 하느님의 뜻을 탐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항상 중요했다. 난로 주위를 돌듯 오직 이 목적 주위만을 맴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시키는 경향도 그의 생활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추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나시오 성인의 계속되는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나시오 성인이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즉 지금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는 하느님께서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느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비는 그의 끊임없는 기도는 큰 감동을 주면서 계속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찾는 일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 이보다 더 홍분시키는 격투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느님의 뜻을 향해 쉬지 않고 추구하는 그의 인간됨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알고자 할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서 이나시오 성인의 전생애와 영성 전체가 연결된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기, 영의 식별, 선택, 순명, 봉사, 파견, 영혼의 열정, 이 모든 단어들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핵심적인 것들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나시오 성인으로 하여금 유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병원으로 그리고 대학으로, 교황

계로, 수도회 설립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의 봉사를 하는 기관들의 건립으로 이끌어준 커다란 길잡이가 되는 질문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하느님 뜻 찾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원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인간 자신이 ‘하느님의 첫번째 뜻’이다.

인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즉, ‘나 자신’이 이나시오 성인의 응답인 것이다. 한 인간은 하느님의 이러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요한 4,34).

하느님의 뜻은 내적 기쁨과 위안을 통해서 발견된다. 그 안에 삶의 행복이 놓여있다. “당신을 낳아서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라고 말하면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에 예수님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대답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가 11,28).

하느님의 뜻은 공동체를 세우신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성서의 한 장면은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이다.”(마르 3,34-35)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신다. 하느님의 뜻을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그리고 구체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이나시오 성인도 그것을 절망의 끝에서 체험했다.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관하여 아는 체하면서 확답을 얻을 수 없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성령께 개방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

람들은 모든 인간의 길이 오직 우회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냐시오 성인한테는 팜플로나에서의 포탄, 예루살렘에서의 추방, 여러 가지 실패한 시도들, 동료들 얻는 것들뿐만 아니라 매일 찾고 발견하고 또 찾는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이냐시오 성인 자신이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형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에게 쓴 어느 편지에 가장 잘 표현되었다.

“모든 것에 영원한 생명을 베풀며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의 가장 성스러운 뜻을 항상 올바르게 인식하고 완전하게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의 완전한 은총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당신의 사람인 이냐시오.”

선택

삶 전체는 결정을 내리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여기로 혹은 저기로 가는 것, 일어나거나 누워있는 것, 인문계나 실업계 또는 상업계 학교에 진학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어느 한 사람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는 것, 때로는 생명 자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

이 선택하는 일에 이냐시오 성인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신수련 전체가 결정을 위한 도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냐시오 성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냐시오 성인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 수 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와 나의 삶을 위하여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위한 신성한 전제조건이다.
-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결정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는가? 만약 이 기본방향이 ‘옳지’ 못하면, 방향을 전환한 모든 행보는 마치 누군가 기차를 잘못 타고서는 기차 안에서 기차가 가는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즉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마르 12,27)께서 선사하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만이 도움이 된다.
- 모든 결정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 내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여기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불편심’과 ‘영의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즉, 모든 기도는 잘못된 두려움과 부자유스러운 편애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 이냐시오 성인이 결정을 내리는 여정에서 붙들고 있는 내면적인 ‘추진력’은 바로 ‘더욱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이 이러한 내면적 역동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더욱더 나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결정과 결부되어 있다. 성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께서 선택한 것을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 이나시오 성인은 잘못된 결정에 관해서도 알고 있다. 잘못된 여러 결정들은 퇴보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퇴보하게 만들지 않는 이러한 결정들을 놓고 성인은 결정 내려진 틀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한다.
- 결정 내리는 일은 전체적이어야 한다. 즉, 머리와 마음, 생각과 느낌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직접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을 하느님께로부터 선사받는 순간과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인간은 주의 깊게 찾고, 느끼고,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말고도 이나시오 성인은 선택을 위한 다수의 실용적인 도움말을 준다.

성령의

- 만약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면, 먼저 그는 결정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회오리바람이 부는 동안에 바람의 방향과 배의 항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 내적으로 ‘거리를 두고’ 가는 것, 즉 자신이 임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삶의 근본방향으로 정돈된다.
- 개별적인 결정들이 더욱더 크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결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항상 검사해야 한다. 이것은 이나시오 성인에게 삶의 커다란 위기와 세심증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 위기와 세심증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파괴한다고 느꼈다.
-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나는 그에게 무슨 조언을

하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친지나, 친구,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대체로 도움이 된다.
-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가능성에 관해 문의하고 그에 대한 찬반의 이유를 기록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정을 내리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자세하게 그려보고 그 가능성들이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아본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좋은 느낌’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 이나시오 성인에게서 가장 뜻깊은 것은 성인이 결정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때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몰입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을 멀리한 깊은 곳에서 이 신앙인은 하느님께 결정을 맡기고 또 하느님께로부터 그 결정을 받는다.
- ‘하룻밤을 자면서 그것을 차분히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이나시오 성인의 말이며 실행이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성인은 자주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내적인 ‘확인’을 찾는다. 이것은 깊은 신뢰를 갖고 일을 착수하고 그것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빈틈없는 영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나시오 성인은 일이 자신이 생각해낸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유를 항상 지킨다. 성인은 다음의 격언과 같은 내적인 경계함을 가졌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방향을 정하신다. 인간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웃으셨다.”

영의 식별(I)

때로는 노새가 신출내기 성인보다 영리할 수 있다. 노새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만난 동행인과의 대화를 기술한 이나시오 성인의 자서전의 이 부분을 읽으면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때에 교리적 논쟁이 문제였다. 대화가 격렬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 상대자가 급히 말을 타고 앞으로 가버렸고,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욕을 당한 성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그 사람을 쫓아가서 단도로 몇 번이고 찔러야 하는가? 그러나 성인은 도대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 있는 동물에게 그 결정을 맡겼다. 만일 이 동물이 갈림길에서 마을로 앞서서 서둘러간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면 성인은 그를 그냥 놔둘 작정이었다. “마을은 삼사십 보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로 가는 길이 매우 넓고도 편했는데도 이 동물은 다행스럽게도 마을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자서전 48).

이나시오 성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자들의 기분전환을 위해서나 독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길에 대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영의 식별을 위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첫번째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커다란 ‘열망을 인간이 갖고 있음에도’ 아주 ‘완벽하게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이다(자서전 46). 정말로 영의 식별이 필요하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두번째 메시지는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하고 있다. 성인은 아직 “내면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도 없었고, 겸손이니 사랑이니 인내니 하는 덕이 무엇이며 이러한 덕성들을 헤아리고 조

정하는 분별심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자서전 46).

여기서 길이 의미하는 상징과 ‘분별심’이란 말로 영의 식별에 관한 본질적인 것들이 진술되고 있다. 만약 산책하는 사람이나 사냥꾼이 땅바닥에서 어떤 흔적을 보면 그들은 두 가지 관심을 갖는다. 하나는 이것이 어떤 흔적인가 하는 것이다. 노루의 흔적, 토끼의 흔적 아니면 멧돼지의 흔적인가? 그리고 둘째 관심은 이 흔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이다. 흔적을 읽은 사람은 희망과 근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즉, 흔적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사건은 인간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삶과 체험 안에도 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경험은 인간의 영혼에 인상과 흔적을 남긴다. 그것들을 정확하고 식별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질문이 중요하다. 어떤 ‘인상’이 내게 남아있는가 또 나는 두려움 혹은 평화 혹은 다른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 영혼의 사건이 이끌어가는 어떤 역동, 즉 어느 한 방향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서는 식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의 흔적을 확인하면, 그 두려움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은 자아의 감옥으로 이끌 수 있으나 다른 쪽으로도 개방되어 있다. 두려움은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장으로 이끌었다. 두려움은 또한 물에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새롭고 깊게 만나도록 이끌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평화를 느끼면 같은 모양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인간을 자기 자신 속에 폐쇄되어 있도록 이끌 수도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창고를 추가로 짓고 자신에게 “자, 사랑하는 영혼아! 이제 너는 쉴 수 있다.”고 말

한 부자는 사이비 안전에 그리고 사이비 고요함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다(루가 12,16-21 참조). 거꾸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부활하신 분의 평화의 인사를 통하여 내적인 고요함을 얻고, 또 자신을 개방하여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힘을 얻는다.

불편하거나 편안하게 느낀 개별적인 인상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상의 방향이 문제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성령의 기본방향을 노새 이야기에서 '겸손, 사랑, 인내'라고 부르고, '영의 식별을 위한 규범'에서는 '믿음, 사랑, 희망, 기쁨'이라고 부른다(영신수련 316). 육정의 반대방향은 그것에 상응하는 불신, 절망, 이기주의이다.

영의 식별은 이나시오 영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다. 영의 식별은 성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영성의 역사 안에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성서의 장면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예수님과 악마는 성서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이 올바른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은 낱말의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직감의 차원에서 생긴다. 내적인 식별감각만이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종을 추락에서 보호한다는 성서 말씀이 신뢰어로 초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불손하게 시험하는 것으로 초대하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인간 안에서 식별을 하는 성령 자체이다. 바오로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식별은 성령에 대한 겸손한 신뢰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인간은 전쟁을 성스러운 것으로 성급하게 설명할 위험이 있다. "그들

은 당신들을 죽여놓고도 오히려 그것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요한 16,2).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들이 식별을 해야 할 상황으로 이끌린다. 첫번째 식별의 기준은 그리스도 자체이다. "성령을 시험해 보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를"(1요한 4,1-3 참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 맞는 것인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에서 선사받은 은총의 원초적 경험과 일치하는가?

이 원초적 경험에 바로 사랑이 속한다. 사랑은 모든 식별의 결정적인 기준이다. 예언적인 말, 억눌린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인 투신, 치유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선 사랑으로써 그 참된 가치를 얻는다(1고린 13장 참조). 사랑은 성령의 첫번째 열매이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 5,22). 육정의 열매는 아주 다르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갈라 5,19-21).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가시덤불에서 좋은 포도가 생기지 않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루가 6,44 참조).

물론 복음은 식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다.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악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다(2고린 11,14 참조). 그리고 예수께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마태 7,15 참조). 거꾸로 선도 '악의 모양' 속에 숨어있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십자가는 끔찍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스러우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체험하면, 십자가는 하느님의 길을 보여주는 훌륭한 식별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요한 15,13).

이나시오 성인이 언젠가 여러 개의 눈이 달린 아름다운 뱀의 환시를 보았다. 이 내면의 그림은 그가 십자가 옆을 지나갈 때에 색이 바래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를 아름답게 빛깔을 바꾸는 환영에 안중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표징으로 받아들였고, 그 환영을 경멸하며 쫓아버렸다. 거기에서 생기는 식별을 위한 질문은 이렇다.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느님 사랑의 표상, 즉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그대로 서있는가 아니면 ‘색이 바래지는가?’ 성서의 의미에 있어서 모든 식별은 보편적이며 바오로적인 표현에 들어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은 꼭 붙드십시오!”(1테살 5,21).

영의 식별(II)

만약 이나시오 성인이 영의 식별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모델만을 전해주었다면 그것은 이나시오답지 못한 것이다. 성인은 이 식별훈련을 위한 장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양심성찰이다. 양심성찰은 영적인 미각을 연마시키는 것이다.

미각 또는 뒷맛의 상징을 이나시오 성인이 암시하는 그 이유는 성인 자신이 영의 식별을 그렇게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한 무릎 부상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결정적인 발견을 했다. 성인이 스스로 쓴 것처럼(자서전 38) 그가 ‘열중했던’ 기사소설은 독서하는 동안에만 그에게 감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후에는 ‘메마르고 언짢은 기분’을 느꼈다(자서전 41). 그와 반대로 그가 성인 열

전과 성서를 읽을 때면 그는 만족스럽고 기뻐했으며, 그것은 그가 그 책들을 손에서 놓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자서전 41). 이나시오 성인은 이것을 단호하게 강조한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에 관하여 음미하기 시도한 성인의 첫번째 숙고였다. 그리고 그가 후에 영신수련을 집필했을 때, 그는 이 첫번째 숙고로부터 영의 다양함에 관한 명료함을 얻기 시작했다”(자서전 41).

양심성찰은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뒷맛’을 위한 그리고 영적인 미각 형성을 위한 시간이며 장소이다. 자신의 삶에서 좋은 맛과 나쁜 맛을 식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것에 대하여 세 단계를 제시한다. 느끼기-인식하기-태도를 정하기. 이 기본 단계들은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기 위한 규범’ 안에 들어있다(영신수련 313).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이 미각 형성은 그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실행한 영적 훈련이며 모든 대화와 결정에서 행한 일상 안에서의 꾸준한 훈련이었다. 성인은 그와 동시에 자신의 식별능력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눈이 멀었을 때 성령께서 점점 더 잘 보도록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자서전 58). 성령께서 몸소 식별하기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운이 나게 한다. ✱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서 영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견해와 판단기준을 발견했다.

1. 선한 움직임과 악한 움직임은 마치 순풍과 역풍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 방향으로 향해하는 사람은 성령계로부터 순풍을 받고 악령으로부터 역풍을 받는다. 육정의 방향으로 향해하는 사람은 악

령으로부터 순풍을 받으나 성령으로부터는 매서운 역풍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기본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영신수련 314 참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을 함께 마시는 사람으로부터 힘찬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리니 이라고 비웃음을 산다. 거꾸로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지지한다.

2. 절망, 혼돈, 불안의 시기에 사람들은 '위안 상태에 있을 때' 내린 결정을 단순히 포기해서는 안되며 다시 조용히 결정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영신수련 318 참조).

3. 영적인 결정의 위기에는 시험의 의미가 들어있으며, 정말로 영적 위안을 받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영신수련 322 참조).

4. 악마는 간음하는 사람처럼 발각되지 않게 행동하기를 원한다(영신수련 325 참조). 가장 나쁜 유혹과 시련이 공공연하게 말해지자 마자 자주 순간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사라진다는 데에서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영신수련 326 참조).

5.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영신수련 325 참조). 흥정하고 값을 깎는 것은 위험하다. 악마에게 작은 손가락을 건네주면 악마는 손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말이 있다.

6. 선의 모습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유혹이 특히 위험하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지나친 참전은 내적인 탈진상태로 이끌 수 있고, 자아인식을 향한 여정의 단계들은 성과없는 그리고 단순한 반복적인 자아분석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시오 성인은 내적 경향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정말로 좋은지 생각하는 그 사고의 과정에

주의하라고 충고한다(영신수련 333 참조).

성령에 의한 내면의 강한 접촉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이 정말 선한 핵심에 속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중에 이른바 '열려진 마음의 문'에 함께 몰래 들어갔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영신수련 336 참조).

7. 단지 자신의 느낌만 찾거나 신뢰의 단계를 두려워하는 영적 자아확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영적 자아확인의 방법에는 '약간 겁나게 하는 어떤 것'을 항상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젊음이 없다.

식별에 관한 질문에서 대략적으로 다음의 것들이 이야기된다.

만약 내가 어떤 의도에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님한테 걸맞는다면', 순수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좋은 단체' 안에서라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일깨워지면, 이미 내려진 훌륭한 기본 결정의 틀에 적합하다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면 그것은 성령께로부터의 유래를 대변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항상 지나치게 요구하고 단지 억지로 실행하는 것, 무절제하게 남의 이목을 끌면서 억지 인상을 주는 것, 오로지 억지로 그리고 불쾌감을 갖고서만 할 수 있는 것, 편협하고 억지 트집을 잡으며 지나치게 세심한 인상을 주는 것, 현실 감각과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사랑이 없고 파괴적인 효과를 내는 것, 기도와 고요함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앗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향과 행동양식에 맞지 않는 것은 더욱더 육정으로부터 온다.

이나시오 성인은 더 많은 권고와 식별규범들을 진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고유한 길, 영적 미각 능력의 연마 그리고 고유한 경험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을 향한 여

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영신수련 334). 성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의 은총이다.

더욱더

라틴어로 'magis' 인, '더욱더'란 말은 이나시오 성인의 어휘에서는 '불가사의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점층법의 형식에서 이야기할 때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더욱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더욱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기' 등등.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magis'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해답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한 사람은 경악하여 꿈쩍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손에 있는 그림엽서를 바라보았다. 그 그림엽서에서는 어느 강의 발원지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다!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의 '더욱더'의 의미인 것이다. 사랑은 괴어있는 물, 웅덩이, 펌프로 다 퍼낸 저수지 등이 아니다. 사랑은 새지 않고 넘쳐흐른다.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지하수로 하늘과 땅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샘물이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와 같은 것을 언젠가 매우 명확히 표현했다. "우리는 매일 미덕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난쟁이로 머물러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성장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오그라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항

상 제자리걸음에 만족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경제적인 빚처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다 음과 같이 말할 수도 없다. "지금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했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빚진 것이 없다. 지금 나는 사랑으로 충족해 있다. 지금 충분하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이다. 다른 모든 것처럼 '더욱더'도 오해하기 쉽고 위험하기도 하다. 이것은 이웃과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욱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원수이다."라는 격언은 한 사람을 탈진시킬 수 있다. 즉 magis란 말을 통해 영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최고의 성과를 이루도록 도전받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항상 지나치게 요구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성과와 불만족에서 나타나는 '더욱더'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열병과 강요는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전환 위장 속에 있는 사육신 것이다.

'성장의 한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구제받지 못할 '더욱더'의 '세속적인' 변형도 있다. 우선 건전한 성과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무모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으로 퇴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성장의 이상들에 비교하여 '더욱더'를 위한 진실되고 신적인 근거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더욱더 크신 하느님'이고, 응답하고 계시는 '더욱더 큰 인간'이다. 이보다 큰 인간에 대해 파스칼은 언젠가 말했다. "인간은 끝없이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은 자신의 성장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켄터베리의 안셀무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더욱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햄머레 주교는 안셀무스의 이 하느님에 대한 상상을 이나시오 성인의 '더욱더'와 연

결시켰다.

“철학사의 어떠한 생각도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인 안셀무스의 생각만큼 많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나시오 성인의 magis는 이 생각의 인간적인 행위를 위한 이른바 실용적이며 표준적인 반향인 것이다.”

봉 사

“나는 묵상 중에 잠들지 않고 어떠한 다른 의식 상태에 머물러있었다. 갑자기 나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줄기를 보고서, ‘그 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자 ‘봉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현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료하고, 관조적이며, 또 힘있는 뜻밖의 진술이다. “봉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즉,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삶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나무의 푸른 잎과 열매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나무는 죽은 것이다. 그러나 따뜻하게 해주는 펄럭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들보, 아기가 자고 있는 요람 등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나무가 단순히 죽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것에 도움이 이 되게 쓰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나시오 성인을 보면 봉사하는 것이 성인의 삶을 형성하였고, 삶이 성인에게는 봉사하는 것을 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나시오적인 ‘봉사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성인의 자서전에 있는 작은 대목에서 초기의 증언을 볼 수 있다.

“그는 글쓰는 일과 기도에 시간을 반반씩 할애하였다. 그가 가장 위로를 받는 일로는 별빛 찬란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이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잦아지고 점점 더 그 시간은 길어져 갔다. 그 결과 그는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속에 세차게 느끼게 되었다”(자서전 43).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상상할 수 없이 큰 공간의 신비 앞에서 경외심에 사로잡혀 놀라거나 혹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주십니까?”
(시편 8,3-4)

이와 비슷한 놀라움과 의문의 또 다른 많은 증언들이 있다. 하지만 봉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는 증언은 많지 않다.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에게 ‘전형적인’ 것이다. 즉, 이것은 이나시오 성인의 기본적인 영적 조화와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봉사하는 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한하게 큰 것을 바라볼 때만 이나시오 성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바라볼 때, 어린이를 바라볼 때,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도 생긴다. 이나시오 성인은 “성모님, 성 요셉, 하녀 그리

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며 가능한 데까지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천하고 부당한 종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또 관상하며 모든 필요에 그들에게 봉사할 것이다.”라며 기도하는 이를 초대한다(영신수련 114).

물론 부차적인 장면임에도 여기에 이나시오 영성의 핵심이 드러난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편에 의하면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영신수련 23)하는 데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가 완성된다. 이 봉사 속에 최종적인 순수성의 모든 기준이 들어있다. 비록 이나시오 성인이 “가난한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함을, 업신여김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업신여김”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격려하여도, 거기에는 또한 “꼭 같거나 혹은 더 낮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느님께 같은 영광이나 혹은 더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으면”이란 말이 아직 유효하다(영신수련 168). 예수님도 친히 행복하다고 여기셨고 또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으로부터 아주 신뢰받는 가난은 단순히 절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이며, 우리 자신의 모든 광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전도된, 즉 타락한 지향을 막아준다.

이나시오 성인은 봉사하는 데에서 자신의 삶의 성취를 발견했다. 봉사하는 것이 삶을 향한 성인의 통로였다. 봉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이것은 또한 거꾸로도 유효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봉사를 한다. 영예와 명성을 잘 이해했던 이나시오 성인은 봉사로 인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게 봉사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즉 주인-종의 도식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인 예수님께 봉사했다는 것을. 두 개의 상

반되는 그러나 모순되지 않는 비유에서 이것이 명백해진다. 예수님은 발일을 끝내고 저녁에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며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는’ 하인들과(루가 17,10 참조) 집에 돌아온 후에 자신의 하인들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주인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루가 12,37 참조).

또한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봉사체험에 속한다. 시중을 받는 것,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도록 놔두어야 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요한 13,8).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나시오 성인은 하느님 자신이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느님이시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성인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영신수련 93)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드러난다.

봉사는 단지 수고하고, 포장하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봉사는 또한 기다림을 뜻할 수도 있다. 관상적인 봉사도 있다. 영국 시인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자신의 작품 끝에 ‘그의 눈멀음에 대해’(On his blindness)라는 표제로 한 단락을 적고 있다. 자신의 눈이 먼 밀턴은 다음의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단지 서있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봉사를 한다.” 환자도, 침묵하는 자도, ‘쓸모없는’ 자도, ‘아무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도 봉사할 수 있다. 예전에 예수회의 총장이었던 예수회원 페드로 이루페 신부는 이 경험을 언젠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봉사함의 실제적인 뜻을 파악한다.” 체험된 무능, 이것이 봉사이다.

무력은 죽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체험된다. 이나시오 성인은 죽음도 서로 도우면서 존재하는 데에 봉사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수도회의 모두가 전생애에서와 같이 죽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회헌 595).

동료들이 이나시오 성인 자신이 청한 교황의 강복없이 죽게 놔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는 동료들이 성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비서가 중요한 몇 가지 미해결된 업무를 그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봉사자’의 일이었을까? 아마도 약간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초대로 더욱 빛났다. “선하고 성실한 종인 그대는 그대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오!”

열정

7월 31일 이나시오 성인의 축일 미사를 위해 미사정본에 채택된 성서의 여러 문구들은 과연 ‘뜨거운’ 구절들이다. 불에 관한 이야기,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훼의 분노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이다. 한 독서는 엘리야를 불 같은 예언자의 형상으로 제시한다. “저는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1열왕 19,14).

이 구절들은 알맞게 선택된 것이다. 이 문장들은 이나시오 성인의 마음과 특성 그리고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면의 움직임을 알게 해준다. 즉 열정의 움직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이 궁중에서 자신의 경력을 향해 애써 추구할 때, 그가 칼 든 사람들 속에서 출세하려고 시도할 때, 참회의 열정이나 맹목적인 열

정’으로 가능한 한 모든 성인들을 능가하려고 할 때, 이 열정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정화되는 그의 열정은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하느님에 대한 열정’에서도 볼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가져오기를 열망할 때, 스스로 순례하는 걸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을 선사하고 목숨을 걸고 페스트 환자들을 돌볼 때, 그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때.

불 같고 열정적인 인간이었던 마틴 루터가 성서를 번역할 때, 라틴어 ‘zelus’ (원뜻은 시기, 질투)의 번역을 처음으로 ‘열정’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연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친절한 질투’, ‘사랑스러운 분노’라는 특이한 뜻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사전 풀이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맹렬한 노력’”으로 되었다고 한다.

누군가 정열적으로 ‘맹렬하게’ 사랑하며 사는 곳에 열정이 있다. 열정은 갈라진 마음을 싫어한다. 열정은 ‘온전히 모두 아니면 하나도 아닌’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열정은 절반을 택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온전히’ 택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다. “네가 차라리 차든지 그렇지 않으면 덤든지 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덤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므로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묵시 3,15-16). 이는 ‘열정적인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들린다.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맥빠짐, 미지근함, 편안함, ‘약한 불 위에 있는 삶’이 불가능하거나 치욕인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이 사랑의 강요를 받으면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다”(2고린 5,14) — 그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타올랐던 것과 같은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루가

한나의 열정

맹목적인 열정

강렬한 열정 / 영혼에 대한 열정
하느님에 대한 열정

12,49-53) 이 성서 구절도 이냐시오 성인 축일 미사의 한 독서에 나온다.

열정이 그러나 얼마나 위험하고 예수님의 열정이 제자들의 불타는 '흥분'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성서의 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방에서 숙소를 찾지 못한 후에 별로 그들에게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다. 예수님의 반응은 짧고 분명하게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서의 다른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너희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교회사와 세계사의 '정당하고', '성스러운 전쟁'이 보여주고 있듯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 안에서 불타는 열의는 광신적인 것, 파괴적인 것, 그리고 악마 같은 것도 지니고 있다.

'하느님과 인간에게 열중하는 자들'의 회심, 즉 '격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사도 26,11 참조) "그것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는"(요한 16,2) 사울과 같은 천성의 회심에는 오래된 내적 성장의 역사가 있다. '분노를 폭발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는 열정적인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사막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1열왕 19,11-12) 소리 안에 ✧ 주님이 계셨다. 하느님은 '고요한 불'이시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 나타나신 경우처럼 불타고 있으나 재가 되지 않는 마음의 가시덤불 속에 계신다.

뜨겁고 조용

영혼들을 돕기

'사제 부족', '신앙의 증발', '냉담', '늘어만 가는 교회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것'이 현재의 독일과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되는 사목적인 상황이다. 이냐시오 성인이 살았던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선교를 불신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즉 교회의 분열이다.

이 시대에 이냐시오 성인은 사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오늘날의 사목을 위한 이냐시오적인 자극도 도출되는가? 초대 예수회원과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던 나달(Jeronimo Nadal) 신부는 초대 동료들의 '사목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에 온전히 헌신할 것과 마음을 다해 이웃 영혼들을 돕는 데 제한없이 전력을 다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강론을 하는 데서, 성서에 관한 강의에서, 영적 대화에서, 영신수련에서, 어린이와 문맹자들의 지도에서, 병자 방문에서, 원조하는 데서 그리고 싸워 갈라진 사람들과 원수들의 화해를 통하여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악습이 없어지도록 돌보아야 했고, 자선행위를 사적인 영역에서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기를 띠게 해야 했다. 그들은 교도소를 방문하고 죄수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돕기로 결심을 했다. 자선행위로 그들은 이웃을 돕기를 원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영적으로 돕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돕기를 원했다. 특별히 그들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자주 받게 하고 기도와 선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보수의 형태인 기금도 회사받아서는 안되었다. 관할 주교의 정식

허가 없이는 그들은 그 일들의 어느 것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달이 명명한 모든 것들은 ‘생각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이나시오 성인의 동료들이 불러졌던 대로 ‘개혁된 사제’의 사목 개념이다. 몇몇의 행동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었다. 이 사목적인 기본 문서에서 그토록 중요하고 눈에 띄게 가치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돌보는 것은 마음의 온전한 갈망으로 자라난다. 이나시오 성인과 성인의 동료들은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현존하는 것보다 더 의미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의욕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 중의 하나를 예수회원 프리드리히 슈페(Friedrich Spee)에게서 볼 수 있다. 마녀 미신에 용감히 대항한 그는 인간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보살피는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친분이 있는 어느 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경의를 다해 저의 증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요, 진실로 이 세상에서 이들 영혼의 지복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찾지 않는 바로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미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찾도록 내가 항상 안내할 수 없다면 나는 중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건강하거나 아프거나간에 저를 필요로 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염려와 기도로 새운 그 밤만큼 그렇게 어둡고 폭풍우치며 심하게 비내리는 혹독한 추위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세주이며 창조주이신 분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려 바치지 못하고 또 귀하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올바른 풀밭과 그리스도의 양우리로 도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밤이 지나 아침이 왔어도 기꺼운 마음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요아킴-프리드리히 리터, 『귀족, 채권자 그리고 시인 후리드리히 슈페(1591-1635)』, 트리어 1977, 157쪽).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육체적으로 보살피는 것도 의미한다. 즉 사제직은 전체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물’의 복음이며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이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지만 단지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개혁된 사제들’은 감옥소로 갔으며, 병원에서 지저분하고 굶은 환자들을 씻어주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구걸했고, 빈민소, 병원, 매춘부를 위한 집들이 세워지도록 진력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기구들이 세워지는 데에 투신하였다. 스스로 절인이었던 이나시오 성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구걸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도록 공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애를 썼다.

영혼의 돌봄은 사제직의 가능성으로 된 넓은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이나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을 사제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이나시오적인’ 보조수단으로 간주했으나, 유일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사제직은 전주민의 모든 계층에,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명성이

있는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실시된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사제직은 '큰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 이냐시오 성인의 친형이 이냐시오 성인을 공적인 장소에서 청중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을 때, 이냐시오 성인이 대답하기를 자신에게는 한 명의 청중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매춘부를 보살피다 실패했을 때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를 구제받지 못할 삶의 상황에서 몇 시간 떼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고 또 각자의 가치를 존중했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쇠도하는 것은 복음의 의미로 기적이 아니다. 사제직에는 '돈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이 원칙은 아마도 이냐시오식 사제직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몸짓에 속한다. 사제직과 돈이 매우 빈번히 파괴적으로 결합되어있던 어느 시기에, 성인이 말했듯이, '가난 안에서 강론하기를' 원했던 이냐시오 성인은 사제직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제직은 교회의 공간 안에서 생겨난다. 이냐시오 성인은 '교회'의 주교들이 그의 사제직을 정통 신앙으로 교회의 법규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항상 노력하였다. 이것은 성인의 '교회와 함께 생각하고 느끼기'에 관한 지침서에서 특별히 분명해졌다.

이냐시오적인 사제직은 항상 길 없는 길을 가는 용기도 지니고 있다. 작은 그룹 안에서의 영적인 대화, 영신수련과 같은 사제직 안에서의 평신도와의 공동작업, 성서를 통한 집중적인 작업...

사제직은 '무엇인가가 문제인 것'을 안다. 그렇다. 모든 것이 문제이다. 구원과 좌절이 문제이고, 의미와 무의미함이 문제이고, 하느님께 가까이 함과 하느님께로부터 멀리함이 문제이고, 인간됨과

비인간성이 문제이다. 예수회의 유명한 선교사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영혼을 도우려는 바람으로 채웠다. 극동 아시아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당장 유럽의 여러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쓰고 있다. "당신들이 그토록 열중하여 연구하고 있는 당신의 학문만큼 사람들과 사람들의 숙명을 위해서도 노력하십시오!"

이냐시오 영성은 인간이 그 핵심이다. 이냐시오 성인에게는 성인의 삶을 움직인 하나의 '큰 열망' 만이 있다. 즉,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과 인간을 도와 그 궁극적인 의미 충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마리아

"신부님, 어쩌면 낭만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성모의 노래인 '바다의 별이시여, 당신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 마리아, 도와주소서!'를 노래하라고 유언장에 써놓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낭만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규칙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는 상인(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이었다는 것은 조금 뜻밖이었다.

이냐시오 성인이 맺고 있는 마리아와의 관계도 놀라게 할지 모른다. 전통적인 마리아 신심에 성인이 가까웠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성모상 앞에서의 기도, 삼종기도, 성모 기념일의 축제, 이것들이 바 스크족 가톨릭 기사한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매우 개인적으로 경탄할 만한 의미심장함을 지녔다. 이 의미심장함을 통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삶과 기도에서 성모 마리아를 얻은 것이다.

성인은 첫번째의 강한 내적 체험을 중병 중에 했다. 성인은 일상

중세기
기독교
대한
때의

적인 꿈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마음에 둔 여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상상했다. 다시 말해서 "그 귀부인이 사는 나라까지 가는 방법이며, 귀부인에게 건넌 말과 찬사의 구절들이며, 그녀를 받들어 쌓아올릴 무훈 따위를 공상해 보는 것이었다"(자서전 39). 어느 날 밤 놀랍게도 아주 다른 여인이 성인에게 나타났다.

↓
시용 26인
귀부인이

대장간
상상

↓

하느님에게서
성모 마리아
의 사랑으로 성인에게

"어느 날 밤 깨어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았다. 이 환시에서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날의 생활 전체, 특히 육에 따른 행실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전에 머리 속에 그리던 모든 상상들이 말끔히 씻겨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자서전 42).

모든 심리적 영적 해석을 제거한다 해도 이냐시오 성인이 육정적인 것을 따르려는 자신의 태도에 그때부터 어떠한 것이 질서지워진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남는다.

이 체험을 한 얼마 후에 성모님에 관한 교의적인 어느 논쟁에서 상대의 가슴을 단점으로 찌르려는 유혹을 느꼈던 사실을 이냐시오

성인 자신은 '겸손, 사랑, 인내'와 같은 '내적 가치에 관한 통찰'이 부족한 영혼의 '무분별'로 표시한다(자서전 46). 얼마 후에 성인은 몽세르라트에 있는 마리아 제단 앞에서 밤을 새웠으나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고, 어느 거지의 옷을 입고 제단에 자신의 칼과 단검을 바쳤다(자서전 49 참조). 이것이 내적 변화의 외적 표시인 것이다. '칼을 쟁기로 만드는 데' 마리아가 성인을 도왔다.

영신수련의 '대장간'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할 때 엄청난 영적 민감함을 나타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

↑
우리의 한 영혼의 26년간의
개량(인간의 마음속)
추종과 파견 • 139

은 특별히 마리아에 관한 성서 밖의 세 가지 묵상에서 뚜렷해진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의 작별, 예수님의 죽음 후에 외롭고 슬픈 여인, 부활 후 첫번째로 어머니 마리아께 나타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전직 장교', '수도회의 창립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냐시오 성인의 온유한 영혼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냐시오 성인은 모든 피정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여주인' 이시며 '우리의 자매' 이신 성모 마리아의 이 '온유함'을 알게 한다. 우리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신수련의 중요한 자리에, 수많은 성서 묵상에 성모 마리아께서 현존하신다.

그러나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이냐시오 성인께서 항상, 특히 묵상 끝에, 기도하는 사람을 '성모 마리아와 담화'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묵상, 속고 그리고 느낌을 여성적인 인간됨의 고운 베일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걸르기'도 하라고 초대한다.

한 가지 비교가 이 사건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생활 문제로 남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 아버지 또는 어머니, 영신수련 남성 지도자 또는 여성 지도자, 남성 치료사 또는 여성 치료사 등의 남성 또는 여성의 어떤 상대와 상세히 논의할 것인가가 분명한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기도를 좀더 마리아에 대한 통찰로 각인시킨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은 좀더 온전히 인간적으로, 좀더 균형잡히게 그리고 동시에 좀더 흥미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 누군가처럼 우리도 영신수련 끝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구경적인
내리 마리아
경의 내

대장간
16년간
영신수련
영신수련
영신수련

- 어머니의 자리가 결핍된 성인이
여인(귀족인)을 상대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애착으로
자기 집은 성인이에게 (세속적인 사랑)
- 화나고 (아기 예수님) 오고 제신 라신은 보며
어머니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여전히 남아 있는 물질적 애착을
성인성의 본능적인 사랑을 관습에
등한
- 진정 성인성의 의미
여성의 정인 인간성의 고요한 마음으로 조용하고 각기 내적
기쁘리라 초대 하신
- 영성수련 자체가 영성이 강함으로 독재
처럼 대를 대와, 아픈 내가 보며
자신의
여성, 어머니와 대를 하는 것은 내면을 풀어나가
나를

십자가와 부활

죽임

다른 선택이 없으면 치아의 신경을 죽이는 것을 삶에 유효한 긴급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행, '금욕하기'는 영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물구나무서기를 해야 하는가?

금욕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 이처럼 오해된 예는 거의 없었다. 이미 '고행'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육체를 적대시하고 세상을 도피하는 듯한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모든 비난을 위한 근거와 권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나시오 성인 자신은 영의 식별이 이 단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가장 좋은 증인이다. 지나친 엄격함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쳤던 그는 한편도 그리스도교적인 희생정신의 가면을 쓰고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행 속에 자신의 의지가 많이 숨어있을 수 있다. 즉, 자기를 반대하는 이에 대한 공격성, 잘못된 업적의 정당화, 그리고 단식과 철야기도 등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느님 체험을 이곳에 강요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 제적인 고행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효과가 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고행에 관하여 이나시오 성인은 말한다. “각자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의지와 이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모든 영신 사정에 있어서는 더욱 진보할 것이라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189).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고행하는 사람은 혼자서 달아나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떨어져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행을 하는 사람은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지, 자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소름이 끼치지만 값진 만화가 있다. 이 삽화는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술취한 사람이 광고탑 주위를 수도 없이 맴돌고 절망하여 소리지른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감금당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맴도는 한 인간의 춤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누군가가 자신이 소심하고 이기적으로 경련하는 자아에 완전히 갇혀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가장 두려운 자기경험에 속하는 것이다. 이 감옥의 벽으로부터 항상 메아리만 울린다. 나, 나, 나! 왜 항상 나인가? 왜 나는 아닌가? 나는 나로부터 떨어져나오지 못한다. 자아는 지옥이며, 격리시키는 고문이며, 상대와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시도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기점이다. 이런 자아의 지옥 안에 고유한 자아와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 이 자유로움을 선사받으면 실제의 구원이 생겨난다. 이것이 상대를 향한 자유로움, 세상을 향한 자유로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유로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도약이다. 자기 자신의 주위를 도는 단순한 회전이 멈추고, 만남이 가능해진다. 척추인 등에 있는 자아와 더불어 앞에 전개된 길에 대한 시야가 자유로워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도약’을, 이 자아 초월

을, 효과있는 고행의 의미를 말씀으로 표현하셨다. “자기의 목숨을 불드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놓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루가 9,24 참조; 요한 12,25).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참된 행복’에서 호소하시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내적인 죽음과 관련되며 삶의 얻음과도 관계가 있다. 가난, 기절, 한계상황들이 반드시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깊은 삶으로, 즉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다.

산상설교 전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신비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또 삶을 바로 자신과 이웃사람을 위해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되살리는 고행에서는 또한 모든 자아경련으로부터, 겁에 질린 자아고착으로부터,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욕망에 고정된 것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상 안에서 지속하는 긴장 속에서 고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불편한 일을 부탁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움직임 안에서, 피곤함에도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우는 가운데, 혹은 과로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베푸는 휴식 안에서, 기도 중에 인내있게 기다리는 시간 중에... 모든 것 안에서 항상 자아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만남과 삶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회원 칼라너는 기도문 하나를 작성했다.

“제가 당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은 저를 떠나셨습니다. 당신께서 제 옆에 계시다면 저는 당신을 찾는 중에 항상 저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자신이 계시실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위하여

‘위하여’가 이나시오의 기본사상을 나타내는 어휘인가? 이 작은 일상적인 단어에 무엇이 숨어있는가?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 핵심적인 의미에 관한 영신수련 책자의 한 곳을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의 강한 진술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참함, 죄스러움, 잔인함, 세계사와 사람의 마음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물이해를 보여준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게 한다.

“답화: 십자가에 못박히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눈 앞에 모시고 그와 서로 이야기할 것이다. 즉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서 현재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되셨는지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엔 다시 내 자신에 눈을 돌려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동할 것이다”(영신수련 53).

“Cur Deus homo? — 왜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에게 선사된 대답이며, 이나시오 성인을 사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경이로움에 빠지게 한 대답이다. “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라는 마틴 루터의 질문에 이나시오 성인은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얻는다.

이나시오 성인에게는 ‘위하여’라는 단어 속에 화해의 사건이 표현되어 있으며 또 현존한다. 성찬의 전례 중에 성변화의 언어 속에는 이 화해의 사건이 마찬가지로 ‘위하여’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위하여 ‘이타존재’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것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신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같이 있는 데에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을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 안에 드러난다.

언어사적으로 ‘위하여’는 ‘앞에’에 기인한다. ‘한걸음 한걸음씩’이라는 속어에 이 근원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이 관계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사람들 대신에 대표로 싸움을 함으로써 해결하기 위하여 양 진영 앞에 선봉장으로 등장하는 구약성서의 장면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대표’는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오래된 해석이다. 개신교 신학자 하인츠 차른트는 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를 이해시키려 한다.

“대만의 타이난 근처에 독특한 기념비 하나가 있다. 이 기념비는 여기에서 수년 전에 인간 사냥을 없애는 데 성공을 한 종족

하느님을 위한 존재 = 예수님
인간을 위한 존재

영주를 추모하는 것이다. 이미 그의 선임자들이 이 끔찍한 일을 권력으로 어느 정도 탄압했다. 그러나 다시 신들의 축제를 크게 하게 되면, 축제를 위하여 사람들은 미리 인간의 신선한 두개골을 잡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족의 남자들은 이 습관을 더 이상 금기사항으로 봐두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주는 그들에게 내일 아침 그들이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남자를 사냥하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들은 그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때려죽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영주였다. 영주는 자신을 대표로 희생하였다. 그가 자신을 헌신한 것에 당황하여 그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인간 사냥을 영원히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사랑의 힘이 법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법률을 능가하는 사랑의 승리를 표시한다. 그리스도의 '이타존재'는 화해를 가져오고 모든 인간적인 공동의 삶을 위한 기초를 가리킨다.

“대표가 뜻하는 바를 우리는 분업되어 있는 사회에서 매일 체험한다. 어느 자매가 환자를 돌보는 것,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하는 것, 어느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는 것, 어느 목사가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 길의 청소부와 쓰레기 수거인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 모든 경우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하인츠 차른트, 『나는 왜 믿는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의 일, 뮌헨 1980, 105쪽).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님의 이타존재는 이나시오 성인을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위한 인간만이 인간이다.

이웃을 위한 인간은, 하느님께서 다른 것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체험에서 접근한다. 이 신앙체험에서 어떤 삶의 느낌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바오로 사도가 쓴 로마서의 한 구절이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거저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8,31-32).

하느님의 아들을 선사받는 체험을 한 이나시오 성인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를 받아들이소서”(영신수련 234).

십자가에 달린 사랑

1세기의 예술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첫째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형은 노예에게 적용되는 형벌로서 저주와 불명예스럽게 죽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들에게 그러한 표현은 아마 지나치게 충격과 오해를 주는 것으로 보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형의 묘사가 아마도 어떤 소년이 돌에 새긴 삽화라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삽화는 하나의 십자가와 당나귀 머리를 한 못박힌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 옆에 설명하는 글이 있다. “알렉사메노스는 자신의 하느님께 기도한다.”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의 충격적인 효과가 뚜렷해진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1고린 1,23-24).

※ 무엇인가에 감정이 상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표시이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성금요일 전례에서 노래로써 잘 표현하고 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네,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네, 십자가 안에 삶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생명과 십자가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시오 성인은 수도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가혹함이 기다리는 여정에서, 오해, 저항, 중상, 대결과 박해를 스스로 가져오는 길에서. 이 입장이 아주 중요하여 이나시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가련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와 같은 불타는 열망을 지원자가 갖지 않았다면, 그 지원자에게 그러한 열망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지를 물을 것이다”(회헌 102). 그러므로 만약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최소한 ‘열망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복음의 길인 영신수련의 여정에서 사람들이 항

상 십자가를 만나도록 한다.

십자가는 자신의 삶과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상징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암흑, 모든 악, 모든 삶의 허구, 모든 허물을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대로를 바라보도록 격려받는다.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혼자 있게 되어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즉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자비와 함께 ‘마치 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하듯이’ 대화를 하도록 초대받았다(영신수련 54).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상황을 흥미를 일으키는 단순한 비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너의 종교적인 삶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단지 꿀벌과 비교해 보아라. 왜냐하면 이 작은 동물은 자신의 병에 대항하는 방법을 꼭 한 가지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을 열망하고 태양의 빛과 온기 안에서 치유를 구한다. 이렇게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태양을 열망하고 그 태양에게 말해야 한다.

‘오 아름다운 내 마음의 태양이여, 그대는 그대 사랑의 빛으로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여기 그대의 빛 안에서 또한 나를 보라! 마음의 죽음을 보라! 그대 사랑의 생기를 주는 온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리고 이 태양 안에서 죽음 자체가 그대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 마음의 마음인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보아라.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그대가 점점 예수님의 유일한 소유가 되기 위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지니고 다녀라.’”

간단한
상징으로
가장
가장
가장
가장

다음은 이나시오 성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태양' 그리고 '우리 마음의 마음' 십자가에 달린 태양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싶어한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어느 곳'은 성공, 감격, 기쁨의 단계를 뜻할 수 있으나, 산상수훈에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영적인 장소와 영혼의 상태도 뜻할 수 있다. 가난, 비폭력, 무기력, 중상 등등. 예수님은 양쪽을 아셨고 또 몸소 체험하셨다. 긍정과 거절, 추종과 박해,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삶의 원천과, 당신의 아빠(Abba)와, 당신의 하느님과 관계가 있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지복'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렇다! 생명을 잃는 데서 생명이 얻어질 수 있다. 올리브산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길은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버림받으셨다고 생각하신 곳에서 가장 심오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인간과 제후한 하느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신다. 구약에서의 무지개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태양이며 화해를 나타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다.

부활하신 분에게서도 예수님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은 볼 수 있게 남아있다. 예수님의 상처는 아물거나 '미용적으로' 덮여있지 않고 빛을 발한다. 흉터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환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현존하신 것을 깨닫는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따르라고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여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준다. 사랑, 사랑의 무조건성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셨고 내려

오지 않으셨다.

이주 단순하게 마더 데레사가 이 사건을 한 번 표현했다. "사랑 하십시오. 아픔을 느낄 때까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하는 것이 아픈 상황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울 때, 나병환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안아줄 때, 관계의 위기 상황을 견딜 때, 짝사랑의 고통에서, 하느님의 '십자가에 달린 태양'도 흐려지는 수많은 신뢰의 그늘에서...

이 사랑이 함께 사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이 사랑은 인간이 실제의 삶을 두려워하여 병적으로 집착하는 고통과 십자가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랑은 동정, 함께 괴로워하는 고통을 가져온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사랑은 이 영적인 증언이 나타내듯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뜻할 수 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리고 기쁨을 예수님의 고통과 완전히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더 적합한 것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착한 목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의 '제동장치'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 사랑의 표현으로써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잘못된 동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조건없는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하나가 된다. "예수, 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렸네."라고 이나시오 성인이 언젠가 쓴 적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가?

혹은 예수님의 삶의 아픔과 함께 사랑하는 것의 아픔을 체험한 이
나시오 성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이든지 이나시오 성인에게는 '십자가의 나무에서
★ 만큼 하느님 사랑의 불을 그렇게 불붙인' 나무가 없다.

주님 안에서

편지가 '당신을 그리며' 나 '마음으로 결합되어' 라는 형식으로 끝
을 맺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이나시오 성인이
수많은 자신의 편지를 '주님 안에서' 를 사용하여 끝을 맺으면 그것
은 무슨 뜻일까? "주님 안에서 행동하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항상 반복되면 이나시오
성인은 어떤 의미로 쓰고 말하는 것일까?

'안'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면적인 결합을 뜻한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음절 또는 단어가 없다. 이것은 이미 순수하
게 공간적으로 통용된다. 사물이 가깝게, 아주 가깝게 나란히 놓일
수 있다. 그렇다. 그것들은 서로 닿을 수 있으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서로 상대의 속에 들어있다면, '안', 이것은
내적 가까움이다. '안'은 외적 접촉이 아닌 내적 접촉이다.

이 단어의 뜻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인간적인 만남에서이다.
친밀한 만남에서 육체상의 가까움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정
말로 좋아' 했다는 것이 있다. '안'은 가장 가까운 것을 표현한다.
이 의미로는 독일어권의 가장 오래된 한 기록에서 — 궁정 가인인
발터 폰 포겔바이데의 사랑의 시에서 — 이르기를, 사랑을 하는 사
람이 자신의 마음의 작은 열쇠를 잃어버렸고, 그의 마음에는 자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이 가까이 있다. 신
앙의 언어 차원에서 '안'의 복음사가는 바오로다. 백 번이 넘게 그
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그로써 자신의
종교 신비주의적인 신앙 체험을 표현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은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가장 내면적인 이 일치의 체험은 신약성서에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비유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결합. 이 '안에 있음'
의 '가장 내면적인' 표현은 영성체에서 나타난다. 먹는 일에서 음
식물 즉 외적인 것은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인간은 인간이 먹
는 그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하느님의 사
랑이다. *You're what you eat*

신앙의 이 사건은 특별히 뚜렷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항상 주어졌
다. 대부분 이것은 친숙한 태도의 베일 밑에 숨어있다. 이것이 말로
표현되면 과도한 사랑의 단어로 표현된다. 아우구스티노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이 사랑에 적합하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오.
그러면 그는 나를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의 이 언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글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 일치시키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장은 성삼위의 영예를 위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
각하고 느낀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인간이 되셨고, 나의 마
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영원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
는 헌신이며 사랑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내 사랑의 방울들

은 들통으로부터 하느님 사랑의 바다로 흐른다. 지금 나는 하느님 사랑의 바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 성부와 성령의 찬미가를 노래한다.”

같은 것을 클라우스 험머레 주교는 언젠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와 어떤 계약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받아들이셔서 나의 얼굴이 당신 안에 있고, 나의 십자가가 당신의 중심부에 세워지고, 내 십자가가 당신의 중심을, 당신의 신적 중심을 가로질러 교차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당신 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뿐만이 아니라 ‘나’도. 당신은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당신 안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을 당신은 나에게 선사하십니다. 이것이 당신께서 나에게 털어놓으신 당신의 비밀입니다. 그토록 선사된 것, 그토록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경건한 공식이 아니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라”는 그것을(새로운 방법을) 위한 가장 짧은 문장이며, ‘주님 안에서’는 가장 간단한 영적 기호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내적으로(아우구스티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는 하느님의 거대한 활동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께서 이 활동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잇닿게 하시며 당신의 고유한 신적인 삶에 끼워넣으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하게 될 때에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느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1코린 15,28).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통치 영역에서 산다는 것이다.

죽음

이냐시오 성인은 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사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결사적인 용기때문에 팜플로나 요새의 가망 없는 방어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병상에서 — 의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 그의 목숨은 몹시 위험하였다. 베드로 성인 축일 밤에 그는 결정적인 위기에 있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였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후에 그는 여행 중 고산지대를 올랐을 때에 자신의 생애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상황들만이 이냐시오 성인에게 죽음을 접하게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내적인 역경의 시기에서 성인은 자살에 직면했었다. 자신의 방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는 심연으로 몸을 던질 뻔했다. 결국 그가 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이 일이 그를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결정에서 떼어놓는다는

자평적인
결정
노는
죽음

VS

라기

죽음, 죽음 공포, 자살(죽음)

것에 대한 깊은 내적 인식이었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나시오 성인의 삶 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나시오 성인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결정내리는 것과 연결시킨 것이다. 성인은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다 음의 질문을 던지라고 권한다. 나는 내 생애 최후의 이 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가? 이나시오 성인은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이른바 될 수 있는 한 커다란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결정내리는 일 하나하나를 삶 전체에, 개인적인 삶의 기본방향에 배열한다. 그는 전체에 대한 통찰이 모든 개별적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초기에 이 관점을 자주 명확하게 장려하였다. 수도승의 책상 위에 있는 해골이 옛 그림에서는 이른바 의무적인 것이었다. 즉 언제나 해골은 그림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영신수련에서는 항상 죽음의 묵상에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 시대는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다. 인간은 죽음 후의 삶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죽음 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더 마음을 쓴다. 환생의 생각을 통해서도 죽음은 최후의 순간에 조금 연기된다.

모든 것 뒤에는 숨겨진 죽음의 공포도 놓여있지 않는가?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한 속박을 받는 두려움과 시간을 꼭 채워야 하고 항상 '안전한 장소'를 가야 한다는 강요 속에서 이 죽음의 공포는 똑 같은 정도로 작용을 하지 않는가? 이나시오 성인은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죽음으로 인한 최후와 유한성에 대한 생각이 현실에 더 적합하고 하느님 마음에 더 드는 '죽음 전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

영생을 넘어서는 문제 / 개인적인 관행 (attachment)
내가 리듬 죽는 내면 / 전능한 사랑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나시오 성인의 마음을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너무나 기뻐서 성인은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성인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바오로가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찬미의 말로 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8,38-39).

성인의 동료들은 그들의 수도회 창립자의 임종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은 말하자면 마치 온 세상이 그를 죽이는 것 같은 죽음을 맞았다. 성인의 전기를 위하여 기록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나 사전도 없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성인의 동료와 형제들은 죽음이 성인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았다. 즉 최후의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얼굴을 맞대는' 직관에 이르는 마지막 행보였다.

이나시오 성인의 후계자인 페드로 아르페 예수회 신부의 말보다 더 적합한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없다. 1965년부터 1983년까지 예수회 총장이었고 이나시오 성인처럼 바스크 사람인 이 신부는 1981년에 전기의 회고 끝부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예견을 적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흔히 매우 두려워하는 죽음은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즉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

는 사건이다 ... 죽음에 뜻하는 바는 주님의 품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죽음에 뜻하는 바는 사람들이 일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실은 발포된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 21). 죽음에 뜻하는 바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하여 희망과 믿음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다(1고린 13, 8 참조). ... 나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가 되기를, 내 삶의 마지막 아멘이 되기를, 내 영원함의 첫번째 알렐루야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루페 신부는 이 말을 쓴 바로 후에, 필리핀에 갔다가 귀국길에 뇌졸중에 걸렸다. 위대하고, 살아있으며, 영성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은사와 주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8년간을 '말없이'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은 일본 예수회원 순교자들의 사망일인 1991년 2월 5일에 죽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중심부에서 조금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원자폭탄 투하를 체험했던 사람에게 좋은 사망일이다. 그의 사망 사진에 인쇄된 — 이것은 1983년에 아루페 신부가 한 말이다 — 자기 증언은 주님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종전보다 많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느낀다. 내 전생애에서, 소년시절부터,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구별이 있다. 오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계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의 손안에서 알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느끼는 것

은 하나의 매우 깊은 체험이라는 것이다."

눈물

노쇠한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 마취를 하지 않고 — 심하게 다친 다리를 새로 부러뜨리고 후에 뼈를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당할 때에 신음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을 붙들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후에 언젠가 한 동료가 성인의 수도복에 무엇인가를 달 때에 실수로 바늘로 이냐시오 성인의 귀를 꿰뚫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은 내 귀를 튼튼히 꿰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이냐시오 성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는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눈물이 많은 남자였다! 하루에 여러 번 그는 울었다. 그리고 그가 두세 번 울지 않는 미사는 '건조'했다. 성무일도 경본에 나오는 시편 구절들이 그를 매우 감동시켜서 그는 거의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내적으로 체험한 하느님의 실재와 접촉을 기억나게 하는 말을 하면 그는 가까스로 자제할 수 있었던 일이 대화 중에도 생길 수 있었다.

왜 이냐시오 성인은 울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거의 조잡한 일이다. 그리고 눈물은 동기에 따라 화학적으로 다르게 복합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분석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냐시오 성인 자신이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일기장에 "눈물을 흘림 ... 눈물을 안 흘림 ... 그리고 나서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림..."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어쩌면 질문이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다. 자, 한번 더 이냐시오 성인이 왜 울었는가를 물어보자.

육신의 고통
은 안한
눈물만 흘림

이나시오 성인은 후회의 눈물을 안다. 성인은 영신 수련자를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와 눈물을 청하도록 분명하게 초대한다. 이 눈물은 굳어지고 동결된 마음을 녹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찢어진 마음과 이기주의와 불감증에 의해서 얼어붙은 느낌이 후회의 고통 속에서 녹아 흐른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후회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한 악과 고통을 내면으로부터 동감하는 능력이다. 이로써 새롭고 다르게 만나는 방법이 가능하다. 막스 쉐러는 후회를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부른다.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눈물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성인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싶어하고 울 수 있기도 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탄식하시고 우신다면 이나시오 성인은 감동하지 않은 채 차갑게 그 옆에 서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은 고통의 눈물 그 이상의 위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체험된 위로는 대부분 눈물이 마르게 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지복의 눈물을 더욱더 잘 안다. 사람들이 단지 기뻐서 울 수 있는 감사, 즉 선사받은 느낌이 있다. 이러한 눈물은 값진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이 자신의 일기장에서 이 눈물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성인이 영신수련 책자에서 하루를 뒤돌아보는 것을 위해 충고한 대로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눈물은 이나시오 성인에게 내면의 증명으로써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인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을 때면 자신이 성령과 일치하여 결정하고 살았는지를 내적으로 느끼고자 했다. 눈물의 선물이 성인에게는 그 일을 위한 하나의 표시였다.

모든 것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이 위로의 눈물과 자유로운 관계를

가졌다. 그뿐이라! 하사품인 눈물은 고갈되고 자신은 점점 더 깊게 애정이 깊은 공경심과 겸손으로 가득 차기를 그는 청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한 성인은 기꺼이 선사받은 은사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장교이며 기사이며 훌륭한 창립자인 이나시오 성인은 잘 우는 사람이었다. 성인은 자주 다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망의 물은 나를 씻어주소서..." 기도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한 접촉 중에 성인의 영혼은 부드러워지고 활발해졌다.

사 랑

이나시오 성인은 어느 동료의 판단에 의하면 '온전히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하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진술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사부께서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 안에서 어떻게 상반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한 사람에게에는 엄격함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엄청난 부드러움을.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것이 치료법이었음을 항상 깨닫는다. 그러나 항상 그는 사랑에 더욱 치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심해서 그는 온전히 사랑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사부로부

체험된 위로
(Experienced Comfort)

모든이가 사랑 복려
종교관 사랑
11월

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루이스 콘살베스 다 카마라, 비망록, 『우리의 사부 이냐시오 성인에 대한 추억』,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1988, 45쪽).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놔두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약속이 자신 안에 다르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레 31,3).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찬미에로 이끄시게”(영신수련 15) 놔두는 것이다. 사랑은 선사받는다는 특징을, ‘사랑의 무보수’를 이냐시오 성인은 항상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한다. 대략 그런 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 있다. “모든 선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양을 생각할 것이며, ... 마치 태양에서 광선이 내려오고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영신수련 237).

이 무보수의, 위로부터 선사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은 분명하게 말한다.

“사랑이란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 데 있는 것이니 즉 사랑하는 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랑받는 이에게 선사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알려주며, 사랑받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편에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안 가진 편에 알려줄 것이며, 명예나 재산을 가질 경우에도 서로서로 그렇게 할 것이다”(영신수련 231).

어떤 만남에서 즉 동반자 관계에서 사랑이 성공하는 경우는 단지

The success of love in a meeting,
namely in a partnership is when it comes from
the interaction that love gives and is given.

사랑이 선사하고 선사받는 상호 작용 안에서 생길 때이다. ★

이 선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건이다. 사람들이 항상 주는 것인 꽃, 시간, 에너지, 지식, 돈은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다. 하느님의 은총도 “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영신수련 234) 말하기를 원한다. 만남에 대한 바람이 더 이상 선물의 동기와 배경이 아니라면 선물은 좋지 않은 사랑의 대용품이 된다. 죄의식으로 어린 이들에게 선물이 지나치게 쌓이게 한다면 어린이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다”(1요한 3,18). 이냐시오 성인은 같은 것을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231)라는 문장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히 사랑스러운, 좋은 말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선사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리로 남는 것은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Bonum est concretum” 즉 “선은 구체적이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다. 사랑은 구체적이다.

사랑의 구체성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은 사랑은 항상 수고를 하게 하고 긴장을 요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라, 고통이 있을 때까지.”라고 마더 테레사가 말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순수함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는데”(요한 3,16), 사랑하는 것의 고통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반해 있음과 사랑의 차이도 있다. 사랑은 단지 호의이며 선물이며 황홀일 뿐만이 아니라 예술이기도 하다. 사랑은 매일 매일의 수고와 관심과 고려와 인내와 포기과 실제로 자유롭게 놓아

Love is concrete
specific
detail

들을 요한다. 여기에 'discreta caritas' 즉 현명하게 분별있는 사랑인 이나시오적인 사랑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의미에서 사랑은 눈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실재를 보게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눈멀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주의이며 집착이다. 두려움의 문턱을 극복하고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흔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사랑은 산고를 지니고 있다. 오로지 산고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온전히' 사랑이 될 수 있다.

현신의 기도

인간의 삶을 말로써 요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있는 게 있다. 유언장, 설명문, 머리말, 신앙고백, 끝맺음말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개인적인 것은 아마 기도의 형식 안에서 생긴다. 그러한 기도는 단지 하나의 문장 즉 영신수련 책자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나시오 성인의 삶의 역동성을 요약한 것으로 성인의 현신의 기도, 즉 'Suscipe'이다. 이는 영신수련 책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영신수련 234)에 들어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대항
opposition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른바 이나시오 성인의 영적 맥박을 느낀다. 이 이해에 많은 것이 대항할 수 있다. 이 기도에 대한 다음의 진술들이 이를 보여준다. “나는 지나친 요구를 받은 느낌이 든다!” “내 지력의 현신은 내가 정신병원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어야 하는가?” “나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부터 곧바로 더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현신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도가 청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현신의 기도는 또한 청원기도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독단적으로 하느님을 사귀려고 애쓰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성인은 하느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자신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성인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말의 형식을 고른다. 곧 그것은 청원이다.

이 청원은 보편적이며 근원적이고 인격적인 자기 제공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물질적 소유와 정신적이며 영적인 능력을 포용한다. 전체에서 '약간' 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온전히 주기 때문에 근원적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것과 저것만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선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격적이다. 모든 것이 봉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도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로가 되고 고무적이다. 수많은 질문과 싸움과 곤경과 의심을 거쳐서 그러

한 끊임없는 기도, 이나시오 성인의 삶의 기도가 되었다.

이 삶의 기도는 내적 그리고 외적인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올린다.

이것은 창조 노래의 울림을 지닐 수 있고, 창조 전체가 계속되는 받아들임과 줌, 즉 받고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없애는 준비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교부 예로니모의 감동적인 체험 안에서 이것이 표현되어 있다. 여든 살이 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선물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그가 내적으로 알아들은 말씀은 '나에게 너의 죄를 다오!' 였다. 그때 그는 울었다. ... 이나시오 성인이 항상 자신의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로부터 압도되어 울듯이 그렇게 울었다.

현신의 기도는 추종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여우처럼 잠잘 동굴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조건없는 사랑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터무니없게 울릴 수도 있고 추종의 여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랑은 때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니콜라우스 폰 플뤼에의 유명한 짧은 기도가 이 영을 토해내고 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께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게서 거두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께 가는데 나를 지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게서 나를 거두어 나를 온전히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이 현신의 기도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거두소서..."라는 거창한 말이 하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인 은혜에 대한, 즉 "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영신수련 234) 하느님 자신의 현신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까닭에 기도 끝에 있는 "터무니없는" 청원을 이해할 수 있다.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죽나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접한 사람들은 말한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말한다. 메리 워드는 같은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하느님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인류에게 내어주신 하느님의 관점에서 온갖 정성이 담긴 현신의 기도를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현신의 기도'와 '청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오 사람아, 받아다오.

내 자유를. 나는 너로부터 우롱당하고 사슬에 맞고 십자가에 박혀있다.

내 기억을. 나는 너의 역사와 너와 함께 하는 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내 지력을. 구원을 위하여 나는 너에게 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사한다.

나의 모든 의지를.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길과 잘못된 길에서 너를 쫓아간다.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창조 전체를 나의 결혼 선물로 받아다오.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네 의향대로 처리하라. 자유롭게 네 열망대로 살고 용감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청해라. 오 사람아, 나에게 너의 모든 사랑을 다오. 이것이 내게 족하다!"

하느님과 친교

성인들의 특징과 영성의 차이에 관해 어느 한 형제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형제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알려주었다.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와는 반대로 이냐시오 성인에게는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친자 관계와 인간이 그분의 자식임에 관한 상상은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이냐시오 성인은 특히 하느님의 '존엄'과 하느님의 한 없이 크심, 영광과 권세를 명백히 제시한다. 이 하느님을, 즉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인간이 경외심과 끝없는 경탄으로 만난다. 그분 앞에서 인간은 '황홀경에 빠진 먼지'이다. ⁴⁴

이냐시오 성인이 때때로 하느님과의 가족적인 관계, 즉 "하느님과의 친밀함"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더 놀라운 일로 보일 것이다. 자서전의 끝부분처럼 하느님과의 이 친교가 그렇게 분명하게 된 곳은 없다. 거기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동료 형제인 곤살베스 신부에게 설명한다. "그의(성인의) 기도는 점점 더 진보하였다고 한다. 즉 하느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쉬움을 뜻한다. 그리고 이 교제는 지금이 자신의 전생애의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다고 했다. 항상 그리고 매시각에, 그가 하느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때에, 그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자서전 99).

여기에서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하느님과의 교제가 투명하

게 비춰 보이지 않는가? 항상 열린 귀가, 열린 문이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 옆에서 고향을 느낀다. 그의 가까운 영적 친척인 메리 워드처럼 그는 '하느님께 가는 통로'의 은총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자유로운 교제에 관한 것이 영신수련의 '담화'에로의 초대에서 나타난다. "담화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또는 종이 자기 상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영신수련 54). 이냐시오 성인은 인간이 바로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대로 열린 채로 놓아둔다. "비천하고 무뢰한 중"(영신수련 114)이나 친구 이상으로, '하느님과의 친구 관계,'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 매우 값진 것이었던 이 말은 이냐시오 성인에게도 하느님과 관계를 갖는 방법이다.

이 초대에서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불손하고, 무분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하느님이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닌가? '하느님의 죽음'에 관한 말을 알아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날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느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가족적인 친교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형제 자매임을 발견한 것은 선사된 하느님의 예상을 위한 증거 아닌가? 교회를 점점 더 '하느님의 가정'으로 체험하려는 갈망이 커지고 있지 않는가? 가정이란 초기 공동체를 체험하고 아는 아주 초기의 단순한 성서적인 방법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마르 3,35).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느님에게 어린아이답고 친밀한 신뢰의 단어 'Abba', 즉 '아빠'로 말을 건다.

하느님의 가정에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색상과 명암이 있다. 어른들의 종교적인 예의범절 책인 크니게의 규정에서 맴돌며 친밀함과 사랑을 찾는 아이들, 신랑과 신부의 사랑하는 관계, '하인과 하녀'의 충성과 신뢰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정의 선물과 성장도 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는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요한 15,15).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밀착된 친밀을 항상 주지시켰다. 그러나 성인과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오히려 친숙함이 있다. 하느님의 곁이 성인에게는 집이었다. 성인은 알고 있었다. 여기에 나는 나 자신으로서 있어도 된다. 여기에서는 대결이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여기에서 나는 하느님 사랑의 끝없는 긍정 속에서 살고 있다. 성인은 자기 방식대로 물었다. "선생님,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대답을 들었다. "와서 보시오!" 이냐시오 성인은 '문'을, 그리스도를, 자유로운 통로를 통과하여 하느님의 집으로 갔다.

성령 안에서의 삶

영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면 '탄내가 나는' 상황, 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그러한 탄내 나는 상황이 피게로아 총대리신부와 이냐시오 성인의 대화 중에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이단 사설이라도 찾아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피게로아는 답변하였다.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을 찾아냈더라면 당신네들을 벌써 화형에 처했을 것이요." 순례자는 말했다. "그자들이 만일 당신에게서 이단을 찾아낸다면 당신도 가차없이 화형에 처할 것입니다"(자서전 91).

말과 대답 자체로는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아스러운 상황'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이냐시오 성인이 도미니코회원과 나눈 다른 대화에서 분명해진다.

"당신들은 배운 것도 없으면서 덕행과 악덕을 논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논하자면 두 길 중에 하나요. 학식에 의해

서거나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거나 말시오. 그러니까 학식이 아니라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되오. 바로 이 성령에 관한 것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례자는 잠시 얼떨떨해졌다. 그런 논조가 자기한테 이로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자서전 99).

이나시오 성인의 자서전인 『순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대화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나시오 성인 시대에는 빛뿐만이 아니라 현혹의 빛과 어두움을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 이른바 ‘계명파,’ ‘Alumbrados’ 들이 많이 있었다.

이나시오 성인은 후에 자신의 수도원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영의 식별’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매우 총명하고 흠잡을 데 없는 어느 동료의 말하기를, 자신은 성령으로 인해 바오로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오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수장이고, 교도권은 베드로로부터 전해졌지만 자신은 바오로로부터 교도권을 전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상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양보가 전혀 없던 이 억지 주장의 결과는 바로 그의 퇴회였다. ‘성령과의 문제’는 자신의 새와 성령의 비둘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의 배경을 보면 이나시오 성인이 성령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과 편지, 그리고 다른 글에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고 있다. 이나시오 성인이 이끄는 대화들은

명확하게 ‘영적인 대화’로 특징지워진다. 이 대화에서 성인 자신과 그 참가자들은 활발하게 살아있다. 그는 비록 작은 성과일지라도 항상 영적인 동반을 스스로 추구하였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질문은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질문이다. 그의 영신수련 책자는 오로지 ‘영적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의 식별’은 넓은 공간을 갖는 것이고 또 항상 성인을 동반하는 사건이다. 성인의 삶의 실제적인 원동력은 ‘검손, 사랑, 인내’의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 바로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맺는 ‘영의 열매들’이다. 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삶 안에서 영이 활동하도록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

성령께서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은 영신수련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은 영,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영, 교회에 생명을 주는 영 그리고 모든 개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은 다 같은 영이다(영신수련 365 참조).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은 자기 자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성령에 관한 이나시오식 ‘가르침’은 보편적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광신적으로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자신의 성령을 강요하면서 다른 이에게 현존하는 성령을 부인하는 오류와 극단성으로부터 이 보편성을 보호했다. 이나시오 성인은 성령을 다원적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느님의 영이 같은 일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각기 다른 것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보았다. 영은 각기 다른 여러 갈래의 길을 이끈다!

예수회원 칼 라너는 여러 다른 길을 이끄는 성령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어두운 시간에게까지도 어떻게 현존하는지를 언급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으면서도 그분의 침묵하는 용서를 당연히 받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의무였기 때문이었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뜻으로 불리는 모든 신비에 가득한 것, 침묵하는 것, 파악할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는가? ...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는 곳에서, 전적으로 홀로 서서 어느 누구도 도와 줄 수도 없는 결단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양심의 가장 내면에서 오는 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가? ... 감사와 이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우리를 보고 헌신적이다거나 정숙하다는 등등의 생각조차 갖지 않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는 좋게 대한 적이 있는가? ... 우리에게 일어난 바로 그 고유한 체험을 우리는 찾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영의 체험을 한 것이다. 영원의 체험, 즉 영은 시간으로 제한받는 한 쪽밖에 안되는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체험, ... 거기서부터 본래적인 영적 인간 안에 그리고 성인들 안에 어떤 본래적인 열정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칼 라너, 신학 논총 3권, 아인지델른 1956, 106-107쪽).

주님 안의 벗들

‘주님 안의 벗들’이라는 말은 이냐시오 성인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다. 이냐시오 성인이 지도한 영신수련을

통해서 개개인 모두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을 선사한 하느님의 우정과 사랑을 그의 동료들이 알게 되면서 ‘주님 안에서의 우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었다.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이 우정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즉 서로를 향한 우정이 자라났다. 초대 동료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시몬 로드리게스는 그것에 관하여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 각자가 독자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 이 생활방식에 자신을 바칠 결심을 한 후에야 비로소 이 생활방식에 온전히 몸을 바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친구’라는 말의 원천에 상호의 어떤 관계, 즉 서로의 매력과 공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의 공동 소속감의 ‘원리와 기초’는 예수님을 향한, 즉 봉사를 위한 공동의 소속감으로, 이러한 삶으로 그들은 그들의 소명과 그들 공동의 영적 삶의 방향을 느꼈다. ✕

이냐시오 성인의 말년 때의 비서인 후안 데 폴랑코는 공동의 삶이 이 기초 위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동료들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두번째 방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다양한 의사 소통이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서로에 대한 호의를 갖고 식사를 같이 하며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에서 서로 편이 되어주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의는 그리스

도 안에서 커갔다. 또한 이러한 만남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게 도움을 주었다. 특정한 분야에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은 그 분야에 재능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왔다.”

파리와 베니스에서 지내던 삶을 이나시오적 ‘초기 공동체’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사도 2,45)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즉 음식, 영적인 보화, 길, 위험, 적대적인 태도를 받는 것, 예루살렘으로의 순례, 사도가 되려는 의지를 공동으로 소유했고 서로 나누었다.

함께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의 벗들’은 단순한 수도 공동체가 되는 것과는 분명 다른 형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함께함의 기초는 언제나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었다. 이것이 왜 그들이 스스로 ‘예수회’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를 알려준다.

수련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하여 이나시오적 ‘초기 공동체’의 체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야 했다. 편지를 쓰도록 격려하는 것, 서로 ‘형제애다운 충고’를 하도록 초대하는 것, 기도, 공동의 일, 그리고 생활규범의 도움과 명확하게 손질된 공동 행동양식의 도움 등을 통하여 동료들은 주님 안에서 우정의 선물을 계속 전하고자 하였다.

이나시오식 공동체는 강한 내적 긴장을 지니고 있다. 그 공동체는 ‘파견 속에 있는 공동체’이며 그러한 공동체로 지속되고자 한다. 봉사와 공동체는 언제나 쉽게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회 공동체는 ‘사도의 공동체’로, 즉 따로따로 파견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긴장들은 한 가정 안에 살고 있

으면서 동시에 직업을 갖고 있거나 영적 공동체 또는 본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다. ‘다 타버렸음’이라는 영성적인 유행어가 있다. 이 말은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활동주의로 인해 주님께 향한 우정과 인간들 사이의 우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복음에서는 우정과 봉사를 함께 보고 있다. 즉 우정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요한 15,15). 우정은 개방을 통하여, 즉 서로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성장한다.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묶어주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요한 17,22).

‘주님 안의 벗들’에게, 즉 전체 ‘예수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또 파견하시려고 당신께로 부르셨다”(마르 3,13-14 참조).

의사소통

주교들과 신학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 동안 매일 저녁 소그룹을 통해 자신들의 친교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이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가했던 그의 동료들에게 1546년에 위탁한 바로 그것을 행한 것일 것이다. 이 사실은 성인을 존경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나

1480
- 563
300개 편지
1480
가인성경
성경262

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그 유명한 영신수련 책자의 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대가이기도 하다.

이나시오 성인의 이 탁월함을 나타내는 가장 인상깊고 가장 빈틈 없는 기록은 그의 「행동을 위한 지침」 즉 그가 트리엔트 공의회를 위해 라이네즈, 살메론 그리고 여러 신부들에게 준 의사소통을 위한 그의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심장함 때문에 편지 전문을 인용하겠다.

† Jhs 행동을 위한 요점

1. 구원과 영적 진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귄 때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듯이, 그와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러한 대화에서 우리 쪽이나 또는 양쪽 모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말할 때에, 특히 그것이 공의회에서 다루지고 있거나 앞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천천히, 신중히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3. 저는 천천히 말하고 경청할 때에 배울 바를 찾을 것이며, 그 때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또 그것에 대해 더 잘 대답하거나 더 잘 침묵하기 위하여 내적으로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4. 같은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5. 신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라도, 심지어 고위층 사람들이라면 더 더욱 그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또 특정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6. 토의사항에 대해 침묵을 할 수 없거나 침묵을 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될 수 있는 한 침착하고 겸허하게 말하고, 더욱더 나은 판단을 따르겠다는 표현을 곁들여서 끝맺어야 합니다.

7. 끝으로 습득된 것 또는 생득된 것들(스콜라 철학은 은총에 의한 생득적인 것과 인간의 힘에 의한 습득적인 것을 구별한다.—역자 주)에 대해 제대로 대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시간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로 인해 시간이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여하에 의하지 않고, 하느님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도록 그 사람의 필요와 방식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유익합니다.

서로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날 일어난 일과 그 다음날에 목표로 세워야 할 일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저녁에 한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처리된 것과 처리할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투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한 형제는 좋게 드러나는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이 진보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의 충고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충고를 듣는 사람은 자신이 비판받는 그 점에 대해 변호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다음 사람이 마찬가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서로 더 큰 사랑과 이웃들의 호평을 얻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도울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지속하십시오.

아침에 결심을 하고 하루에 두 번 양심성찰을 하십시오!

이 지시를 트리엔트 도착 이후 5일 이내에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올라의 이나시오, 위로와 훈계. 영적 편지, 후고 라너 편집, 파울 임호프 개정, 취리히 1989, 89-91 쪽에서 인용).

이나시오 성인한테는 모든 단어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 이나시오 성인에게서 항상 이를 기억해야 한다 — 이 편지는 짧게 요약된 이론이며 동시에 이나시오식 의사소통의 실천 안내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뜻한다.

- 교제하는 방법은 신앙을 계속 전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 깨어있음과 조심성, 주의력과 성령의 도우심은 의사소통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이다.

- 듣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것에 우위가 있다. 우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도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 만약에 들을 수 없으면 그는 단순한 '확성기' 이거나 단순히 반향하는 메아리일 뿐이다.

- 면담할 때에는 생각이, 즉 객관적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의 세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고, 끝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본래의 전달사항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내적 자유와 편안함에 주의를 두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왜곡하여 인지한다. 이것은 마치 출렁이는 수면에 모든 것들이 부

서져서 반영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자신의 의견이나 단순히 자기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또 더욱 나은 선(善)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주의깊게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나시오 성인은 규칙만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지시도 함께 주고 있다. 매일 저녁 세 명의 동료는 스스로 질문과 응답을 해야 한다. 각자 아침에 그날의 만남들을 대비해야 하고 자신이 대화할 때와 강연할 때에 어떠하였는가를 하루 두 번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물어야 한다.

의사소통에 관한 이나시오식 기술에 대해 말할 것이 많다. 급격히 성장하는 예수회 안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편지 작성에 관한 그의 지침에 대해, '형제적인 훈계'에 대한 지시와 그를 위한 중요한 전제에 대하여, 상대방의 고유한 특징을 주의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비범한 그의 고유한 능력에 대해, 이 모든 것과 다른 많은 지시들이 대부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나시오 영성의 보화에 속한다.

이 만남의 기술을 이나시오 성인은 분명히 궁중에서 받은 교육을 통하여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은 그가 작은 모임들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대화와 영신수련에서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배웠다. 영신수련 책자의 '일러두기'는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하는 잘 알려진 글이다.

"영신수련을 지도하는 이나 그것을 행하는 이의 더욱 큰 이익과 진보를 위하여 미리 알아둘 것은, 선량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누구나 다 남의 의견을 처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살리는 데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22).

개성적인 인식,
그의 느낌,
이해?

대화를 위한 얼마나 대단한 전조인가!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받는 사람에게 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영적 만남 안에서 서로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적인 신뢰가 모든 대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즉 반대를 증명할 때까지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나시오식 영신수련의 기술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 안에서 그 자체가 완전한 통공인 분과 함께 점점 더 깊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영신수련이다.

공동식별

제비뽑기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결정을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열두 사도 중에서 마티아를 나중에 뽑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 추첨은 마티아와 '의로운 사람'인 요셉 중에서 이루어졌다(사도 1, 15-26 참조). 초기 공동체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알고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도회의라고 할 수 있다. 기도 안에서, 자유로운 진술 안에서, 특히 바오로와 베드로의 심한 의견 대립 안에서, '현장 검증'에서, 그리고 이교도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을 때 그들에게 유다교를 거치는 '우회로'를 규정하지 않기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결정내렸다. "성령과 우리는 결정했다..."(사도 15, 28)는 짙막한 표현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협동과 공동결정의 형식을 항상 찾고 있는 의사소통의 사회인 우리 사회 안에서, 또한 '통공'으로서, 남매와 같은 교회로서 깊이 이

해되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식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질문이 점점 더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 이나시오 성인과 초기 동료들이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결정하는 문화를 훌륭하게 잘 가꾸었으며, 1983년에 있었던 예수회 제33차 총회가 그 문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나시오 성인의 (공동식별의) 사도적인 방법론을 점진적으로 새로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적인 공동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영적 전제조건들이 벗 가지 있다.

- 우선적으로 때때로 힘이 들기도 한 그러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적인 이 모임에서 결정과정이 성령 안에서 함께 영위하는 '정상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음에야, 공동결정을 의미있게 실행하는 심리적 · 영적 전제조건들이 주어진다. 모임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체험되지 않고, 생기있는 그리스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지체'로 체험된 다음에야 공동으로 결정내리는 일이 힘든 일임에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 공동결정의 복합적인 차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즉, 객관적인 설명의 차원, 정보의 차원, 참석자의 능력의 차원이 있다. 편애, 꺼림, 공포, 두려움, 희망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

또 모임의 여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는 신뢰, 힘, 감화, 편을 갈라서는 것 등의 문제가 그 역할을 한다.

사안에 영향을 주는 식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 구조적 차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차원에서는 개개인과

모임의 출발점이 되는 원동력, 힘, 그리고 동기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나와서, 하느님께 대한 더욱 큰 봉사와 찬미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다시 점검된다.

- ★ - 참석하는 모든 이는 판단력, 명확하게 말하는 능력, 동의와 반대할 줄 아는 능력을 알맞게 지니고 있어야 하거나 점점 더 발전시키도록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 고정된 생각들, 완고함, 공격성, 무관심이 이 모임이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리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체적이며 영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사건들, 내적인 움직임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개방성과 관심이(골로 1,12-20 참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나시오적인 식별을 단계적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데에는 정확하고 완성된 조직을 따르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요소들과 친숙해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알맞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시오 성인과 그 동료들이 단순히 체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식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단순한 대화, 일하면서 하루종일 공동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관하여 저녁에 서로 나누기, 고요와 고독 속으로 돌아가기, 여러 가지 다른 선택들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 등이었다.

공동체의 영적인 식별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매일매일 '사랑이 깃들인 관심의 기도'를 잘 드리는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외적인 사건들, 내적인 움직임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가 서로 뒤섞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2. 모임의 마지막에 평가하는 훈련. 이 훈련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이고 영적인 절차의 의미를 증가시킨다. 이 훈련은 흔히 다음의 단순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임의 주제 내지는 관심사가 나에게 어떠하였는가? 나에게 공동체는 어떠하였는가? 나에게 내 자신은 어떠하였는가?

3. 때때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공동 평가. 이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공동식별 과정에 있어서 모범이 된다.

4. 청청하는 연습. 이는 능숙하게 말하지 못하는 참석자에게 기회를 주어 값진 기여를 할 수 있는 훈련이다.

5.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살아가는 것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가는 성장 체험.

6. 공동결정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찾고 신중하게 서로 찬반의 논점을, 즉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으는 훈련. 이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위하여 논점을 찾는 것뿐 아니라 다른 선택 가능성에 대해 찬반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선입견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7. 식별과정 중에 있을 때에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이 기도 시간에 적합한 것은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 '결과'를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 자신을 내적으로 '무질서한 애착', 완고한 생각 그리고 무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듣기-식별하기-대답하기'의 모형

결정하기가 간단함에도 까다로운 모형은 기본 단계로 듣기-식별하기-대답하기로 정리될 수 있다(보기-판단하기-행동하기 모형 참조).

듣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개인이나 모임

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답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질문만 해야 한다.

식별의 단계는 들은 것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소화시키는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생긴다. 이 단계는 마찬가지로 조용히 숙고하고 자취를 더듬어가는 시간 중에 준비된다. 여기에서는 결정적인 관점, 평가, 경향, 역동성에 대한 해명이 중요하며 또한 예수님의 복음에 상반되거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청하는 모임에서 모두가 자신들의 몫을 해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침묵 중에 '소화'하고 대답을 위한 요소들을 찾는다. 이를 다시금 경청하는 모임에서 나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대답이 특별히 중요한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는 침묵 중에 그들이 가졌던 대화를 한번 더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에 인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결정내리는 단순한 기본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에 나타나는 유명한 두 가지의 결정이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은 꿈에서 세 번 어떤 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들은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대사제 엘리의 목소리인지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식별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대답한다(1사무 3,1-18 참조).

마리아는 천사의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천사의 말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식별하면서 묻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작용하도록 응답한다(루가 1,26-38 참조). 이런 의미에서 '듣기-식별하기-대답하기'는 하느님

의 뜻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찾는 기본 단계이다.

사랑의 내적 법칙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중에서도 특히 초기 공동체는 유다의 율법학자 가블리엘을 공동체의 수호자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도들이 재판받으러 의회에 끌려나갔을 때에 가블리엘은 사도들의 석방을 위해 변호를 했다. 그의 결정적인 신학적인 논증은 이러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할 것이고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혹시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도 5,38-39).

가블리엘의 '공동체 신학'은 소박하다. 실제로 하느님의 작품, 즉 'Opus Dei'인 공동체는 하느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이나시오 성인과 초기 예수회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회 회헌의 첫번째 문장은 바로 이러하다.

"예수회가 생기게 허락했듯이 이 비천한 예수회를 성스러운 봉사 안에서 지켜주고, 안내해 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한없는 지혜와 자비이다"(회헌 134).

하느님의 성령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법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와야 하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피조물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

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고 이성과 성인들의 모범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회칙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회헌 134).

회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내적 법칙’(internal lex caritatis)이다.

“성령께서 마음에 써주시고 새겨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내적 법칙이 어떤 외적인 회칙보다 더 도움을 주어야 한다”(회헌 134).

‘사랑과 자비의 법칙’은 ‘회헌’ 전체의 영혼이다. 마음의 힘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이 사랑의 전조 없이는 규칙과 규범은 단지 죽은 골격일 뿐이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단순한 율법이 될 것이다.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고린 3,6). 예수께서는 성서의 살아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여 ...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르 12,30-31).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예로서 도로교통법 제1조를 들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조항은 모든 운전자는 어느 누구도 위협을 받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다른 모든 규칙의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교통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 비상시에 이 조항은 다른 모든 조항들을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행권(先行權)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선행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로

마에서 어느 택시 운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로마에서는 규칙을 따라 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상황에 맞추어 운전한다고 한다. 실제로 규칙은 단 한 개만 있다고 한다. 즉, 길 위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위로 차를 몰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옳다는 말이 통용됨에도 불구하고 규칙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규칙들은 체험을 모은 것이며 목적지로 가는 여정의 보조수단이다. 규칙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순수한 발전을 위한 새로움이 보호되어야 하는 시금석이다.

공동체에 관한 이나시오식 ‘회헌 작성 이론’을 주시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 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느님의 성령, 사랑의 내적 법칙 그리고 외적인 회헌은 ‘공동체의 화음’을 만들어낸다. 여러 해 동안 이나시오 성인은 이 작곡을 했다. 작곡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낯설고 ‘시대 감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것은 걸작품이다.

교회와 함께 느끼기*

회심을 한 후 이나시오 성인은 일년 동안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가위와 빗을 갖고 그의 머리로 달려들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때때로 그의 머리를 알맞게 이발하곤 한다. 비교적 나중에 출판된 영신수련 책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직감력을 얻기 위한 규칙”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싸우는 교회’ 즉 ‘ecclesia militan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싸우는 교회’

* 라틴어로는 sentire cum ecclesia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독일어 번역은 Fühlen mit der Kirche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느낀다’라는 단어인데 라틴어에서 이 단어는 느낌의 차원뿐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역자 주.

는 늦어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오히려 '봉사하는' 교회로 불린다. 이는 영적인 진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몸소 박해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아직 싸우고 도전을 받는 교회이며 이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야 할 것이다(요한 15,20 참조).

☆ '교회와 함께 느끼기' 라는 이냐시오의 기본 어휘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시대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는 표어를 만들어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 교회'와 '아래로부터의 교회'를 구별함으로써 교회가 머무르는 곳을 지키려고 한다. 이냐시오 성인과 그의 수도회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꼬리표가 붙어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일을 하였으며 교회가 명령만 하면 하얀 것을 검다고 그리고 검은 것을 하얗다고 여기는 것을 가르쳤다."

☆ 이러한 이냐시오 성인이 '오늘날의 교회에 관한 신념'과 관련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시대의 특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과 여러 가지 관점과 공적인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시대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직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교회와 함께' 올바르게 '느끼기'를 배우기 위한 그의 지침 중에서 아직 가치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 교회적으로 생각함이 교회와 함께 느끼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감'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동감'은 다른 사람의 체험과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런 의미로 로마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2,15). 이냐시오 성인의 첫번째 지시는 교회와 함께, 교회 전체와 함께 느끼는 것과 교회의 근심, 관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다. (C.74 B.1)

Sympathy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교회의 고유한 미래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분명히 이냐시오 성인은 자기 교향의 전통과 관습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중 만레사에서 자신의 '초기 교회' 시대를 체험했다. 그 당시 그는 신앙과 복음 그리고 교회의 본질,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본질을 실존적이며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냐시오 성인이 교회를 위해 사용한 상징어인 '그리스도의 진실한 정배'와 '성모'라는 단어들은 모든 이에게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누군가는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 '예수의 제자 공동체', '하느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의 상징어가 더 마음에 든다고 느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경험되고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서, 즉 기쁜 소식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자세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아홉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냐시오 성인의 '교회 규칙'은 "찬미하라..."로 시작된다. 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는 많은 독자들에게는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감사하는 마음의 기초가 없이는 누구든지 동반관계의 생활이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의식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 그리고 함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의 공동체를 위해 한 공간을 갖는 것은 충분한 것이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교회 비판을 하며 사는 것이다. 비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인 사랑과 포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개혁,

the true worship of Christ

즉 거듭남을 항상 필요로 하는 교회에는 사랑의 비판이 요구된다. 이나시오 성인은 사랑의 비판을 알고 있었고 또 사랑의 비판을 연습했다. 이 비판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비판은 자기가 비판받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기 비판으로 시작한다.

비판은 많이 경청하고, 또한 경청할 때에 '나중에 더 잘 대답하거나 더 잘 침묵하기 위하여' 배울 것을 찾는 '신중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나시오 성인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석한 자신의 동료 세 명에게 지시했다.

비판은 능률적인 비판이다. 사람들은 "장상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다른 장상에게 말해야"(영신수련 362)한다.

비판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비판이다. 이나시오 성인과 그의 동료들은 'preti reformati' 즉 개혁사제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혁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였고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판은 '눈치 빠른 비판'이다. 이나시오 성인 자신은 이미 결정된 것을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앞서서 막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비판은 솔직하고 단호한 비판이어야 한다. 이나시오 성인에 관한 절정을 이루는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다. 성인 자신은 설사 교황님과 황제께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도 그분들 앞에서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신은 감히 하느님의 심판을 받으려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교황님과 황제께서 옳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나시오 성인은 말한다.

비판은 고통을 받는다. 교회 비판이란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와 연결되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나시오 성인은 아홉 번이나 교회 법정에 섰었다. 그는 교회 주변에 있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 이상을 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대화 능력을 넓혀나간다는 뜻이다. 이나시오 성인이 트리엔트 공의회에 가는 동료들에게 준 규칙만큼 이것이 분명한 데는 아무데도 없다. 성인은 동료들에게 그들이 공의회 참석자들과 대화할 때에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대해 매일 저녁 서로 나누도록 시켰다 이로써 의사소통에 큰 소득이 있었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 활동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나시오 성인이 오로지 강조하는 것은 창조사업에서, 십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인생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은 같은 영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이 견해는 넓은 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소위 흑백도식은 자연히 그리스도교적 사고를 완전히 기죽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도식은 또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관점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복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눈은 '목수의 아들'을 보나, 신앙은 다음의 사실을 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반자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벗들'이란 이나시오 성인의 초기 동료들이 자칭한 것으로 이는 그들 서

Peer
Supervision

로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소속감이 그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작은 것에서도 또 큰 것에서도 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와 함께 진실로 느끼는 것'도 성장한다.

the end justify the means

목적—수단

“여러 사안들이 목표로 하는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처럼 그는 앞서갔다. 그리고 그를 위해 매우 다양하고 낯선 수단들을 모두 다 찾아냈다.”

이나시오 성인과 여러 해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낸 루이스 곤살베스 다 카마라 신부는 자신의 경탄과 놀라움을 숨김없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에서 그는 목적과 수단, 즉 길과 목적지의 관계에 대한 성인의 뛰어난 직감력을 체험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핵심적인 글은 수도원이나 사도직 조직에 대한 지침서에 들어있지 않고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편에 들어있다. 기본적인 이 글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상세히 인용해야 하겠다.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그 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지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녀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목적으로
더욱 잘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영신수련 23)

이 기본적인 글은 이나시오 영성의 목적 지향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지니고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비교하면 이나시오식으로 생각하고 쓰는 방법상의 독특함이 여기에 나타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여러 글들을 한 편의 시로 시작한다. 그는 그 시의 구절들을 인간의 내적인 길을 향해서 설명을 한다.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는 반면에 자신의 영신수련 책자를 방법적인 일러두기로 즉 ‘원리와 기초’ 편에서 하느님의 ‘논리’로 짧게 요약해서 시작한다. ‘목적의 진술’은 거의 논리학 교과서에 근거를 두었다. ‘…을 위하여 …따라서 …그러므로 …목적으로 더욱더 인도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클르는 양식의 차이점은 또한 영성의 서로 다른 강조점을 나타낸다. 이나시오 성인한테 목적, 수단 그리고 방법은 중요한 영적 사고의 범주이다. '원리와 기초'의 내용을 보면 이나시오 성인은 무미건조한, 이른바 '기하학적'인 유형의 성인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뚜렷해진다. 이나시오 성인은 인간이 참미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인간적인 삶의 의미가 채워진다고 본다.

그 이상의 것을 이 기본적인 글이 가리키고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목적으로 가는 도중에 거짓말과 영적 술책과 같은 부당하고 나쁜 수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금지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직면해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태연하고' 무관심할 수는 없다. '거룩한 목적'이 속된 수단을 결코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물론 이나시오 성인이 알고 있는 명확하고 특정한 의미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성스럽게 한다. 모든 것은 인간의 영원한 목적을 지향할 때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얻는다. 부귀나 가난, 건강이나 질병 등은 단순히 그 자체 안에서 의미가 있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지향하고 실현하는 것 안에서야 의미가 있는지 또 '목표로 안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이 난다. 인간은 부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 또는 자신의 부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 과로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중병 중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하느님께 마지막 신뢰를 두고 응답할 수 있다.

이나시오 성인이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자연적인 수단과 초자연적인 수단을 구별한다. 이로써 그는 특히 사랑, 겸손, 인내로 깨어있음과 기도 그리고 인간의 '보통' 수단으로서 관계, 기술, 전문지식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나시오 성인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수단이 우위를 차지하지 만, 성인은 다른 한편으로 모든 '자연적인' 수단을 매우 많이 끼워 넣는다. 시도되지 않거나 숙고되지 않은 수단이 그에게는 없었고 또 그는 모든 수단에 대해 숙고하고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이나시오 성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허락했다. 그의 조처가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로마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는 이미 못을 박았다." 이 말이 뜻하고자 하는 바는 잘 박힌 못이 안전하게 박혀있듯이 이나시오 성인이 한번 분발하여 시작하고 끝까지 이끈 일은 매우 확실하고 오래간다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은 '세상의 자녀들'의 영리함과 '빛의 자녀들'의 지혜로움을 결합시키는 시도를 했다. 그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한 세상 안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속해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목적과 수단의 결합은 이나시오 성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의도의 진지함을 성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목적을 향한 의지는 수단에 대한 의지만큼 진지하다. 한 젊은이가 등산과 관계된 영화를 본 후에 산꼭대기의 체험에 취해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직 많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등산 장비를 위해 저축하기 시작하고 등산 연습을 하고 체력을 단련한다면, 즉 '수단'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목적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나시오 성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께 그리고 이웃을 도울 때에 진심으로 대했다. 언젠가 한번 그는 추기경과 면담할 수 있을 때까지 14시간을 추기경의 방 앞에서 기다렸다. 또 언젠가 한번은 그는 자신의 고해신부가 스스로의 삶의 역사를 더 많이 인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충고백을 했었다. 또한 그는 로마에 있는 독일 신학원(독일 신학생들과 헝가리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 역자 주)이

자연적 : 사랑, 기쁨, 겸손, 인내
초자연적 : 사랑, 기쁨, 인내

지원을 수단으로 내놓았다
내가 "도움"을
Master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자신은 팔려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일화들은 얼마든지 더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내놓았다. 그는 하느님 사랑의 중보자(仲保者)이며 중개자인 예수님과 성부께로 가는 길을 염두에 두고 이를 행했다.

우리의 행동양식

이냐시오의 영성을 표현하는 많은 어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어휘들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양식'(noster modus procedendi)이라는 표현이다. 페드로 아루페 총장 신부가 비로소 이 어휘를 다시 의식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행동양식'이라는 표어에/고유한 양식을 지니는 이냐시오 성인과 초기 예수회원들의 의식이 표현되어 나타난다. 양식사의 매시기마다 음악에서부터 건축예술과 의사소통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삶의 분야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처럼, 이냐시오적 양식은 자기 이해, 삶의 형태 그리고 복음선포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이냐시오적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그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델'이다. 그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앞장서서 가는 방법'이다. 이 출발에서부터 그 밖의 순전히 조직적이며 전술상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냐시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기도의 정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생긴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너는 이미 '그에 대해' 기도했는가?"가 '행동양식'(modus procedendi)을 위한 이냐시오적 인 질문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이냐시오적 양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냐시오

의 행동양식은 매우 현실적이며 세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식 양식은 매우 '유통성'이 있기도 하다. 스스로 변하고, 항상 움직이며, 역사를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항상 새로이 답변하는 방법과 항상 새로운 '위치'와 불변의 영적 기동성이 필요하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은 항상 새로이 결정을 내리는 일에 직면한다. 여기에서 이냐시오의 행동양식이 특별히 분명해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이냐시오 성인은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결정을 위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그에 도움이 되는 영신수련을 지시할 수 있다. 집단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대 예수회원의 '공동식별', 이른바 'deliberatio communitaria'의 방법을 제안한다. 수많은 양자택일, 우선권, '더욱더 좋은 것'을 찾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찬성과 반대하는 중요한 모든 관점을 저울질하는 것은 이냐시오적 식별의 핵심 부분에 속한다.

이냐시오 성인은 의사소통 양식도 그만큼 중요시했다. 그것에 관한 충분한 관찰 원칙과 견해는 공의회 참석과 같은 중요하고 특별한 과제를 받은 동료들을 위한 지시에 들어있다. 똑같은 정도로 편지 쓰기를 위한 조언에도 들어있다. 특히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과 애정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이냐시오 성인은 만남의 기본으로 여겼다. 고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길잡이에서뿐만 아니라 매우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양식 안에서도 영신수련의 효과가 있다고 확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특징은 행동양식의 보편성이다. 초기 예수회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사도직과 개별적인 영성지도를 위하여,

단순한 사람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거지와 자선가를 위하여, 평신도와 성직자를 위하여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보편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개개인이 이 긴장의 폭 전체를 자신 안에서 충분히 참고 견뎌야 했다. 그때에 그들이 힘들고 긴장이 있는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행동양식'이 예수님의 방법에 상응했다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었다. 그 이상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경험

"경험은 어리석게 만든다!" 이 문장은 몇 년 전 예수회원의 강론에서 나온 말로 귀를 기울이게 했다. 특히 이 말은 인식론과 논리학 교수가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공공연한 선동이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은 총명하게 만든다'는 진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강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경험을 항상 새로운 경험에 내맡기지 않으면 경험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 오늘의 혁명가가 내일의 전통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제의 인식이 내일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 경험이 역동적인 경험이면, 즉 항상 새롭게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 경험은 경험을 하게 하고, 총명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나시오 성인은 경험의 인간이었다. 그는 인간 세상과 '하느님의 나라'를 돌아다니는 학생이었다. 성인은 하느님의 학교에서 자신을 어리석은 학생으로 드러내었고 자신을 위하여 배우의 원칙,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우기' (learning by trial and error)를 세웠다. 이미 처음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고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실수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 배우는 것을 시작할 필요가 전

인식론: 만다라트, 인식론이란 것이, 창립 원리 (이성과 영혼)

논리:

→ 그것이 구성과 유언과 분석과

분석과 종합과

경험: 자신이 실재하는 것이므로

지식이나 기능

(산파법)

성령 안에서의 삶 • 201

혀 없다. 배우는 매우 많은 겸손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시간이 필요한 존재이며 배우는 존재이다. 인간은 항상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시간, 자기 비판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한다.

체험이 경험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체험의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은 아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체험들이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반영되고 평가를 받아야 경험이 겨우 자란다. 그러한 경험들은, 삶의 경험들은 삶이 경과됨에 따라 인간이 지혜롭게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혜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알맞게, 세련되게,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시오 성인한테서 예수회 총장이 될 자격은 경험인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을 책임져야 할' 총장이 스스로 '사변적인 일'에 조예가 깊다면 분명히 좋은 일 것이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한테 더 중요시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내적이며 영적이고 외적인 움직임과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다(회헌 729).

특히 인간 조건, 시대 그리고 상황의 다양성은 단순한 원리로 일하고 추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지 경험을 통해서만이 원리와 구체적인 현실성이 서로 중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하면서 얻은 민감한 분별력만이 상대편 대담자로부터 차라리 물러나거나 또는 아주 분명하게 '구멍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 적절한지를 말해준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체험과 느낌에서 배우는 것 없이 단지 느낌과 체험만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론만 주장하는 공론가이다. 이나시오 성인과 마틴 루터가 항상 정반대의 사람으로 묘사되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경험의 가치 평가에서는 일치한다. 이나시오 성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루터의 진술에 동의를 했을 것이다.

대담자 경험에 뒤처진 것이 이론적인 것

“독일 속담에, 젊은 의사에 대해 말하길, 그는 새로운 교회 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젊은 판사에 대해 말하길, 그는 모든 것을 싸움과 연루시킨다고 하고, 젊은 신학자에 대해 말하길, 그는 지옥을 영혼들로 가득 채운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충명하게 만드는 경험 없이 모든 것을 그들의 율법과 규칙대로 마무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고 오류를 범한다.”

☆ 경험만이 영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이냐시오 성인은 강조한다. ‘영적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 경험이 없는 삶을 위한 어떤 신앙의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충명

두 명의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담배 피우는 악습에 빠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예수회원이었다. 그들은 성무일도 시간 중에도 담배 없이는 견디지를 못했다. 그때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서 자신들의 장상에게 문의를 했다. 한 수도자는 ‘기도할 때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는 질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수회원은 그와 반대로 승낙을 받았다.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는 단지 담배를 피울 때에 ‘기도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예수회원은 ‘약삭빠른 젊은이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것은 그래도 우호적인 표현이다. 예수회원을 외교적으로, 위선적으로, 닳고

닳은 사람으로, 교활한 사람으로 특징지우는 경우도 있다.

이 좋고 나쁜 평판의 시작에도 이냐시오 성인이 서 있다. 성인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느 추기경은, 하느님의 교회는 ‘가장 충명한 두뇌’를 잃었다고 이야기했다. 충명함은 사실 이냐시오 성인의 두드러지는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의 충명함은 어디에서나 드러났으며 성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알아챌 수 있었다.

- 모든 것에서 ‘바른 척도’를 고려했을 때.
- 항상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옳은 시점을 기다렸을 때.
- 자주 말하는 것처럼 ‘하룻밤을 자면서 그것을 차분히 생각’해 보기를 원했을 때.
- 여러 충고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항상 다시 면밀히 검토했을 때.
- pro와 contra, 즉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찬반의 관점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의 다른 선택 가능성을 보았을 때.
- 목적과 수단이 서로 상충하는지를 항상 다시 새로 검토했을 때.
- 영향력이 큰 남녀와 다양한 관계를 맺었을 때.
- 항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결정을 맡기고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위하여 내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시도했을 때.
-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게 하거나 낭독하게 했을 때.
- 극도의 주의력을 갖고 경청하고 ‘경청하면서 배울 것을 찾았을 때’.

이냐시오 성인의 충명함과 사려 깊은 행동양식은 적절하고 힘있게 진술하는 간결한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 "항상 유용한 것은 자신에게 최상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것이다."
- "좋은 모든 것이 똑같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지 말라."
- "좋은 것이 아직 매우 작다고 해서 미래에 더 큰 것으로 얻기 위해 뒤로 미루면 안된다."
-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를 베어서는 안된다."
- "악습 때문에 좋은 것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 ★ - "부분을 구하기 위하여 전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 ☆ - 아마도 총명한 말 가운데에 가장 총명한 것은 다음의 말이다.
"사람들에게 그 총명함이 지나칠 수도 있다. 너무나 총명한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못한다." 훌륭한 일들을 측량해보건대, 이나시오 성인은 총명했지 지나치게 총명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이나시오 성인이 어디로부터 이 총명함을 갖게 되었는가를 물을지도 모른다. 그의 총명함은 건강한 인간 이해, 궁중에서의 훌륭한 교육, 여러 대학교에서의 학업, '세상' 사람들과의 잦은 교제,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 등 여러 가지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성인 자신이 놀라운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작은 카르도벨 강을 내려다볼 때에 유명한 신비적 체험이 그에게 이성과 영적인 삶과 신앙의 진리에 관한 많은 사물의 인식과 인간적인 지식을 선사했다(자서전 61). 이는 그때까지의 전생애를 통해 얻은 지식 이상이었다.

어쩌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왜 이나시오 성인이 과제를 받아 들일 때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전적으

로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 모든 인간적인 총명함을 포기' 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성인 자신은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더라도 우선 하느님께로 피난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일을 감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총명함을 총명함 그 자체 때문에 가꾸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는 데에 그리고 사랑에 봉사하는 데에 총명함을 사용하였다. '분별있는 사랑' 즉 'discreta caritas' 라고 총명함은 불린다. 또한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총명함은 애정이 깊다.

★ 하느님의 사랑을 분별

건전한 판단

"눈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어두울까!"(마태 6,22-23 참조) 인간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준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마태 7,3 참조) 왜곡된 안경은 모든 것을 잘못 인지하게 한다.

눈의 수정체가 구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판단 능력도 구부러질 수 있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나시오 성인이 간주한 다른 것은 거의 없다. 이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는 정신병들을 그는 수도원 입회의 장애로 간주한다. 현실과 인간 그리고 상황을 거꾸로 인지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거꾸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재능이 사장되고 만다. 그런 연후 적당하지 않은 시기에 따르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팀이 조직된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총명함과 건전한 판단을 높이 평가하는 명확한 표현을 하였다. 데레사 성녀가 '오직' 총명한 고해신부님과 '단순히' 경건한 고해신부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성녀는 총명한 신부님을 선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예를 잘못 제시했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데레사 성녀의 진술은 아무튼 분명하다. 사람을 교제하는 데 있어 '건전한 판단 능력'은 필요한 것이다. 건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는 마치 적절하지 않게 진단하고 엉뚱한 약을 투약하는 의사와 같다. 극심한 경우에 이는 죽음으로 끝난다.

어떻게 인간이 건전한 판단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에 대해 예수회의 회헌에서 첫 번째로 건전한 판단 능력은 성령의 선물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말한다. 건전한 판단에 이르는 길이 '몇 가지의 길잡이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성인이 부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냐시오 답지 않은 것이다. 건전한 판단 능력은 '하느님의 은총이 가져다주는 작용을 돕고 준비' 한다고 볼 수 있다(회헌 414).

건전한 판단을 위한 어떤 길잡이와 도움이 있을까? 이냐시오 성인한테 있어서 그것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이미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고향의 환경에서 장려된 소질.
- ✧ - 항상 '식별'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을 배워 집중적 지속적으로 이끈 훌륭한 학업.
- ✧ - 특히 삶의 현실 안에서의 인간 경험.
- 여러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충고.
- ✧ - 세부적인 것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전체에 대한 통찰.
- ✧ - 한 가지 일에 대한 찬반의 모든 이유들을 포괄.
- '주변 상황', 인격 그리고 그 특성의 고려.

- 목적과 수단이 서로 상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상응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이냐시오 영성에 있어서 건전한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현실과 이해의 은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마음이 부여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가 주어졌다.

인간은 생각하는 단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전한 판단은 교육받지 않은 단순한 직관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직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직관에 대한 어느 비평가는 심술궂게 정의를 내렸다. " '직관'이란 일순간에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다."

단련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않을까?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겸손하게 제시해야 하고, 또 더욱 나은 전문가의 판단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스스로 과실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끔 끝을 맺어야 한다고 이냐시오 성인은 분명하게 경고한다.

사정에 따라

예수회, 즉 Societas Jesu의 약자 SJ를 다소간 이지적이면서도 이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SJ를 '약삭빠른 젊은이들' (Schlaue Jungs)의 약자로 재치있게 바꿔보는 것이 가장 혼하다. 이냐시오 영성을 많이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SJ = '사정에 따

르는 제도'(System Je-nachdem)라는 등식이다.

예수회 회헌,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 그리고 직접 말하는 표현에 '사정에 따라'(je-nachdem)라는 표현이 백 번이나 들어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람들은 이것이나 저것을 이렇게 혹은 다르게 사람, 사정, 상황, 시간에 따라 그것이 좋고, 어울리고,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등으로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심장한 이냐시오적 기본 어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첫번째로 그것을 이냐시오 성인의 초기 전기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궁중에 사는 사람은 가지각색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는 어떤 귀족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를, 외교적인 좌석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모든 전제공격에, 적의 모든 갑작스러운 출격과 공격에 반응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적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전술을 항상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군인이다.

이냐시오 성인처럼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지방, 사람들, 풍속, 관습, 습관의 다양성에 감수성이 있게 된다. 사람은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가 단순히 이방인으로, 즉 웃음만 짓는 관광객이나 서투른 관광객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식사 습관이나 그 밖의 생활 습관이 요구하는 대로 처신해야 한다.

궁중에서 그리고 순례자로서 겪은 경험의 배경은 이냐시오 성인이 '세상을 능숙하게' 사는 데 그리고 방향이 전환된 인생의 예술인이 되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사정에 따라'의 본래적인 근원은 훨씬 더 깊은 데에 놓여있다. 그리스도의 강생에, 육화에, 즉 하느님 사랑의 육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강생'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인간의 지상의 삶을 명백히 제시한다. 부유한 사람

과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과 태어나는 사람, 흑인과 백인, 모든 인간적인 입장과 상황 안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선사된다. 하느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셨다.

이 사랑에 사로잡히고, 이 사랑으로 완전히 형성된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바오로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느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1고린 9,21-23).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 머물러 지배를 하시면”(1고린 15,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업이 완성된다.

이냐시오 성인은 성 바오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냐시오 성인의 친구들은 같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독일의 두번째 사도'인 베드로 카니시우스에 대해 프라하의 신학원 원장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인 은총을 소유한다.” 마테오 리치나 아담 살 같은 중국에서의 예수회원들은 그들의 시대를 살려고 시도했

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토착화'라 불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중국식으로 낯선 생각에 적응된 나머지 참신앙을 배반하게 한다는 걱정은 이 '신앙의 실험'을 중지시켰다.

분명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나친 적응이나 단순히 외적인 적응의 위험, 신앙의 토착화라는 이유로 신앙 행위에 속하는 출애굽을 망각하는 위험, 즉 익숙한 것에서 빠져 나온 것을 잊는 위험이 있다.

병법과 외교술에서 이 '사정에 따라'라는 의미는 변절될 수도 있고 상황과 인격을 잘못 평가하는 것을 막지도 못한다. 이 말은 그러나 복음의 길을 가리킨다. 인간에 이르는 길과 그리스도 강생의 길, 신앙을 쇄신하는 길, 즉 이는 신앙을 '현대화'하고 '현재화'하는 길을 뜻한다. 특히 이는 이냐시오 성인에게 매우 귀하고 근본이 된 길을 가리킨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척도

"수사님, 극단의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느 외국인 사제가 자신의 젊은 동료들에게 하는 이 경고는 세련된 독일어는 아니었으나 매우 이냐시오적인 표현이었다. 이냐시오 성인은 건전하지 않은 극단성을 결코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절도를 지니고 있는 절제있는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냐시오 성인은 눈멀비가 있어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배웠다.

격렬하고 열정적인 그의 생동감이 사랑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때까지 그는 혹독한 경험을 많이 겪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를

충고할 수 있기 전에는 그는 극단적인 생활로 인해 자신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후에 예수회의 3대 총장이었던 보르하의 프란치스코 공작에게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이 공작이 금식과 철야와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몸이 약해졌을 때에 이냐시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안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초보자는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인식한 사람이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전도서 14,5) ...게으름과 과도한 열성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관심사를 영적 지도자와 논의하십시오..."

이냐시오 성인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앙 깊은 어리석음'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이런저런 신앙 깊은 어리석음을 자신들의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극복하고 은총 속에서 성장하는데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특히 시작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이에게는 총명한 절제의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이냐시오 서한 155).

'중용'이란 말은 처세술을 위한 오래된 말이다. 고대 이래 미덕이, 즉 인간적인 처세의 노련함이 양극단의 중심으로 여겨왔다. 예를 들어 용감함은 비겁함과 만용의 사이에, 분수를 지키는 것은 과장과 과소 사이에 있다. 미덕은 극단의 부덕에서 좋은 것들을 결합한다. 용감함은 용감함 자체가 비겁함의 조심성과 만용의 용기를 결합한다. 미덕은 항상 두 개의 극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삶에 긴장

을 안겨준다.

비슷하게 보는 방법이 철학적·신학적 진술 판단을 위한 스콜라적 기준에도 놓여있다. “peccat per excessum, peccat per defectum”, 즉 “사색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하거나 빠뜨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학에서 인간과 인간의 자울을 절대시하거나 반대로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느님 은총의 작용만을 보는 것이다.

과장하거나 빠뜨리는 것을 바로 보는 기준은 진리와 이데올로기를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것은 어떠한 사고가 현실의 어떤 면을 절대시하거나 완전히 빠뜨림으로써 허구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진리는 전체이다”(헤겔).

이런 의미에서 절도의 미덕은 ‘전형적인 가톨릭적인 면모’이다. 가톨릭적이란 ‘전체에 상응한다’는 뜻이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소비주의, 전체주의, 인종 차별주의,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진리의 절대화이다. 이것들은 모든 극단주의처럼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생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무절제는 자신을 파괴하는 힘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자신을 ‘모든 것의’ 유일한 ‘척도’로 만들어 자기 존재의 바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간은 더 이상 ‘알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욕망과 병적 습관은 방종의 원천이고 또한 그렇게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들은 인간 안에는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즉 무한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절제로 인해 인간이 비인간적으로 되면 인간은 인간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확히 종교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자신의 피조성을, 즉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이 된다. 인간적인 한계의 지나침을 ‘너무’라는 작은 단어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은 없다.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너무 크다, 너무 작다, 너무 두껍다, 너무 가늘다, 너무 넓다, 너무 좁다,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너무 달다, 너무 쓰다,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너무...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자신의 척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적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는 각자가 선사받은 은총에 따라 살아야 하고 공동체 전체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절도는 그러나 분명히 그 위험을 숨겨둘 수도 있다. ‘적당히’, ‘오직 중간’은 가운데를 단순한 평균으로 보는 단어이다. 이는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미지근함’과 비교될 수 있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묵시 3,15-16). 반대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확고히 본질적인 것으로 머무르는 한 ‘근원적인 중심’은 미지근한 중간과는 구별된다. 중용에서는 양극단 사이의 긴장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약하지 않은 부드러움, 딱딱하지 않은 힘, 남성다움을 보완하는 여성다움, 여성적인 것을 막지 않는 남성다움...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잠시 동안만 중용을 알아차린다. 우리 마음에 있지만 볼 수 없는 이 중심선을 우리가 넘어서는 경우라도 그렇다.

이나시오 영성에서 이야기되는 적절함은 짐작하건대 이나시오 영성의 이 ‘척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흥미롭게도 여류 작가 루이제 린저는 이나시오 성인과 관련해서 ‘성스러운 척도’, ‘계곡 위에 놓여있는 난간 없는 좁은 다리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인생의

과제, 심취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교회의 교부들은 성령이 주시는 '절제된 심취'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척도를 지닌 절도 있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채워진 '열정적인' 인간이었다.

보편성

“보편적일수록 더 신적이다!”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미도 이냐시오 성인이 살았던 시기가 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지구 전체적으로, 세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주적인 것으로 특별히 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냐시오 성인은 1491년에 태어난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주 대륙을 발견한다. 1521년에 이냐시오 성인은 회심을 한다. 1522년에 범선이 처음으로 지구를 한바퀴 도는 항해를 끝내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가져다 준다. 이에 대한 반영이 영신수련의 '그리스도의 강생에 관한 관상'에 나타난다. “어떻게 삼위 천주께서 사람으로 가득 찬 온 지구의 표면을 내려다보시는지... 관상하라”(영신수련 102).

어쩌면 보편적인 행군이 이냐시오 성인의 궁중 생활 경력을 통해서 그의 삶 안에 들어왔다. 귀족 청소년과 젊은 장교로서 그는 '크고 넓은 세계의 향내'가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결국 이냐시오의 영성은 이냐시오 성인이 모든 실재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충만이시며 원천이시다.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콜로사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1, 15-17).

이냐시오 성인은 주님께 대한 봉사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교회의 머리”(골로 1,18)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편적인 과제를 주신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6).

예수께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을 항상 부르고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자신 안에서 느낀다. “보편적일수록 더 신적이다.”

영성에서 보편적인 차원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편성을 결정짓는 것은 가정 방문의 횟수나 접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만남의 영적인 질이다. 내가 한 사람을 마주 보고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화살기도로 자리에 없는 100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물론 보편성은 마음을 더 넓히는 것도 말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1항).

‘이냐시오식 기도’에서 기도의 장소는 세상, 정치, 죽어가는 나

무들,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는 것은 의외로 영신수련 책자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생에 관한 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의복이나 행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 꿇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니, 그중에는 흰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검은 옷 입은 사람도 있으며, 평화 중에 있는 이도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이도 있으며, 또 우는 이도 있고 웃는 이도 있으며, 건강한 이도 있고 병든 이도 있으며,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음을 상상의 눈으로 볼 것이다”(영신수련 106).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그는 사랑하는 하느님과 함께 “서로 치고 죽이는”(영신수련 108)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삼위의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인류의 구속사업을 이룩합니다”(영신수련 107). 함께 바라보고 함께 피로 위하여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이 느낀 바에 따라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본받도록’(영신수련 109) 초대받았다. 포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청하기를 원하게 된다. “주님, 제 사랑이 점점 더 보편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과 수고

젊은 예수회원들을 교육하는 어느 신학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공동 휴게실의 개수대 위에 붙여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바라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보아라!”

함께 일하자고 재치있게 초대하는 이 말은 일에 대한 이나시오식 이해의 정곡을 찌른다. 이것은 일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신비주의적인 시선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땅 위의 모든 피조물 안에 일하시고 수고하시는지 생각할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무생물, 생물, 식물, 곡물, 가축 따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감각케 하심으로써, 마치 일꾼처럼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에 반영해 볼 것이다”(영신수련 236).

이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조명된 빛 안에서 나타난다. 이 놀라운 견해는 이나시오 성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째, 사랑은 말에서 보다 행동에 있어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230). 과묵한 바스크 사람이며 행동의 사나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하여 근사한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러나 위급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치운다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일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사랑하면서 일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성적, 신학적, 정신사적 혁명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일에는 짐, 저주, 구제받지 못함의 ‘냄새’

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언어에서, 예를 들어 라틴어 'Labor' 에서처럼, 일과 고난이 같은 단어이거나 아주 유사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르만어에서는 '심한 육체노동에 고용된 아이와 고아가 된 아이'가, 슬라브어에서는 '부역하다'(robota)와 '로보트'가 관계가 있다. 어디에나 저주받은 경작지, 출산의 노고 그리고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벌어야 하는 빵에 관한 성서적인 단어가 시종일관 깜빡이고 있다(창세 3,19 참조). 고대에서 육체노동은 노예의 일로 평가절하되었다. 학문과 예술과 관직과 같은 '자유로운' 일과는 구별되었다.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범주 안에서 일에 대한 재평가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적지 않은 수가 노예였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없으며 노예와 자유인도... 없습니다."(갈라 3,28)라는 구원의 말씀이 신분과 직업의 종류와 여러 가지 활동 범주의 차별을 상대화하기도 했다.

베네딕도식의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는 베네딕도 성인의 방법으로 일과 기도를 긍정적으로 결합시켰다. 중세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도 일을 높이 평가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 깊은 관상 중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즉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나중의 이냐시오 성인의 견해와 똑같은 '독일 신비주의'의 견해였다.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이냐시오 성인은 인간의 모든 일을 고상하고 성화된 것으로 여겼다. 모든 작용은 하느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되었다.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과 인간의 창조를 창조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하느님의 일꾼'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시킨다. 랍비와 선생님이로 불리는 그는 처음 오랜 세월 동안 장인인 목수였다. 그는 일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

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다. "또 나와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직하는 등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와 같이 수고한 만큼 다음에 나와 같이 승리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영신수련 93).

가난은 예수회원에게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빈 서원을 위한 영적 지침들에 있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단지 우리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인간은 'workaholic' 즉 일에 지나치게 욕망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도원 회헌에서 '영적 육체적 노고의 절제'를 권한다(회헌 822). 때로는 동료들이 이냐시오 성인이 평안함을 발견한 것을 모범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곤살베스 카마라 신부의 일기장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부께서 휴식 중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부께 배려해 드려야 하는 것이다... 사부께서는 하느님을 아주 신뢰하시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계시고 그분의 휴식은 예수회 전체를 유지하고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의 신비와 주일의 신비가 함께 전체를 이루고 있다.

행동

"나는 내가 한 것만을 믿는다." 이 말로 꿈의, 흥분의, 그리고 이미 깨어져버린 세계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어떤 어린 소녀의 편지를 읽었다. 말이란 자주 '허무하다'. 행동의 표현이 더 강도있고 행동에 더 신뢰가 간다. "말은 요컨대 바뀌고 결국 행동이 말하도록 한다."는 말은 고전극의 주인공들만이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이는 복

음의 언어이기도 하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가장 미천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이나시오 성인이 “사랑은 말에서보다 행동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영신수련 230)라고 말을 한다.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초기 동료였던 파브르 신부는 말들을 이른바 그냥 입 밖으로 나온 ‘언어 그 자체’ (verba verborum), 숙고된 ‘관념 언어’ (verba cogitationum) 그리고 ‘행동 언어’ (verba factorum)로 분류했다고 한다. 이를 전해준 형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분류에서 그는 세번째 것을 행동의 좋은 모범으로, 즉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효과있고 잘 이해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내가 이것을 게재하는 것은 우리 사부께서 말하기 위해 둘째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이 언어(세번째)를 가장 잘 연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나시오 성인의 그러한 ‘행동 언어’는 결과로,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많이 드러난다. 로마에 있는 많은 매춘부들을 위하여 그는 ‘마르타의 집’을 세웠다. 여기서 여자들을 받아들였고, 그 여자들은 이 기관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기관에서 보통 행하는 것과는 달리, 속죄의 기도나 실천으로 구성된 어느 수도회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기반을 찾으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카타리나 자선단체’는 집안의 곤경과 궁핍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었던 어린 소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더욱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앞장서서 도와야 했다.

두 곳의 고아원은 어린이들에게 고향의 일부가 되어 주었으며 아울러 수공업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죄수들을 위하여 이나시오 성인은 여러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여러 일 중에 죄수의 속죄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도 조직했다.

아즈페이티아(이나시오 성인의 고향인 로올라에 인접한 도시 — 역자 주)에서 빈민 보호를 위해 이나시오 성인은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 1538년 로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나시오 성인은 4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고 약 3,000명 이상을 자신이 모금한 자선금으로 돌보았다.

이나시오 성인의 ‘행동 언어’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걸을 하는 등의 일을 했을 때 우선 그 기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더욱 큰 기구가 생기는 것을 주선하기도 했다. 자선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과 정의가, 복음과 사회적인 행동이 함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단어 ‘그리고’가 그를 만족시켰다. “너는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전체 계명이며 예언서이다”(마르 22,37-40 참조). 그의 행동들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의미로 ‘Opus Dei’, 즉 하느님을 위한 봉사 그리고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성찬례였다. “그들이 너희의 작은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순수한 의도

수년 전 이탈리아 국회의 열띤 논쟁에서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른 국회의원을 'Jesuita' 라고 불렀다. 거기에서 국회의장은 지금 서로에게 욕하는 것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것을 눈치챘다. 'Jesuita' 는 오늘날의 사전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예수회원, 위선자' 라는 뜻이다.

어떠한 다른 비난도 자신의 '후예들' 이 위선자라는 비난만큼 이어나시오 성인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위선자는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 신앙이 독실한 체하는 사람, 외교적인 술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어나시오 성인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한 '순수한 의도,' 즉 '올바른 의도' 는 어디에 있는가?

이어나시오 성인에 따르면, 의도를 "모든 일에서 올바로 지니고 항상 순수하게 하느님의 선의를 위해 봉사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도록 애쓰는 것이"(회헌 288) 필요하다.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는 모든 것에 그 가치가 있다.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 없이는 모든 것이 비뚤고, 탁하고, 숨어있고, 불순하며, 허위이다.

'순수한 의도' 라는 개념에 영향을 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것을 보고 있다. 그의 출발점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구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마태 6,22-23).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람들은 그 행동하는 의도를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외부에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이 자신을 순수하거나 불순하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나 그러나 진실을 이 민간 속담

은 말하고 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

의도의 순수성은 마음의 단순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수록 그만큼 '쉬운 것' 이 아니다.

첫번째 어려움이 다음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좋음의 적은 '선의' 이다. 가장 좋은 의도를 갖고도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최선을 원했다!" 라고 부모들이 흔히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탄하거나 비난을 한다. 이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었을까? 혹은 자녀들의 참된 행복을 무시한 채 자신의 흥미가 그뒤에 숨어있지는 않았는지? '매일 한 가지 선행' 이라는 자신의 모토에 충실하여 어느 소년 단원이 노부인을 차도 위로 잡아당겨 그녀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풍자화가 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순수한 의도는 그 의도가 실제적인 관계, 상대방 그리고 그 '성과' 를 주목할 때야만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의도는 단지 나의 의도일 뿐이다.

순수한 의도에 있어서 둘째 위험은 자기가 옳다는 독선과 광신에 있다. '사교도' 라는 단어가 '순결과 신자' 라는 뜻인 'Katharoi'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교도와 공론가는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와 반대인 진실한 '교의신학자' 는, 즉 예언자는 그들 자신의 불순함을 체험한다. 예언자 이사가 묘사하듯이,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공포하기 이전에 그들의 입은 불붙은 석탄으로 정화된다(6,6-7 참조).

뒤에 숨겨진 좋지 않은 의도는 언제나 있다. 예언자 말라기의 눈에 용광로 앞에 앉아있는 제련공으로 비추어지는 하느님께 인간은 항상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말라 3,2-3

참조). 이 비유로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이 금은 세련공에 관하여 말라기의 경우와 꼭 같은 것을 묘사했다. 대장장이가 용광로에서 금을 꺼낼 때가 되었는지를 작은 문을 통해서 바라본다. 대장장이가 용해된 것에서 비쳐지는 자기의 용모를 알아볼 수 있으면 이 순간이 온 것이다.

비유를 좋아한 이나시오 성인은 이 비유와 자신의 진술에서 기뻐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한테서 일그러지지 않은 채 자신의 모습을 다시 알아본다면 그 인간의 모습은 순수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찬미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뵈을 것이다!”(마태 5,8).

도구

누군가 악용되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환자, 일찍 퇴직한 사람, 은퇴한 사람, 독립해서 집을 떠나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으로 이전되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나시오 성인은 한평생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인간으로 자신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느님과 결합되어 일하는 도구’(instrumentum coniunctum)라는 단어 속에는 이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이는 제자로, 사도로, 포도밭의 종으로 주님께서 추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나시오적인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상징어가 어떠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우선적으로 하느님한테 사용된다는 놀라움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업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시고자 한다.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 그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어내셨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이 완성된다. 사람들이 특히 양쪽 손이 잘려나간 그리스도상 옆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손 이외의 다른 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말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된다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도구로 표현되는 이러한 상징어는 다음과 같이 보충하고 있다. 창조하는 손에서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봉사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바늘,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외과용 메스, 연주가가 연주하는 악기, 화가의 손에 있는 붓 등 모든 도구는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효능이 있다. 사람들은 만남과 도움을 통하여 성령께서 시종일관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자주 경험한다. 영신수련의 결정적인 체험은 영신수련 지도자의 총명한 충고 때문이 아니다. 그 조언은 포스터 게시판에 있는 선전문구일 수 있고, 지저분한 뒷마당의 햇살일 수 있으며 혹은 부서진 문을 안에서 열기 위하여 창문에 올라가 줄 것을 영신수련을 하는 여자에게 청하는 연로한 부인일 수 있다.

언제 하나의 도구가 그것으로 일하고 생산하는 사람에게 적당한가? 그것은 도구가 다루기 힘들지 않고 과제에 꼭 알맞을 때이다. 악기가 깨끗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체의 잡음’을 낸다면 그 악기는 적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점점 더 적당한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

코임브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예수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적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련함, 지적인 결과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사랑이 중요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어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들이 — 예를 들어 설교자나 고해신부가 — 겸손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이상적인 도구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이지만”(이나시오 서한 157) 은총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복음 선포는 학업을 통하는 것보다 더 적당한 도구가 된다.

이 견해는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도구를 하느님과 결합하고 도구를 하느님의 손이 좋게 이끌도록 준비하는 것이 ‘단순한 사목적 방법보다 더 효과’(회헌 813)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인간의 도구성이 사랑, 겸손 그리고 인내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합을 나타내면, 그 도구성은 가장 높은 인격적인 총만함이다. 성서상의 상징들은 인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게 기도문을 들려준다. “진실한 모세여, 나를 바위 가운데에서 물이 솟게 한 너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게 하시오. 구원자이며 의사인 그대여, 내가 상처를 감싸는 그대의 붕대에게 하시오. 생명의 원천인 그대여, 목마른 내가 사람들을 위한 컵에게 하시오. 하느님계로 가는 길인 그대여, 내가 길가의 이정표에게 하시오. 착한 목자인 그대여, 내가 그대의 피리에게 하시오.”

이나시오 성인을 특별히 잘 이해한 베드로 파브르는 언젠가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고해성사권을 청했을 때, ‘양심을 깨끗하게 쓸고’ 교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자루’로 존재하고 싶다는 소원이 오히려 그에게 생겼다. 비록 ‘그 빛자루가 쉽게 산산이 부서지고’ 또 더러운 것이 빛자루에 붙어있어도, 그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자루로 존재하고 빛자루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하느님과 결합된 도구

(Instrumentum coniunctum), 이제와 항상 영원히.

활동 중의 관상

이나시오 성인의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한 나탈 신부가 다시 한번 짧은 표현으로 핵심을 찔렀다. “‘Contemplativus in Actione’ 즉 행동 중에 관상하는 것이 바로 ‘이나시오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상 중에 기도하는 자는 활동적이다.”

활동과 관상을 일치시킨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행동주의가 범람하던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상을 추구하는 시대에 매력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나시오식의 견해는 여기서 하나의 통합과 두 가지(활동과 관상)를 내적인 일치에로 이끄는 하나의 길을 제공한다.

이나시오 성인이 살던 시대에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에 대한 것은 두 개의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문제였다. ‘세상 안’에서의 삶과 ‘수도원 안’에서의 삶이었다. 그 당시 관상 수도원의 삶의 형태는 대부분 ‘더 높은’, 더 좋은 삶의 형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간은 “우리 주 천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실 어떠한 신분과 삶에서 완덕을 이룩할”(영신수련 135) 수 있다고 이나시오 성인은 생각한다.

분명히 그에게도 활동과 관상은 구별된다. 이나시오 성인이 누군가를 영신수련에서 관상을 하도록 지도하거나 어느 다른 동료에게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별 또한 이나시오 성인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인에게 결정적인 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끊임없는 결합으로 이끄는 그 마음의 자유이다.

이 영적 진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체험될 수

있다. 거기서는 한 가지만을 계산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든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병상을 지키고 있든지, 그들이 내적인 침묵을 지키면서 함께 숲속을 산책하든지, 그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든지, 교육 문제로 서로 승강이를 벌이든지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까이 있거나 외형상 헤어져 있든지, 중요하고 근본이 되며 꼴을 갖추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한 가지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서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은 하나이다.

신체적인 것의 한 비유가 삶의 활동적인 차원과 관상적인 차원의 일치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에게는 눈과 손이 있다. 인간은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인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어둠 속에서 헤매든지 인간은 자신이 보는 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비유는 다른 것도 이야기한다. 눈은 손이 잡을 수 있고 발이 디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다다른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파멸만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봉우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활동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상적이다. 인간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본다. 많은 것들을 인간은 보는 것으로 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데 항상 다시 시간을 내야 한다.

보는 것으로부터 행동이 생겨난다. 요한 복음에 이것과 관련된 말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다"(5,19). 예수님께서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관상과 활동이 내적인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신다. 다시 한번 나달 신부의 말을 인용하자.

"우리는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관상적인 삶(contemplativa)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자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욱 더 높은 활동의 삶'(vita activa superior)은 행동과 바라봄이 하나가 되는 데에서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인 사랑의 활동입니다. 이는 완성된 행동입니다."

이 삶의 견해로 '마르타와 마리아는 하나'이다. 기도생활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우리의 행동에 '영적인 기쁨과 힘'을 주고, "우리의 일은 기도를 성장시키고 그 기도에 힘과 거룩한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Anima Christi)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나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방의 물은 나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나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를 들어 허락하소서.
네 상처 속에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악한 원수에서 보호하소서.
나의 임종 때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네게로 오게 명하사,
네 성인들과 한가지로
영원히 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이나시오 성인이 좋아한 매우 오래된 기도문이며, 이 기도를 참조하라고 성인은 영신수련 책자에서 여러 번 지시한다.)

영성생활 8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이나시오 영성의 기본 어휘들

지은이/빌리 램베르트
옮긴이/한연희
감수/박병준 · 이규성
초판 발행/1998년 3월 5일

기획/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편집인/김정웅
편집디자인/전재홍
퍼낸이/최인부
퍼낸데/도서출판 비벨
143-220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48-18
등록 1980년 4월 28일 제2-344호

보급처/이나시오 영성연구소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306호
E-mail/inigo@ccs.sogang.ac.kr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inigo
☎(02)705-8230/8666 Fax.(02)706-3869

가격/ 6,500원
ISBN 89-85528-21-1 03230